



9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9호

(루계 제 635 호)

◆◆◆◆◆◆◆◆◆◆ 차 례 ◆◆◆◆◆◆◆◆◆◆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4
축복	5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6
만년필앞에서.....	7
룡남산과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명작들	8
장군님의 시간철학!	11
한생을 다해 부르는 나의 사랑아.....	12
비범한 예지로 수령형상창조의 원리를 밝히시여.....	13
그 이름 없는것이 섭섭해	16
비범한 생에 대한 생각.....	17
시련의 날에 더 사랑하라	19
백두산의 녀장군에 대한 열렬한 칭송, 전인류적인 송가	20
명장과 명산.....	23
푹 강냉이	26
두 문호의 대결	35
우리 집 창문가에서	36

명언해설	37
금수산의 백학아	38
청춘의 벗들아 노래를 부르자	38
가을날에	38
처녀시절이 끝날 무렵	39
새 세기와 공민증	48
언제	49
내 받아 안은 믿음은	56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발전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57
교육자가 사는 계절 (외 1 편).....	60
교단의 높이	60
분노의 시	61
영화가 나오기까지	64
단재 신채호의 문학평론활동.....	65
나루가의 밤이야기	70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량덕모

새 세기로 들어 서는 문어구에서
지나온 세기
내 삶의 자취 더듬어 보니
조국이며, 나를 인간으로 키운 어머니시여
그대의 고마움이 밀물처럼 차올라라

못잇을 내 생의 갈피갈피는
그대의 사랑으로 엮어 진 서사시
그대 분여해 준 땅에서
날알향기 맡으며 걸음마 떼고
그대 등에 업혀
전쟁의 불길속을 헤쳐 온 철부지

내 밥투정 옷투정 받아 주기엔
시련이 너무 많았건만
불 탄 학교부터 세워 주고
복구건설의 힘찬 노래로 철들어 준 그대
천리마의 날음속에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걷는 법을 굳혀 준 조국이며!

어찌 잊으랴
군복 입은 날에도 로동의 날에도
청춘의 이 가슴에
백두의 우등불을 지피어
식지 않는 투사들의 붉은 피를
내 피줄에 이어 준 웅심 깊은 사랑을

그 뜨겁고 강의한 손길에 이끌려
나는 자랐다
한손엔 총 들고 한손엔 마치 들고
전투에서 전투으로 맞받아 나가는
철의 담력 무비의 배짱을 가진
그대의 아들 시대의 기수로

하여 그대 결심하는 기적의 창조물들로
세기의 자욱을 짚어 온 세대
어려운 세월 《고난의 행군》속에서
나를 다시 불변의 강철로 버려 준
그대는 내 운명의 영원한 보호자

이제 무엇이 두렵고 부러우랴
일어 서는 강성대국의 나는 떳떳한 공민
그대 나에게 불 태워 주고 다듬어 준
주체의 순결한 닛보다
더 위력하고 값진 재부는 없거니
원썬들이 휘두르는 핵탄도
제노라는 억만장자도
발밑의 지푸라기처럼 여기노라

아, 돈으로도 황금으로도 누를수 없는
인간의 가치
나의 소중한 그 닛은
이 몸이 한줌 흙으로 뿌려 진대도
그대의 숨결속에 영생하리

감사를 드리노라!
인류가 수백만년 바라오던 참인간
이 행성우의 진짜배기 주인으로
세기의 령마루우에
나를 세워 주고
인민을 내세워 준
김일성조선 김정일조국이며!

오, 그대 펼친 눈부신 미래를 내다보며
소리쳐 자랑하노라!
21세기 대문을 공지에 넘쳐 열어 젖히는
가장 존엄 있고 힘 있는 인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공민임을

축복

지난 3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대흥단군 종합농장을 찾으시었을 때에 있는 일이다.

이날 서두분장의 제대군인마을에 들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대군인 민원식동무의 가정에 친히 들리시어 신혼부부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친아버이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엌의 찬장도 열어 보시고 방안의 이불장, 옷장도 하나하나 열어 보시며 소금과 간장, 된장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민원식동무의 안해 박혜금동무가 오래지 않아 해산을 하게 된다는데 그 준비는 되어 있는가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에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흥단에 달려 와 제대군인과 가정을 이룬 박혜금동무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언제 해산을 하게 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박혜금동무는 딸자식이 친부모에게 말씀 드리듯 녀달후에 몸을 풀게 된다고 대답 올렸다.

아버이장군님께서 《그럼 미리 준비를 잘해 놓아야 하겠구만.》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화기애애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방안에 가득히 흘러 넘치었다.

그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소탈하신 모습에 어려움을 다 잊은 박혜금동무는 장군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한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

《무슨 소원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박혜금동무는 얼굴을 붉히면서 아버지장군님, 7월달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이름을 하나 지어 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리었다.

참으로 엉뚱한 청이었다. 박혜금동무도 청을 올리고는 너무도 무엄한 행동을 한것 같아 몸 둘바를 몰라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러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벌써 이름을 짓잔 말이지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살뜰하시고 인자하시면 평범한 한 녀성이 스스로없이 그런 청까지 올리랴.

그날 저녁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낮에 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일들을 상기하시다가 민원식동무의 가정에 들리시였던 이야기를 꺼내시었다. 장군님께서 제대군인의 안해가 아이이름을 지어 달라고 하였는데 못지어 주었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름을 지어 주어야겠다고, 자신께서 이름을 좀 생각해보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늘 가정방문한 제대군인의 안해가 보통걸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볍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원래 아이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지만 제대군인 안해의 간절한 부탁인것만큼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 주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들을 낳게 되면 대흥이라고 하고 딸을 낳게 되면 흥단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딸을 낳아 아들이름은 대흥이라고 하고 딸이름은 흥단이라고 짓게 되면 대흥단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성이 민가이므로 아들이면 민대흥이라고 하고 딸이면 민흥단이라 부르면 뜻이 있고 좋을것이라고, 원래 좋기는 오누이 쌍둥이를 낳아 대흥이, 흥단이라고 하면 더 리상적이요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일군들은 따라 웃으면서도 솟구치는 걱정으로 하여 진정할수가 없었다.

현지지도의 그 바쁜신 속에서도 이름 없는 한 녀성이 드린 청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을 거듭하시다가 친히 이름을 지어 주시는 아버지장군님.

일군들은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새 생명에 앞서 태어난 이름들을 다시금 뜨겁게 외워 보았다.

《대흥》이와 《흥단》. 합치면 하나의 이름 《대흥단》이 되는 얼마나 뜻이 깊고 사연도 깊은 소중한 이름들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생명만이 아닌 대흥단의 모든 새 생명에게 주시는 삶의 이름이었으며 백두삼천리벌의 미래에게 주신 숭고한 축복이었다.

항일선렬들의 붉은 피와 넋이 스며 있는 백두대지처럼 억세라고, 대지의 그 이름처럼 붉은 마음 영원히 번치 말고 고향땅을 지켜 가라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고원의 앞날의 주인공들에게 안겨주신 빛나는 이름 《대흥단》.

얼마전 박혜금동무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귀동너를 낳았다. 민흥단이 고고성을 터친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은정속에 꽃피여 나는 대흥단은 기쁨도 삼천리, 노래도 삼천리일뿐 아니라 사랑의 건설도 삼천리, 충성도 삼천리이다.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 많고많아도 자기 수령, 자기 정도자를 우리러 부르는 노래처럼 아름다운 노래는 없다.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는 우리 인민모두가 사랑하며 뜨겁게 부르는 노래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우리 조국과 인민이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비운과 혁명의 엄혹한 시련을 헤쳐 나가던 때에 태어난 노래, 들을 수록 깊은 감명을 자아내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를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주는 노래...

지난해 1월 1일이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력사적인 총 진군길에서 맞이한 뜻 깊은 새해 설명절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 하시면서 갖은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오신 한해의 로정을 더듬어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간고한 시기를 극복하였습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새 우리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나도 정말 의지의 힘으로 극복해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일군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젖어 드는 눈굽을 닦았다. 인민에 대한 사랑, 그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휘하시는 강의한 의지의 원천임을 일군들은 다시금 절감하였다.

격동된 분위기를 파도처럼 일으켜 번지며 한편의 노래가 은은히 흘렀다. 노래 《하늘처럼 믿고삽니다》였다.

품고 있는 생각도 모두다 말을 하고

움터나는 희망도 터놓습시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세월 흐른대도 **김정일**장군님만을

티끌만한 가식도 미사려구도 없이 우리 인민의 정정이 담겨져 있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후더운 눈길로 일군들을 바라보시였다.

《나는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시였던 수많은 인민들,

자신께서 주신 과업이라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목도로 바위산을 옮겨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충직한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 보시는가,

아니면 불 타는 그리움을 담아 각계각층 사람들이 올린 편지들,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을 결사의 각오가 담겨 진 그 편지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으시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조되는 선물이 찾아들기를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인민을 위해 일해야지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나는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조국의 통성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하니 건강이 나빠진다고 걱정하는데 나는 일없습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더 헌신분투하겠습니다.

동무들이 나를 보고 이번 설에는 잠시라도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라고 하는데 나라고 왜 가족들과 같이 단란하게 설명절을 쇠고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은 우리 인민에게 가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들과 함께 별로 설을 쇠여보지 못하였습시다. 명절뿐만아니라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마디가 가슴을 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것을 지켜 우리 장군님 헤쳐 오신 험로역경의 길 장장 몇천몇만리던가. 그 길에서 쪽잡과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피곤을 푸시며 찾아 주신 교장은 그 얼마이며 그 길에서 지새우신 밤과 새벽은 또 그 얼마이던가.

하건만 인민을 위해 겪는 로고를 최상의 락으로 여기시며 설날에 인민이 부르는 한편의 노래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새롭게 자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각오를 굳게 다집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소리치며 잘 사는, 그리하여 더 바랄것도 부러

울것도 없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래일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실 결심과 우리의 후대에 다시는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고 영원히 행복과 기쁨만이 차넘치게 하실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노래는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는 일군들의 마음을 싣고 이어 졌다.

온 나라가 운명을 맡기고 삽니다
온 세상이 미래를 의탁합니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세월 흐른대도 **김정일** 장군님만을

그렇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험산준령이 앞을 막아 선대도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랐기에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

내고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격,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계시여 이 땅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이 반드시 일떠설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이 소리치며 잘 살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 오늘을 추억하며, 걸어 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가 력사의 엄혹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수 있었으며 무슨 힘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는가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줄것이다.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길에 승리와 영광도,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것을 이 노래를 부르며 말해 줄것이다.

본사기자

만년필앞에서

류명호

한창
글을 쓰시다가
금시 자리를 뜨신듯
책상우에 놓여 있는 만년필

기다리면
그날처럼 오시여
예지의 눈빛을 번쩍이시며
또다시 만년필을 달리실듯

아, 40년전
대학시절에
우리 장군님 쓰시였던 만년필!

이 만년필로 쓰시였으리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리론도
현대제국주의 특징에 대한 리론도
정치경제학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리론도...

이 만년필에서 흐른것은
잉크가 아니라
사대와 교조의 진펄에서 헤매던
교육사업에 흘러 든 주체의 생명수였거니

김일성 종합대학 사적관에
정히 보관되어 있는 그이의 만년필
그것은 이 나라 교육자들이
높이 들어야 할 주체의 필봉!

나에겐 생각되여라
이 만년필은
그 어떤 다른 사상의 그릇이 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에 붓을 적서 들어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와 후대들앞에 남기신
영원한 조선의 필봉처럼!

룡남산과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명작들

김려숙

생활에서는 레사롭게 흘러 가던 년대와 날들이 그 어떤 계기에 의하여 뜻 깊은 력사적인 날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체49(1960)년 9월 1일은 바로 그러한 날중에서도 특기할 사변적인 날로 된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시었던것이다.

천출명장 위인의 혁명실록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는 이날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모두는 그 누구나 다 온 세계에 조선을 빛내이리라, 조선을 떨치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룡남산마루에 거연히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게 된다.

룡남산, 그때부터였으리라. 자그마한 야산과도 같은 룡남산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상징으로,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필생의 사명이 선포된 력사의 언덕으로 이 땅우에 거연히 솟아 나게 된것은...

감격도 새로운 그날로부터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서 40년이란 기간은 너무도 짧은 한순간인듯 하다. 하지만 인류사적인 격동적인 사변들이 이 기간에 창조되었으며 그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행성우의 유일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이 위대한 전변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를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 주시였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조선아 너를 빛내리》,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 《제일강산》, 《진달래》 등은 이시기 그이께서 이룩하신 문예업적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명작들에 관통되고 있는 일관한 사상정서적기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렬한 체형세계와 열정,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격앙된 분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은 인민적 령도자의 품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춘 김정일동

지의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그이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벌리신 불멸의 혁명활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위대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로 충만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사상정서적특성은 바로 위대한 령도자, 서정적주인공의 그 숭고한 체형세계의 특성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49(1960)년 9월 력사의 그날 룡남산에 오르시어 옮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크나큰 포부와 필생의 사명을 이 세상에 선포한 뜻 깊은 시로서 영원불멸할 거대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단순한 하나의 시가인것이 아니라 위대한 령도자가 수령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다진 엄숙한 맹세를 장엄하게 선포한 기념비적문헌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해 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 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 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 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명작에서 보는것처럼 1절에서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중대한 사명감을 안고 수령님의 높은 뜻으로 조선을 빛내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시적화폭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라는 시적표현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다.

이 시구절을 대하느라하면 대학의 오랜 력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자기나라 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것을 말씀 올리는 어느 한 나라 일군에게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소.》**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의 웅심깊은 마음과 억센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느껴진다.

하기에 고전적명작에서는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우리 종합대학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배울수 없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워 조선을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심오한 체험세계가 그토록 격조높이 울리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뚫고 조선을 이끌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펼쳐 갈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토로한 2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걸어온 우리 혁명의 험난한 로정과 그 길에서 승리만을 이룩해온 자랑찬 로정을 뜻깊게 돌이켜보게 한다.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이 길에서 부닥칠수 있는 사나운 풍랑도 세찬 폭풍도 두려움없이 헤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이것은 오로지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야 할 위대한 령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신념이며 조선을 온 세상에 떨치고야 말 위대한 령도자만이 발현할수 있는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적으로 예감하신 것처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며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 보게 된다.

3절에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종국적으로 완성할 크나큰 혁명적포부,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 올 위대한 구상을 격조높이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갈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굽어치고 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사명감을 깊이 있게 심어 준 이 명작의 자자구구마다에서는 이렇듯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것이 곧 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이며 펼쳐 가는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애국의 일념이라는 사상정서가 강렬하게 뽐여져 나오고 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력사적사명감은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뿐아니라 다른 시가들에서도 절절히 강렬하게 토로되고 있다.

주체51(1962)년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 몸소 읊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에서는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끊임없이 곧바로 이어 갈 숭고한 뜻이 뜨겁게

노래되고 있다.

...

천만대군 이끌고 험산준령 넘고넘어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 가리
침략자 미제를 이 땅에서 내몰고
통일된 조국을 한몸에 안으리라

삼천리강산을 락원으로 꽃피워
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리
그 어떤 원썩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 영원히 지켜 가리라

이 고전적명작에는 천만대군을 이끌고 나가시는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멸적의 기상과 함께 통일된 삼천리조국땅을 한몸에 안으시고 락원으로 꽃피워 조선의 영광, 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실 민족의 위대한 아들, 절세의 영웅이신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가 격조높이 토로되어 있다.

백두의 행군길, 그것은 백두에서 조선혁명의 행군길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것이며 그 길을 이어가는것, 그것은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이 걸어 온 길을 후대들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참으로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는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특히 무력으로 내 조국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수할 위대한 령장의 선군령도사상과 퇴성벽력에도 드물지 않는 담력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한다.

령군봉에 쟁쟁 울리던 그날의 격정이 오늘 그대로 이 땅우에 메아리쳐 오는듯 싶다.

세계 그 어느 위인의 정치방식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선군령도사상이 벌써 그 시절에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태어난것이 아닌가. 조선혁명의 특성과 경험을 일반화한 독창적인 사상이 오늘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는것을 볼 때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오직 끝 없는 흠모와 충성만이 따를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필생의 사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가꿔 주신 내 조국에 대한 끝 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애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도록 우리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리라는 최대의 애국관,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맡아 안은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조국관에 기초한것이다.

그이의 조국애는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력사적사명감으로 분출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은 이런 측면에

서 이채를 띠고 있다.

...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절승경개라
사람들 자랑높이 안고 사는 금수강산
천하의 아름다움 여기 다 모여
세상에 다시 없는 제일강산아

수려한 이 절경이 자연의 조화더나
로동당의 해빛이 하도 따뜻해
인민의 기쁨은 일만단풍에 어리고
누리는 행복은 산상끝에 닿았구나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 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룡남산마루에서 올린 신 력사의 선언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듯 세계가 부러워 바라보는 사회주의조선을 더 높이 안아 올리시려는 장군님의 애국 애족의 신념과 포부가 삼천리강산에 찡찡 메아리치는듯 싶다.

시는 불멸의 조국찬가이면서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한 력사의 맹세, 력사적선언으로 된다.

《천하의 아름다움 여기 다 모여/세상에 다시 없는 제일강산아》와 같은 표현은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는데서 극치를 이룬다.

《수려한 이 절경이 자연의 조화더나》라는 시적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 부정의 색채를 강조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삼천리금수강산은 아름다웠지만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우리 인민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수 누릴수도 없었다는 사상을 간결한 시형상속에 함축시켜 시의 기본사상정서를 밝히는데로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에서는 수천년의 기나긴 세월 빛을 잃었던 삼천리금수강산을 찬란히 꽃피워 주신 은혜로운 태양은 우리 수령님이시며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경탄해 마지 않는 우리의 제일강산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사상을 뚜렷이 부각하면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조국을 세계의 제일강산으로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할 시대적사명감을 절절히 깨우쳐주는데로 시적정서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숭고한 뜻은 조선의 진달래를 노래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에서도 웅심깊은 정서로 안겨 오고 있다.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곱나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는 꽃송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여 난 붉은 진달래
긴긴 밤 찬 서리에 피고 또 피여서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때 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해빛 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
못 잊을 어머니의 그 모습이런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흐르는 노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연 깊은 진달래에 대한 뜨거운 정을 싣고 조선의 진달래에 어려 있는 심오한 인생철학을 깨우쳐 주고 있다.

찬서리,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봄을 확신하고 피여 나는 진달래꽃은 미래를 띠고 온갖 시련을 이겨 내는 영원한 신념의 꽃,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다.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혁명가의 생명이며 미래를 위해 살며 투쟁하는것은 혁명가들의 고결한 인생관이다.

가사에서는 언제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높은 뜻, 숭고한 념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변함없이 피어나는 진달래처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시고야 말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심 깊은 체현세계를 짙은 정서적바탕으로 채색해 주고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다양한 시적화폭속에서 주체혁명위업 계승완성에 관한 사상 감정을 깊이 있게 형상한 특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그 감정정서적 폭과 열도에 있어서 그 어느 시가와도 대비할수 없이 웅건하고 장엄하며 열렬한것으로 특징적이다.

조선은 그대로 장군님의것이고 따라서 장군님은 곧 우리 조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조선을 통채로 한가슴에 안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신다.

해 솟는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였을 때 그이의 앞에 펼쳐진 세계는 종합대학 주변의 전경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삼천리강산이었다. 총창을 비껴 들고 산정에 오르시였을 때 미래를 꽃피울 피 끓는 가슴에는 전술훈련의 성과에서 오는 쾌감만이 자리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이께서 헤치시며 달려 가셔야 할 앞길, 주체의 길이 파도쳐 밀려 오는듯 했다.

명작들에는 삼천리조국강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통채로 안고 천하를 굽어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걱정이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등과 같은 무한대의 폭과 깊이를 가진 정서의 응결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바탕우에서 명작들은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 오리》, 《통일된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라》, 《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펼치리》,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내 너를 더 높이 안아 올리리》와 같이 조국의 운명을 틀어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억센 기상과 강렬한 열정을 격조높이 시화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령도자만이 이러한 높은 경지에서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체험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시가마다에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인 령도적지위가 가슴 뿌듯이 안겨 온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사상정서적특성에서뿐아니라 시적구성과 시적표현수법, 은률조성 등에서 우리 혁명적시가문학의 고전적본보기로서의 불멸의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룡남산과 더불어 영원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심어진 심원한 사상정서세계를 대를 이어 후대들에게 체득시키며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참된 전사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길에서 억세계 싸워 나갈것이다.

장군님의 시간철학!

리명근

한초 또 한초...
어길수 없는 법칙인양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
허나 우리 장군님 품에선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되돌아서기도 하는것이 시간이다

매일에 할 일
오늘에 앞당겨 하시며
시간을 당겨 쓰기도 하시고
지난 세월 다 하지 못한 일
오늘에 천만배로 더 하시며
가버린 시간을 되찾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시에 벌리시는 사업
한번에 몇가지 일을 하시여
시간의 립체성을 보여 주신다
다각화된 창조의 세계로
시간의 공간을 완전히 메꾸신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끝없이 아껴 쓰시는 시간
때로는 아낌없이 바치시는 시간
그래서 한초한초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느끼시고
시간이 지닌 그 귀중함을
가장 절절히 체현하신 장군님

긴 휴식을 대신한 《쪽잠》도
시간에 대한 그이의 립장
그 부단한 사색속에
시간은 융해되어 있고
그 손길 따라 시간이 움직인다

시간은 장군님의 세계에서
귀중한 한 부분
한 순간의 천리혜안으로
천년미래를 이 땅에 당겨 오고
창조의 기념비를 채워 가며 흐르는 시간은
그이의 천금 같은 재부

천조각 만조각
시간을 등분하시여
하나도 버림없이 다 리용하시는
그 품에서 시간은
자기의 주기를 가지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 달린다

시간에 쫓기우기도 하고
시간을 뒤따르기도 하며
시간의 포위속에 든것이
인간이 아님을
인간은 시간의 확고한 주인임을
장군님 시간철학은 증명하나니

오, 그 시간
장군님의 시간속에
지구가 돌고 있다!

한생을 다해 부르는 나의 사랑아

홍현양

나의 한생에

더없이 귀중한것 무엇이던가
새벽공기 마시며
어깨를 스치는 버들가지 바라보며
바삐 걷는 출근길이던가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 보아도
눈시울 젖게 하고
내 인민학교 첫 학습장에
담임선생의 다심한 눈빛아래
처음으로 그린 사랑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안개비 내리는
이국의 하늘밑에 서면
떨어 지는 비물소리에 실려
고향의 버들방천
기다리는 어머니의 발자국소리인양
못 견디게 파고 들던 그 그리움

아 한시도 떨어 저 못 살고
때없이 조용히 불려 봐도
한줌의 붉은 흙조차
이 마음 세차게 두드리는
조국아 나의 조국아

병사들의 총창우에 날리는
람홍색 기발로
아이들의 가슴에 날리는
붉은 넥타이의 타는 빛으로
너는 아름다운 이 땅의 삶
너는 버리지 못할 나의 인생

조국아 나의 조국아
너는 돌격대의 꺼질줄 모르는 우등불
우리 장군님 가꿔 주시는
대홍단의 감자꽃
전선길에 마셔 보신 맑은 웅달샘

천리 산발에 내리는
눈송이 차거운 바람조차
남먼저 봄을 익히며 뿌려 주는
신비로운 그 빛
그것은 너의것
그것은 백두의 의지 너의것

얼마나 고난에 찬 언덕을
얼마나 참기 어려운 시련을
넘고 헤치며 찾은
저 창문들의 따뜻한 불빛인가
저 아이들의 별빛 눈동자인가
저 궤도전차의 열정에 찬 바퀴소린가

조국아, 나의 조국아
먼길을 왔다고 뒤돌아 보지 않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지칠줄 모르고 오르며 달리는
너의 걸음에 번개가 일어
너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어

내 강냉이 한 이삭으로
끼니를 예울 때 있어도
손끝에 빨간 피방울이 맺혀도
아픈줄 몰랐다
너만은 나의 사랑이었기에
너만은 나의 어머니였기에

아, 조국아 나의 조국아
내 목숨 바쳐
한줌의 흙이 되어도
너의 가는 길에 꽃을 피우는
그 흙이 되고저
그 향기가 되고저
한생을 다해 부르코부르리라
아 나의 사랑아

비범한 예지로 수령형상창조의 원리를 밝히시여

안희열

항일혁명투쟁 시기 혁명송가문학과 백두산전설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해방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60년대 초 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창작을 거쳐 60년대 후반기부터는 소설문학과 서사시문학, 희곡과 영화문학 등 여러 형태분야에서 큰 힘을 넣어 적극적으로 창작됨으로써 더욱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80~9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 지게 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문예사상리론활동과 령도업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수령형상문학의 대전성기가 마련되고 수령의 형상창조를 핵으로 하여 주체문학을 건설해 나가고있는 오늘의 우리 문학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력사적시기에 수령을 형상한 문학의 창조발전에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문예사상리론적 및 령도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되새겨 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 같은 충성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을 빛내일 확고한 의지와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주체과학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그때에 벌써 수령형상문학의 창작과 그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일찍부터 문학예술에 대한 뛰어 난 천품과 조예,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학창시절에 벌써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혁명문학건설에서 수령형상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통찰력에 기초하시여 수령을 형상한 극문학의 창작과 그 발전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도 저물어 가는 12월 초 어느 날,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절찬속에서 공연되고 있는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리종순 작)를 친히 두차례나 보아주시였다. 처음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보시였으며 며칠후에는 연극에 대한 반향을 듣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몸소 공연조직까지 해주시였을뿐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공연장소인 모란봉극장에 나오시여 두번째로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무대형상으로 처음 창조하는 극작품이라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시고 비상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지니시고 이 작품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관람석의 어느 한 위치를 고정시켜서 보지 않으시고 두차례의 공연전후반시간에 관람석의 좌석을 바꾸어 가면서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극작품의 막과 장의 흐름에 따르는 기본내용과 극구성조직, 수령님의 역형상을 맡은 배우연기형상의 진실성여부, 배우와 관중들과의 교감상태에 대하여 여러 위치에서 세심하게 주시하여 보시면서 수령형상극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과 정서적감화력을 가늠해 보시였다.

연극을 보신 다음날인 12월 9일, 교실에서 연극을 보신 감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소탈하게 대해 주시면서 **《수령을 형상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과 하신 담화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처음으로 무대적형상으로 창조한 연극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와 교양적가치, 수령형상극작품의 정서적감화력,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요구들과 미학실천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를 무대에 옮긴 연극작품을 보시고 연극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극적전인력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였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 서남부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며 인민대중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힘 있게 불러일으키던 시대력사적환경속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때로부터 보천보전투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령부의 정치부 성원인 문영과 그의 안해 주원순을 장백현 인후촌이라는 마을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시여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박성룡을 비롯한 마을청년들을 어엿한 유격대원으로, 우수한 정치공작원으로 키워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국내진공작전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사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동 깊게 펼쳐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극의 중심내용과 시대적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연극작품이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절찬을 받고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연극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극적전인력에 대하여 비범한 예지로 분석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는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탁월한 군사전략가,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로 형상하여 무대에 올린 작품입니다. 바로 여기에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사상예술적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희곡은 생활을 극적방식으로 반영하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희곡은 사회력사적환경과 사건, 인간관계와 성격을 비롯한 모든 생활을 다 극적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연극이 그 어느 문학예술형태보다 극적전인력을 가장 강하게 불러 일으킬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사상예술적가치는 극문학의 형태적특성을 살려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여 받들어 모시는 충성의 감정을 무대극적형상으로 감동깊게 형상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제 백만대군과 맞서 싸우시던 항일대전시기에 수많은 전설을 낳으신 절세의 위인, 전설적영웅이시다. 당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의 눈부신 전투활동과 전투성과를 두고 수많은 전설들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동북만주지방은 물론이고 국내에까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신화같은 전설들이 파다하게 퍼졌다. 연극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고 존경하며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우리 인민의 감정세계를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진실하고 감동 깊게 형상하였다.

연극의 1막 1장에는 북쪽하늘가에 장수별이 하나 생기더니 백두산에 김일성장군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예로부터 나라를 구할 장수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 인후촌마을 히로인의 말이 있는데 이말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와 존경의 정을 그대로 보여 준다. 작품에는 이밖에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종이 한장을 띄우고 큰강을 건너 가셨다는 이야기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이 낸 신출귀몰의 전설적영웅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우러르며 흠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열렬하였는가 하는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 준다.

연극의 이 장면은 수령님의 형상을 직접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고 유격대정치공작원 문영과 마을의 히로인과의 대화장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강한 극성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경모의 정과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한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이 가지는 커다란 극적전인력이 있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극적전인력은 극문학의 형태적특성을 살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정치가, 천재적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숭고한 품모를 극적으로 감동 깊게 형상한데 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3. 1월간》에 실릴 원고를 지도하시면서 정치주임에게 혁명이 다름 아닌 인간을 위한 사업이고 인민을 위한 사업이라는것, 따라서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의 힘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극적장면의 묘사가 있다. 또한 《동아일보》에 실린 자그마한 사건 하나를 놓으시고도 민족과 겨레의 고통을 절감하시면서 그것을 자신이 풀어야 할 시대적임무로 여기시는 숭고한 품모를 보여 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 극적인 세부장면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수령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정치가, 민족의 아버지이시라는것을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희곡에서는 위대한 정치가로서뿐아니라 탁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님의 위인적 품모를 극적으로 감동 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조국으로 진격하는 기미를 알아 차린 일제침략자들이 대병력을 투입하여 산과 골짜기마다에 겹겹이 포위진을 치고 있을 때 대담무쌍하고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을 신기한 묘책을 내놓으시는 장면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급한정황속에서 7련대의 행군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경위중대에 적을 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돌격전의 선두에 서시어 원수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시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다.

연극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혁명조직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을 계몽시키기 위한 사업, 국내진공작전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시며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령활무쌍한 전투행동을 벌려 나가시는 사업 등 탁월한 정치가, 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극적으로 부각시켜 보여 주는 장면들이 감동깊게 그려져 있다. 작품은 이러한 극적장면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모신 탁월한 사적리론가, 정치가이시며 백두산이 낳은 천출명장이시라는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된다. 여기에 또한 이 극작품의 사상에술적 가치가 있고 극적견인력이 있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사상에술적 가치와 극적견인력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를 극적형상으로 감동깊게 보여 준다.

연극작품에는 조국해방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간직하시고 그것을 풀어 나가시기 위하여 모든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형상되어 있다. 연극의 1막에는 수령님께서 이후촌마을의 박로인이 첫날새시에게 입힐 치마저고리 한벌을 구할수 없어 아들의 성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들으시고 첫날 입힐 옷감을 마련해 보내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연극의 2막에는 소박한 농촌청년 박성룡이가 사령관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는 장소에서 자신을 것처럼 친절히 대해 주시는분이 사령관동지이시라는것을 알아 보지 못하는데 대하여 조금도 탓하지 않으실뿐아니라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극적장면이 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은 얼마나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민적품성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가 하는것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

연극에는 사령관동지께서 박성룡이가 부러뜨린 총가목을 온밤 꼬박 새우시며 고쳐 주시는 장면,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문영이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구출공작을 직접 조직해 주실뿐아니라 성룡이에게 그를 구출할 공작임무를 주시며 자신의 권총까지 내주시는 극적장면이 펼쳐져 있다. 연극에는 또한 위급한 정황속에서 자신의 신변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오의 선두에 서시여 몸소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 나서시는 감동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극적장면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혁명과 전우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내대시는 혁명가의 최고전형이시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수령형상문학의 품격으로 볼 때 아직은 미숙한데가 적지 않은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사상에술적가치와 극적견인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해주시었을뿐아니라 수령형상문학의 발전과 그의 사상에술적품격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요구와 과학적인 방도를 뚜렷히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을 창조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여기에 큰 힘

을 넣을데 대하여서와 소설과 영화,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걸쳐 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감동 깊게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 등 수령형상문학의 발전과 수령형상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품격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들을 심오하게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 대한 자연발생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당의 령도밑에 목적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우리의 문학예술을 명실공히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수령을 형상한 극작품의 미숙성과 부족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게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품격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 세우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문학의 사상에술적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입각하여 극적으로 전형화할데 대한 문제, 극적인 생활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정중히 모실데 대한 문제, 성격형상과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미학적요구로 밝혀 주시었다.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에술적품격을 높이기 위한 미학적문제들은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에 형상되고 있는 극적인 생활화폭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졌다.

수령형상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품격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미학적방도들은 수령형상작품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될만큼 최상의 사상에술적 수준에서 창작되어야 하며 수령형상작품은 일반작품과는 달리 자기의 고유한 생리가 있고 미학적특성이 있다는데 대한 과학적리해에 기초하여 밝혀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형상문학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특출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력사에 실지 있는 위인을 형상하고 내세우고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부각시켜 형상하는것을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하고 있다는데 대한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 밝혀진 진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의 그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를 보시고 학생들과 나누신 담화는 수령님을 형상한 희곡창작에서 이룩한 사상에술적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반적인 수령형상문학창작사업을 새로

운 더 높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일찌기 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 시기에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명철하게 밝혀 주신 수령을 형상한 문학창작과 그 발전에 대한 사상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는 근본적인 전진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풍모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폭 넓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들과 다부작형식의 영화문학, 서사시와 희곡 등의 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발표되어 주체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실이 이것을 실증한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문예사상리론적업적과 령도업적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야 한다.

그 이름 없는것이 섭섭해

리동찬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산천이
낮에도 밤에도 굴리는 구슬인가
석왕사 계곡에 흐르는 옥계수
내 넋을 이끄는 물소리에 반해

시흥에 부푸는 가슴 설레며
오늘도 거니는 이 물가에
이 몸을 하늘가로 받들어 세우런듯
무지개형다리가 놓여 있어라

차마 떠나기 아쉬운듯
돌바위 안고 도는 맑은 물
산삼의 뿌리를 씻어 내리어
누구나 떠보는 물이 아니여라

그저는 지날수 없어
뜨거운 생각에 가슴 젖는 이 물가
이 산천에 울리는 저 물소리
물도 그저 흐를수 없어
뜨거운 사연을 끝가득 터놓는
그 메아리를 들어 보시라

해방된 조국땅에
그 얼마나 할일도 많았던가
부족한것 또한 그 얼마였던가

허나 우리의 수령님
산수 좋고 약수 유명한 이곳에
인민의 휴양소를 꾸려 주셨으니

나무들도 그 사랑 못 잊어 설레이고
물도 그 은덕 전하며 흐르니
낮에도 밤에도 마음속엔 수령님생각
오늘도 래일도 인민은 수령님생각

아, 사랑에 떠받들려 온 이 몸도
보답할 마음에 열정을 키우고
위훈의 일터로 달려 가련만

한가지 서운한 생각에
휴양의 낮과 밤 꿈속에서도 지어 보았노라
이 물가를 건너 다닐 인민들 생각하시며
수령님 세워 주신 다리
오늘도 그 이름 없는것이 섭섭해

허나 내 오늘
이 나라 한 공민의 자격으로
인민된 의리로 그 이름 불이고 싶어라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워 주신 수령님
그 사랑에 솟아 오른 이 다리에
《사랑의 다리》라 이름하고 싶구나

비범한 생에 대한 생각

황성하

나는 시인이기전에
어머님을 못 잊어 그리는
이 나라의 한 녀성

김정숙어머님의
비범한 한생을 더듬으며
내 끝 없는 명상에 잠기노라

12월의 눈

눈이 내린다
내 마음의 하늘을 가득 덮으며
12월의 하얀 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이리도 하얀 눈은
저 멀리 백두산에서 오는것인가
눈을 보면 어머님이 생각나고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에도 고요히 내리는 눈

어깨우에 흰눈을 함뿍 없으시고
사령부천막가를
밤 새워 돌고도시던 눈발속의 그 모습
국내공작임무 받고 떠나실 때에도
걸음걸음 헤치시던 사나운 눈보라

만리광야에서 맞으신 그 찬 눈을
해방된 그날에조차 없으신채
김정숙어머님
해빛처럼 조국땅을 누비시며

열었던 마음들을 녹여 주셨거니

아 우리 어머님
눈을 그리도 많이 맞으시려고
눈 오는 12월에 탄생하셨던가
태고의 눈이 내리는 백두산에서
한평생 군복 입고 사시였던가

이 땅의 찬 눈을 어머님 다 맞으시고
우리에게 주신것은 따스한 봄빛
위대한 장군님 모시여
그 봄빛이 그리도 소중한 이 땅에서
새겨 볼수록 더듬어 볼수록
너무도 가슴치는 눈속의 한생이여서

하박하박 눈송이도
그리움에 젖고젖은듯
끝없이 내리는 흰 눈송이에
이 마음 실고실으며
내 그리움의 눈바다를 하냥 저어 가노라!

어머님의 손

그리운 나의 마음속에
때없이 찾아 오시는 어머님
그럴 때면 나는 먼저
어머님의 손부터 잡아 봅니다

조용히 잡아 보는 그 손이
웬일로 내 가슴에 눈물로 스뵈니까
하많은 기쁨과 눈물이 어린 손
이 세상의 천신만고
이리도 마디마디 비졌습니까

눈비 지겨운 밀림속에서
전우들의 때식을 끓이느라

마를새 없었던 손입니다
두터운 얼음을 까고 빨래도 하시느라
녹을새 없었던 어머님의 손입니다

허나 밤하늘의 령롱한 별을 따서
군모에 정히 수를 놓으실 땐
그리도 부드럽고 살뜰하신 손
얇는 전우들을 안아 일으키실 땐
그리도 다정하고 인자하신 손

그 손에 총을 잡으시면
노도치는 용맹으로 천하를 울리신 어머님
그 총으로

대사하언덕의 탄우속에서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신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
그 손으로

축복의 꽃잎들이 끝없이 내려 앉는 그 손으로
조신의 위대한 미래를 안아 올리셨으니
그 손을 잡고 가는 나의 앞길에
시름을 몰아 내고 기쁨을 펼쳐 주어
영원히 놓을수 없는 어머니의 손이여

달밤의 명상

나는 달빛을 밟는다
은빛 잎새들사이로
가다가다 흘러 내리는 달빛이
이 마음을 고요히 쓰다듬는 밤

내 마음에 없어 진 류다른 달빛
어머님생각을 불러 내누나
백두밀림의 기나긴 밤
김정숙어머님의 마음을 싣고 가던
그 정겨운 달빛이 아닌가

조국을 빼앗겼던 그 아픔
애달픈 향수로 달래시며
뜨겁게 안아 보시던 저 달빛
《사향가》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어머님 눈가에 맺혀 흐르던
그 맑은 눈물도 어려 오는듯

저 달빛속에
멀리 타향에서 봄을 그리며
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으시던

자작나무숲가도 그러 보시고
진달래 붉게 웃는
봄의 삼천리도 그러 보신 어머니

리향의 작은 쪽배 타고
여섯살에 떠나시던 어머님에게
설움밖에 준것 없는 조국이건만
이 땅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에
단발머리 그 시절에 혁명의 군복 입고
혈전의 언덕을 넘어 오신 어머니

피를 바치고 청춘을 바치며
한생 안고 사신 조국을
이 밤엔 보고파 어머니의 달이 되어 왔는가
찾아 와 품에 안고 애무해 주는듯

달속에 비낀 그 모습 우러러
-어머님! 내 목 메여 부르니
이 밤에 달빛은
내 가슴에 행복으로 비껴 내려라

그날의 이야기

그날은
해방된 내 조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가 처음으로 휘날린 날이었다지

인민의 첫 국가를 창건하시고
택으로 돌아 오신 우리 수령님
점심식사를 차려 올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뜨거운 말쑤를 나누신 그날은

정숙동무가 내 뒤통심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어
오늘은 한잔 부어 주시겠다고
수령님 뜨겁게 잔을 부으시는데

목 메여 그 술잔을 받으시며
어머님 하시던 그날의 그 말쑤
...왜 해준것이 없다고 합니까
당을 창건했지 군대를 창건했지

오늘은 공화국까지 선포해 주셨는데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
그 어떤 기쁨속에
자신을 그토록 헌신하셨던가를
그 어떤 행복속에
백두산시절이나 해방된 나날에나
자신을 깡그리 바치셨는가를
가슴치며 전해 주는 그날의 이야기

이 땅에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신
수령님의 건국설화를 전할 때
그 한페지에
금문자로 길이 새겨 넣어야 할
아, 못 잊을 그날의 이야기

생의 의미

어머님모습 그려 보며
끝 없는 명상에 잠겼던 나
문득 소스라쳐 놀라며
어머님 사신 나이 세어 본다

32살!

세월이여, 그렇듯 비범한 생애에
그 나이밖에는 못 주었던 말인가
그리도 짧으신 생애에

그 많은 업적을 쌓으셨단 말인가

아름이 뒤채이고
놀라움이 분수치는 가슴에
나는 생의 의미를 새롭게 새긴다
위대한 생애에 끝이란 없거니
장군님 따라 승리하는 세월속에
어머님의 영원한 생이 있어라!

시련의 날에 더 사랑하라

김석주

시련의 길을 조국과 함께 걸으며
나는 나를 알게 되고
조국을 알게 되었노라
그리고 생각했노라
이 조국을 왜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를

조국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조국이 배 고프면 나도 배 고프고
조국이 험한 길을 걸으면 나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것이 조국과 나

내가 없어도 조국은 있으나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는
이것이 조국과 나

그저 나라의 덕으로만 살줄 알던 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으랴
시련의 길을 걸으며 더 잘 알게 되었노라
나를 바쳐 받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것이
조국임을

그대의 그 평범한것조차 수수한것조차
내 정어린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나니
거기에 얼마나 강의하고 억센것이 있었더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힘과 정신이 있었더냐
남들은 잃고서야 알게 된 그것을
우리는 시련을 이겨 내며 알게 되지 않았더냐

좋은 날에 알던 그 귀중함에
어려운 날에 알게 된 귀중함을 더하여
내 갑절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거니
그 무엇인가 깨우쳐 주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 시련이 있어야 했던듯...

내 언제 이처럼 사랑했으랴
그대의 그 붉은기를
그대의 강한 의지와 신념을
내 더 사랑하게 되었노라
병사들의 땀 배인 군복처럼 수수하고
근면한 로동의 작업복처럼 소박한 그대를

울면서 가야 할 험난한 길을
웃으며 가게 해주신
우리 장군님
만난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강성부흥으로 안고 가시는
이 조국

그 숭고한 헌신
위대한 애국에
내 눈굽을 뜨거이 적시며 안아 보는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너
나
우리모두
자기 꿈, 자기 행복, 자기 삶이 귀중하거든
이 조국을 사랑하라
시련의 날에 더 사랑하라, 더 귀중히 지키라

내 어깨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떠받들어 올리나니
강성하라, 부흥하라, 나의 조국이어

백두산의 녀장군에 대한 열렬한 칭송, 전인류적인 송가

-시 《백두산의 녀장군》에 대하여-

최준희

오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칭송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전인류적인 사상감정으로 되고 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매혹되어 끓어 오르는 흠모와 존경의 감정을 송가형식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이미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한 송가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 진 로씨야시인인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시 《백두산의 녀장군》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고무추동해 주고있다.

시 《백두산의 녀장군》은 그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있어서나 예술적형상의 높이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가 거둔 특출한 사상에술적성과의 하나는 철학적심오성이 있는 종자를 작품의 핵으로 설정하고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의의 있게 해명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성은 종자의 철학적심오성에 결정적으로 의존된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본질이 담긴 무게 있는 종자를 작품에 심을 때라야 무성한 숲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시 《백두산의 녀장군》에서 작가는 김정숙동지는 어떤분이신가를 시형상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김정숙동지는 조선이 낳은 백두산의 녀장군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항일의 녀장군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지략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백두산은 그 자연적높이와 웅장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숙어머님의 존함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혁명의 성지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님을 한생토록 결사옹위하신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미래의 태양으로 안아 올리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 지게 하신것도 항일혁명전쟁사와 더불어 백두산의 녀장군으로서의 슬기와 지략을 지니게 되신것과 관련된다.

위인의 력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대를 이어 빛나는것이 결코 아니다. 한때 이름을 날리고 시대와 인류앞에 큰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후계자의 역할에 의하여 빛을 뿌릴수도 있고 잃을수도 있는것이다.

시는 김정숙동지는 백두산의 녀장군이시라는 철학적의미가 깊은 사상적알맹이를 설정하였기때문에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그 영원성에 대한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었으며 위인칭송의 송가로서의 높은 경지에 올라 설수 있게 되었다.

시는 자기의 철학적인 종자를 구체적인 시형상속에서 서정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 나가고 있다.

어머님의 탄생일을 맞는 조선, 조선의 백두산과 축복의 흰눈이 내리는 12월의 밀영의 고향집으로 달려 가는 서정적주인공, 그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한 장시는 먼저 한생을 군복 입고 혁명의 만리길을 헤쳐 오신 어머님의 영광에 찬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다.

시에서는 어머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노래함에 있어서 명장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는 《총》에 대한 시적계기를 설정하고 어머님께서 잡으셨던 혁명의 총, 그 총이 어떤 총인가를 해명하는데 시형상의 초점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시인은 시에서 어머님께서 잡으셨던 혁명의 총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생토록 결사옹위하시고 받드시였던 수령결사옹위의 총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넘겨 주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주신 주체조선의 총이라는것을 뜨겁게 감수하고 있다.

시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반생을 더듬어 김정숙어머님께서 억척만반 죽더라도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는 그 한 생각으로 언제나 산병선에 계시었으며 혁명의 사령부의 안녕을 위하여 사격하시고 또 사격하신데 대하여 뜨겁게 노래하였다. 그러면

서 어머님께서 올리신 총성은 《항일대전의 전투적인 음악》이며 《백두산이 탄주하는 붉은기행진곡》이라고 하면서 그 총성은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승리의 결사전가》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에 대한 감정을 중화시켜 시에서는 어머님께서 올리신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시였고 《가가지거의 첫자인양 전쟁의 교향곡》으로 익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는 결전장에 계시는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을 지니게 되시였고 《결사전의 언덕》과 《피어린 세월》을 넘고넘으시여 용감성숙에, 완강성숙에 령장의 지략, 령장의 예지, 령장의 천품을 지니게 되었다고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백두산에서 올린 행진곡에 발 맞추어 전체 조선인민이 눈을 뜨고 원쑤를 쳐부시는 싸움에 떨쳐 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끓어 오르는 흥모의 걱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

한생을 군복 입고
손에 총 잡고
백만 관동군을 맞받아
장장 그 많은 눈서리를 헤쳐 온
그것만으로도 녀장군이시고
한생을 다 바쳐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한
그것으로 혁명의 위대한 선배
조선혁명의 녀장군

흘러 간 역사를 다 뒤져도
전쟁사를 다 뒤져도
인간의리의 역사를 다 뒤져도
이 같은 위인은 찾아 내지 못하리라
아, 백두산의 녀걸 김정숙장군

시 《백두산의 녀장군》에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기에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나며 어머님은 전진하는 혁명대오속에 영생하신다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한생에 그토록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김정숙어머님께 드리는 온 세상 혁명적인민들의 흥모의 마음을 절절히 노래한 다음 진달래를 안고 온 어린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시는 어머님의 숭고한 형상을 비롯한 여러 시적세부들을 통하여 어머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조선의 대오와 함께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생하신

다는 철의 진리를 시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에 넘쳐 노래하면서 백두산 3대장군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

백두산은 **김일성**장군의 산
백두산은 **김정일**장군의 산
백두산은 김정숙장군의 산
산, 산, 3대장군의 산
조선의 백두산

...

백두산을 《**김일성**장군의 산》, 《**김정일**장군의 산》으로뿐아니라 《김정숙장군의 산》으로 시적사색을 심화시켜 들어 간 여기에 이 시가 위인칭송의 시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주되는 비결이 있다.

이처럼 시 《백두산의 녀장군》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이시였으며 조선의 미래를 안아 키우신 혁명의 어머니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그리고 그 영원성을 풍만한 서정과 철학적심오성이 있는 시적형상으로 격조높이 폐찬하였다.

시 《백두산의 녀장군》이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송가적서정의 깊이와 진실성, 장시형식으로서의 독특한 구성과 완결성, 언어형상의 참신성으로 하여 현시기 시문학의 성공작으로 되게 한것이다.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하는 시는 서정성을 기본생명으로 하고 있다. 시에서 서정성을 높이려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체험세계로 노래하여야 한다.

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송가로서 철학적인 시세계에 뿌리를 두고 심원한 사상감정을 작품전반에 줄기차게 일관시키고 있다.

시의 시적구상은 참으로 폭 넓고 웅장하다.

시는 자기가 펼친 폭 넓고 웅장한 시적구상을 《백두산의 녀걸》, 《혁명의 위대한 선배》, 우리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김정숙동지에 대한 흥모와 승배의 사상감정으로 일관시켜 노래함으로써 서정의 깊이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

이 시에 맥맥히 관통되어 흐르는 기본서정은 혁명의 수령을 결사옹위한 혁명의 위대한 선배, 조선의 미래를 안아 령장으로서의 천품을 키워 주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주신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열렬한 폐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어머님은 영생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이 서정에 의하여 어머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영생하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영상이 하나의 사상감정속에 뜨겁게 융합되면서 강한 시적여운을 남긴다.

시에서는 이러한 서정을 1장에서는 총에 대한 시적계기를 깊이 파고 들어 해명하는 능숙한 솜씨로 보여 주고 있다.

시인은 어머니를 칭송함에 있어서 요란한 수식이나 미사려구로 생경하게 론리를 전개하여 노래한것이 아니라 백두산의 녀장군으로서의 군복 입은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께서 잡으셨던 혁명의 총에 시형상의 초점을 집중시켜 섬세한 시적감각으로 서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정화를 충분히 거친데 기초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송축의 감정을 제때에 개방함으로써 장시의 송가적서정이 맥없이 늘어 지거나 추상성에 빠지지 않고 매우 진실하게 음미되도록 하였으며 옳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정서적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시의 1장에서 달성된 이러한 서정화의 기교는 어머니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의 영원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2장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2장에서는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어머니께 올리는 시인자신의 인사에 대한 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머니를 그리며 흠모하는 이 세상 수억만 인민들의 위인존경의 인사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또한 어머니께서 영생하신다는 진리도 순수 정론적으로 분석한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적세부를 통하여 서정화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던 진달래에 대한 시적형상을 매우 뜨겁고 인상적이다.

...

아, 진달래 진달래
조선의 꽃 진달래
어머니 사랑하시던 꽃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가 붉게 폈느냐
어린이들의 얼굴이 붉게 폈느냐
어머니를 그리는 어린이들이
백설이 날리는 창가에서 피운
아, 진달래 진달래

...

이 얼마나 시적감각이 예민하고 특색 있는것인가!

어머니를 그리는 어린이들이 창가에서 피운 조선

의 진달래에 대한 예민한 시적감각을 통하여 시는 김정숙어머니께서 영생하신다는 진리를 훌륭히 서정화하였다.

시의 서정화의 기교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할것은 서정적주인공으로서의 시인이 능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의 개성적인 사상감정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서정의 진실성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준것이다.

시의 서정이 것처럼 뜨겁고 진실하게 노래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시인이 김정숙동지께 매혹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시를 창작한것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시 《백두산의 녀장군》은 구성을 독특하면서도 립체미가 나게 조직하여 장시형식의 완성미를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시는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철학적심오성이 있게 시화할수 있도록 2개의 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1장에서는 첫 부분에서 어머니를 레찬하려는 기본주제적과제를 명백히 제시한 다음 어머니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노래할수 있도록 시적구성을 조직하였으며 2장에서는 어머니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의 영원성을 노래할수 있게 장을 설계함으로써 형상의도가 구성에서 선명하게 안겨오게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 어떤 평면적이고 라렬적으로 조직한것이 아니라 립체적구성미가 살아 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적계기가 뚜렷하게 그리고 그 계기로부터 환기된 사상감정의 심화발전과정이 굴곡있고 깊이 있게 되도록 하였다.

시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시인이 백두산 3대장군을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흠모하며 칭송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된 주체적문예리론과 주체시문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시를 창작하였다는것을 절감하게 한다.

참으로 시 《백두산의 녀장군》이 창작됨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백두산 3대장군을 칭송한 세계송가문학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 주게 되었다.

우리는 시인이 앞으로도 백두산 3대장군을 칭송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고 인류문학의 보물고에 무시할수 없는 흔적을 남기리라것을 굳게 확신한다.

명장과 명산

주광남

명승의 노래

봉이면 봉이마다
서로 다른 신비의 령봉
바위면 바위마다
서로 다른 기암괴석들

황홀경에 절로 터지는 탄성이여
아, 여기선 나 홀로 노래 불러도
천만가지 목소리로 울려 퍼지리

칠보산탐승길

자연의 황홀경에 취하기 앞서
후더운 생각이 가슴 가득 젖어 든다
성스러운 자욱자욱
마음속에 따라 짙게 되는
칠보산의 이 탐승길

심중에 얼마나 깊이 안고 계셨으면
오르시는 걸음걸음
뜨거운 말씀으로 이으셨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렇게도 외우시면서
일이 바쁘시여
한번도 와 보지 못하시였다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칠보산을 인민의 휴양지로 잘 꾸리자고...

아, 수령님 유혼이 그리도 중하시여
전선길 이어 곧바로
이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숭고하신 그 뜻 소중히 간직하라고

바람결도 이 순간 조용히 잤아 들고
계곡의 옥계수는 소리없이 흐르고
절경의 저 기암들 묵묵히 서 있는가

오를수록
우러르는 마음의 눈길앞엔 환히 어리어
생각깊이 걸으시던
그날의 장군님 영상만이 어리어
흙모에 젖어 오르나니

탐승으로만 걸을수 없구나
칠보산의 령길이어
수령님 유혼관철예로 우리를 이끄시여
위대한 장군님 앞서 걸으신 길
수령님을 천세만세 모시는 마음
그 마음을 걸음걸음 키워 주는 이 길

걸어걸어 령봉에 몸은 올랐어도
우러르는 마음은 생각에 젖어 있나니
오, 탐승길은 여기서 끝나도
끝이 없이 끝이 없이 잇대여 주는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하신 세계에로
우리 마음 따라 세우는 칠보산령길이어!

개심사앞에서

누구든 여기선 마음의 문 활짝 열어
속세에서 묻은 때 티 없이 닦으라고
닦아서 깨끗한 맘 안고 살라고
그 이름도 《개심사》

속마음 환히 비쳐 보라고

돌을 갈아 만든 《변경대》는 이리도 맑은가
헤쳐 놓는 마음의 진실을 가늠하러
불상들은 엄숙한 자세 흐트리지 않는가

...깊어 지는 생각이여
나는 일심단결 위대한 나라의 한 공민

개심할것 따로 없는 이 가슴속에
감심만 후더이 차 오르누나

백의민족 조상대대 그토록 꿈 꾸어 온

꿈 꾸면서도 미쳐 그려 못 본 세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주신
아, 장군님 우러르는 그 감심만이...

칠보산의 가을

단풍은 익어
불인가 꽃이던가
가을이라 칠보산 단풍단장은
참말로 명산의 제일경이구나

보아라 저 하늘가
우뚝 치솟은 천불봉은
붉은 단풍 불 붙어
타오르던 봉화런듯 창공에 불빛 뽐는것을

보아라 저 깊은 계곡
옥계수 푸른 물줄기토
울긋불긋 단풍빛 물들어
꽃 수놓은 비단왕인듯 희한한것을

선녀바위 단풍은
휘휘 늘인 날개옷에 보석장식 눈부신데
장수바위 단풍은
갑옷 투구 빛갈 돌귀 그 기상 엄엄해라

어허, 가을은 오곡백과
무르익는 계절이라지만
칠보산의 이 가을엔
아름다움이 한껏 무르익는가

명산중에 제일명산아
절경중에 천하 이 절경
아, 한순간을 눈에 익혀도
한생토록 가슴속에 불붙어 타리

명장과 명산

-한 연구사의 이야기-

귀밀머리 회여 진 오늘까지 나는 연구해 왔습니다
칠보산의 력사와 자연과 거기 깃든 전설들까지
나는 자부했습니다, 이 명산에 대해서는 모를것이
없다고

아니였습니다, 다 아는것이 아니였습니다
학문과 연구사업만으로는 다 알수 없는것이
신비스런

우리 나라 명산의 조화인것 같습니다
꿈 같은 현실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칠보산을 찾아 주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이께서 승선대에 오르시여
환하신 미소로 일망무제한 칠보산의 절경을
부감하실 때였습니다

갈라 진 구름사이로 찬란히 쏟아 저 내리는 해살을
받으며
빛을 뽐는 수천수백의 전설 깃든 봉우리들과
기암괴석들
장군님을 옹위할 우리 인민의 기상인양 엄엄한

자세를 가다듬는 장수봉이여 전선길을 이어 오신
그이께서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길 바라는듯 울창한
수림속에서 울리는 청아한 산새들의 노래소리와
옥계수의 유정한 흐름소리... 저 멀리 해칠보의
깎아 세운듯한 흰 바위절벽엔 축복의 꽃보라인양
은구슬 금구슬로 뿌려 지는 억만파도의 눈부신
물보라...

칠보단장을 한것 같다 하여 칠보산이라 이름한
아름다운 이 명산의 절묘함과 웅장함, 황홀함과
신비로움의 수백수천 특기는 그이를 맞이하여
참으로 천하절승을 펼치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칠보산은 으뜸가는 명산이요!

아, 으뜸 가는 명산!-
장군님의 이 부르심은 이 나라 강산을 으뜸으로
사랑하시는 위인의 뜨거운 조국애의
분출이였습니다
내 나라 자연의 섬세한 미도 예지의 눈빛으로

밝혀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론 그 해빛아래
칠보산은 빛납니다 수천년만에 처음으로 온 세상
명산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받으며
높이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말들 했습니다 명산에서 명인이 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령장이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라면
이 명산이 어떻게 세계의 명산으로 빛 뿌릴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찾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칠보산이 어떻게 세기를 두고 묻혀 있던
으뜸 가는 명산의 제 지위를 찾아 빛내이겠습니까

나는 웨칩니다 심장으로 웨칩니다
명장이 있어야 명산도 있다!
명장의 품에서 명산도 빛난다!고

칠보산이여!

평온한 세월
즐거운 날에
우리 장군님 너를 찾으셨다면
칠보산이여
명승의 네 모습앞에
이토록 가슴 후더워 지라

우리를 압살하려 날뛰는
제국주의 광풍 한몸으로 막으시며
전선길 이어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전선에서 곧바로 찾아 오시여
초소길 오르시듯
이 령길 오르셨더라

허리띠를 조여 매며
신들메를 조여 매며
우리 억척스레
《고난의 행군》길 헤쳐 가던 그때
장군님 말씀하시였다
여기에 인민의 휴양지를 훌륭히 꾸리자고
세계적인 명승지를 건설하자고

아, 조국이 불 타던 전화의 그날
수도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영상
마음속에 다시 뵈오며
위대한 장군님 우리러
뜨거움에 젖던 인민의 진정이여!

마치
우리 가는 강행군길
그 종착점에
그이께선 벌써 서계시는듯

최후승리의 봉우리우에서
인민을 부르시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으뜸 가는 명산이라 하신 그 절승경계가
우리에게 순수한 자연의 모습만이 아니었노라
새로 서는 휴양각들과 도로를
우리는 유람과 휴식의 안식터로만 생각지 않노라

너는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행복 안겨 주시려
자신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사랑으로 빛어 진 보화의 산악
고난속에서도 최후승리를 확신하시는
그이 혁명적락관의 숭고한 세계

그때문에 그때문에
《고난의 행군》길 그 아무리 험해도
우리 힘이 진하는줄 몰랐고
강행군길 열백번 다시 걷는대도
우리 걸음 늦출수 없노니

오 칠보산 칠보산이여!
너는 희망의 봉우리
너는 신념의 메부리
위대한 장군님 우리러
울며 웃으며 감격의 환호성 터칠
력사의 그날을 눈앞에 펼쳐 주며
우리 마음속에 너는 솟아 빛난다
강행군길 헤쳐헤쳐
우리 기어이 올라 서야 할
최후승리의 거룩한 령봉으로!

뜻 강냉이

-한 공훈광부의 이야기-

김홍철

1

나는 해방된 해 여름에 태어났다. 하도 궁벽한 산골이었던지라 나의 어머니는 몸을 풀고서도 두끼인가 세끼인가 쌀밥구경을 하고는 내내 삶은 뜻강냉이로 때식을 에우며 나를 키웠다. 후날에도 어머니는 자주 《넌 <뜻강냉이>를 먹으면서 오금이 뻗단다.》하고 웃으며 외우곤 하였다.

꼭 그래서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수수대밭을 타고 트랙이 좁다 하게 달려 다니던 짜개바지시절부터 머리에 흰 서리를 얹고 중늙은이로 되어 버린 오늘까지도 나는 한여름의 삶은 뜻강냉이를 남달리 좋아한다. 땅에다 갈아서 만든 묵이나 지짐 같은것도 싫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삭채로 삶은것이 제 맛이다. 방금 가마에 찌내서 김이 문문 나는 호담진 이삭을 손에 들고 입김을 후후 불어가면서 채벗겨 내지 못한 수염오리들을 슬슬 뜯어 낼 때의 기분이란 참... 통통하고 따끈한 곡식알들이 입안에 씹힐 때 만장급이를 다 녹여 내는듯 싶게 혀끝에 감겨 돌아 가는 그 달고 찰진 맛을 이길수가 없어 나는 매양 두눈을 스프르 감은채 이삭을 입에 가져가곤 한다. 정말이지 이 세상 천하일미를 차려준대도 나는 산촌의 온갖 향취가 그대로 풍기는 삶은 뜻강냉이맛과 바꾸지 않을것이다...

나라가 해방된지 여러해가 지나도록 우리 고장사람들은 쌀밥을 모르고 살았다. 한가위나 설명절무렵이면 마을장정들이 콩이나 수수, 팥 같은것들을 달구지에 싣고 읍에 나가서 찹쌀과 흰쌀로 바꾸어다가 집집마다 나누어 주곤 했는데 그때에나 한번씩 쌀음식을 구경하곤 했다. 그래서 우리 벽촌 사람들에게는 일년치고 쌀구경 한번 하는것이 펍 희한한 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이웃에 살던 대국이라는 애는 하루세끼 쌀밥을 먹었다. 어쩐 일로 해서인지 그 애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마을어른들이 《딱부리로친》이라고 부르는 그 영악스러운 로파가 자기는 기장밥, 강냉이밥 생기는대로 먹고 지내면서도 손자에게만은 극성을 다해 쌀밥을 떠 주었던것이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맛이 느껴 지는 이름과 달리 그 애는 몸이 약했다. 물독뒤에서 자란것처럼 말뚱하고 호리호리한데다 키도 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다. 어른들이 밭에 나가고 집이 비면 우리는 둘이

함께 트랙에서 놀곤 했는데 토방구석의 절구통에서 길고 무거운 나무공이를 꺼내오는것도 나였고 울바자에 앉은 잠자리를 손 뻗쳐 잡는것도 나였다. 대국은 따스한 햇빛이 내려 비치는 토방돌우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하는 양을 말끄러미 지켜 보기만 할뿐이었다. 도대체 그 애는 그 모든 별찬 장난들에 힘이 당하지 못했고 키가 당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마음이 동해서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모든 놀이는 그 애가 독차지해 버렸다. 꺼내온 절구공이를 이리저리 굴리는것도 그 애였고 불잡은 잠자리의 쑥지에 실을 매어 날리는것도 그애였다. 나는 그 애가 시키는대로 무거운 공이를 꺼내 오거나 도로 가져 가고 잠자리를 날리는 그애의 뒤를 쫓아 가며 손벽이나 쳐 줄따름이었다. 울바자에서 뿔아낸 수수대를 사타구니에 끼고 《말》타기를 할때에도 내가 조금만 앞설라치면 그 애는 껍해서 뒤돌아 달려가곤했다. 그러면 나도 어찌는수 없이 돌아서야 했다. 이러한 관계가 어디서 오는것인지 나로서는 알수가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 애에 대한 편민때문이였는지 아니면 내 천성이 워낙 그 애의 《독선》을 물리칠만큼 되알지고 여무지지 못했던 탓인지. 이따금 제 직성에 맞갖지 않을 때마다 입술을 옥물고 노려 보는 그 애의 작고 세모진 눈을 당할수가 없어 나는 몇 적게 눈길을 돌리고 슬며시 피해 서곤 했다.

동구앞의 개울가에 우중충 그늘을 드리우고 서있는 늙은 돌배나무우듬지에서 매미울음소리가 귀따갑게 물리고 정수리를 지저 대는 삼복의 무더위에 비탈밭의 강냉이잎사귀들이 배배 탈리우던 어느 여름날 《딱부리로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입에 올리는 《심장마비》라는 말뜻을 그때 나로서는 알수가 없었다.

마을어른들이 모여 와서 로파의 장례를 치른 뒤 대국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없혀 살다가 리사무장아저씨와 함께 온, 어딘가 도시에서 왔다는 낯선 《아지미》를 따라 떠나 가 버렸다.

그날 동구길에서 마을을 뒤돌아 보던 그 애는 갑자기 《아지미》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 오더니 어머니의 치마꼬리에 붙어 선 나에게 삶은 뜻강냉이 한이삭을 안겨 주며 《잘 있어.》하고 어른처럼 한마디 하고 다시 달려 갔다. 그리고는 두번 다시 돌

아 보지 않고 낫선 너인과 함께 멀리 사라져 갔다.

아직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는 큼직한 강냉이가 이삭을 내려다 보느라니 방금전에 눈물이 반짝이던 대국이의 작고 세모진 눈이 밝혀 와서 어린 마음에도 기분이 울적해졌다. 할머니의 산소앞에서도 눈물 한방울 안보여서 어른들의 청원을 샀던 애가 나와 헤어지면서는... 울었던 것이다...

달포후에 읍에 나갔던 마을사람이 대국이가 애육원이라는델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뒤로 더는 그에 이야기를 들을수가 없었다. 그것이 조국해방전쟁이 일기 바로 전해의 일이었다.

2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에 우리 고장에는 천지개벽이라고나 해야 할 들썩한 일이 생겼다. 앞뒤에 막아 선 거악한 산밭들밑에 보화가 깔려 있다는것이 알려 저서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했던것이다. 이 골 저 골에서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가 울리고 맑은 물이 흘러 내리는 개울기슭과 평퍼짐한 산자드락 공지들에 새 집들이 줄 지어 늘어 앉았다. 떨기나무와 덩굴만이 우거졌던 골바닥을 따라 기차길이 들어 오고 각지에서 모여 온 개발자들이 골안을 메우며 오갔다.

하루아침엔 광산마을로 변해 버리기는 했어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던 옛 타성을 쉬이 버릴수가 없는듯 집오래의 터밭들과 골짜기의 둔덕들에 널린 폐기밭들이 아까와서 툼툼이 심고 가꾸었다.

우리 집에서 산기슭의 터밭에 여전히 강냉이를 심었다. 그래서 나는 그토록 좋아 하는 풋강냉이를 해마다 먹을수 있었다.

여름이 되여 첫물강냉이가 상우에 오를 때면 나의 뇌리에는 어린 날에 단짠내기로 사귀었던 소꿉친구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한삽 또 한삽 나이가 들면서 많은것이 기억에 삭막해져갔으나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그애가 안겨 주던 큼직한 강냉이이삭의 따스한 온기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할머니의 손에서 쌀밥만을 먹으며 지낸 탓인지 그 애는 삶은 풋강냉이를 썩 달가와 하지 않았다. 아니, 애당초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와있는 며칠동안에도 그 애는 끼마다 상에 오르는 강냉이를 물릴줄도 모르고 맛나게 먹어대는 나를 놀랍게 바라보다가 찬물만 한모금 입에 대고는 새초롬히 물러갔곤했다.

그날의 강냉이이삭도 아침에 삶아준것을 먹지 않기에 가마에 도로 덥혀 두었다가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억지로 쥐여 준것이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나에게 주어 버리고 떠나 갔던것이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광산에서 운영하

던 야간기술학교 대신 광업전문학교가 설립되였다. 공부에서 손 꼽히게 뛰여 나지는 못해도 중간줄에서 떨어 지지도 않던 나는 어렵지 않게 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세해동안의 학업생활, 졸업후에 다시 세해동안의 현장생활, 그리고는 로동과에 조동되여 부원생활... 나의 사회생활은 그렇게 흘러갔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나이에 설계실에서 사도공으로 일하던 아련한 처녀를 안해로 맞아 한해후에는 달덩이 같은 딸도 보았다.

안해가 병원에서 해산했을 때는 마침 첫물강냉이가 나는 철이여서 나는 풋강냉이를 삶아 가지고 면회를 가려고 했다. 《풋강냉이젓》으로 나를 키웠다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그에게 《맛》보이자는 낭만적인 생각에 서었다.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서라, 며늘아기 생이발 빠질라. 산모이발이라는게 물렁팔죽에 술가락 놀듯 하느니라.》

그리고는 나직이 한숨을 짓고 말했다.

《내가 몸을 풀었을적엔 판 도리가 없어 강냉이를 썰었다만 지금이야 어째서...》

어머니는 밤 새워 손바느질로 누빈(아기의 첫옷은 꼭 자기 손으로 짓는다고 언제부터 별려 왔었다.) 옷가지에다 기름을 친것처럼 자르르한 쌀밥과 하다분한 미역국을 식을세라 겹짜 들고 병원으로 갔다. 나와 달리 딸애는 그렇게 첫날부터 고스란히 《쌀젓》을 먹으며 자랐다...

하지만 지금도 그날이 잊혀 지지 않는것은 다른 일때문이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떠나 보내고 나서 빈 방에 홀로 앉아 나도 인제는 아버지로 되였는가 하고 싱숭생숭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여니 령장 없는 군복차림의 낯선 청년이 자글자글 끓는 땡벌아래 서있었다.

작달막하면서도 다부진 체구에서 록록치 않은 기품이 엿보이는 청년은 어딘가 진정되지 않은 눈길로 나를 훑어 지게 여겨 보며 물었다.

《로동과 최상근동무지요?》

과장이 출장을 떠나면서 기업소의 로력문제를 나에게 일임했던지라 아마 직장배치때문에 우리 집에 까지 찾아 온 모임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심상히 되물었다.

《그렇소. 왜 그러오?》

내 반문에는 응대를 않고 젊은이는 한결 풀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 보며 제잡담 군화를 벗고 토방마루에 올라 섰다.

《나 대국이야.》

느닷없이 뇌이는 그의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가 입에 올린 이름이 얼른 안겨 오지 않았다. 인생추억의 맨 첫 갈피에 끼워 있는 그 이름이 귀에 설어서가 아니었다. 다 자라서 《아이아버지》로

된 그때까지도 소시적의 따뜻한 회역을 불러 내며 때없이 떠 오르곤 하는 유정한 그 이름을 잊어서는 더욱 아니었다. 뭐랄까. 한순간에 세월의 광극단앞에 서보는 격세지감에 그만 아연해졌다고 할까. 우리의 작별과 상봉사이에는 실로 스무해가 넘는 긴 세월이 심연처럼 드리워 있었으니 말이다.

꿈속에도 비껴 들곤 하던 못 잊을 이름을 남의 것처럼 지니고 불쑥 나타난 낮 선 젊은이앞에 입을 형 벌린채 덩돌하게 굳어 저 있는데 대국이는 웃음 띤 눈길로 마주 보며 《왜 그렇게 쳐다던 보는거야. 얼음판에 넘어진 소처럼.》 하고는 제 먼저 내 두손을 힘껏 움켜 쥐었다. 그제야 나는 솟불처럼 타고 있는 그 작고 세모진 눈에서 소꿉친구의 아득한 옛모상을 간신히 알아 보며 그리고 집게처럼 여무진 손아귀를 타고 마쳐 오는 뜨거운 열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안겨 주었던 풋강냉이의 따스한 온기를 생생하게 감촉하며 그를 와락 부둥켜 안은채 《대국아, 너 정말 대국이가 틀림없구나.》 하고 맥락이 닿지 않는 말마디를 뇌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소시적에 한뜨락에서 사귀어 가지고 소식도 모른채 헤어져 있다가 내가 첫 딸을 본 날에 꿈같이 다시 만났던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번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 왔다.

처음 한동안 나는 대국에게 쉬이 익숙될수가 없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소시적의 모습과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것은 아니지만 대국이야말로 전연 딴 사람처럼 달라 졌던것이다. 키는 여전히 내 어깨에나 닿을듯 싶게 작았지만 파아란 피줄이 연연히 껴 비쳐 보이던 희맑은 얼굴과 그 얼굴을 간신히 떠 받들고 있던 가는 목은 간곳없고 만만치 않게 불쑥 내밀린 이마아래 둥그런한 얼굴이 가을밤알처럼 빛났고 좀 밟을사한 목은 산 하나를 통채로 올려 놓아도 끄떡 앓을상 싶게 실하고 든든했다. 언젠가 광산마을 아래쪽에 있는 도래굴이에 함께 목욕을 하러 나갔을 때 보니 무죄함마로 두드려 빛은것처럼 단단하고 구리빛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체격에서는 물독뒤에서 자란것처럼 말뚱하고 호리호리하던 어릴적모습을 흔적도 찾아 볼수 없었다.

얼굴이나 몸집뿐이 아니었다. 제 직성에 맞갖지 않을 때마다 흘기듯 노려 보던 작은 눈은 저으기 모가 죽어서 한결 깊고 부드럽게 빛났고 실낱처럼 가는데다 항상 꼬리를 채 여물구지 못하고 기진한듯 끊어 지던 목소리도 잘 울리는 나팔소리처럼 듣기 좋게 끊어 졌다.

더구나 놀라운것은 아이적에 눈도 돌리지 않던 삶은 강냉이를 나 못지 않게 즐겨하는것이였다.

《군데에선 맛 없는게 없었어. 식성도 달라 지더라니까.》

어느날 집에 들러서 여느 음식들은 제쳐 놓고 삶

은 풋강냉이만 연방 집어 드는 자기를 신기하게 지켜 보는 나에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만나서 새로 사귀나 다름이 없었다. 그도 나도 서로가 너무도 달라 저 가지고 만났던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아득히 흘렀어도 나에게 마지막으로 안겨 주었던 풋강냉이이삭의 따스한 온기만은 그 역시 잊혀 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난 할머니의 묘앞에 술을 부으면서도 울지 않았어. 할머니 자신이 늘쌍 외웠거든. 사내자식은 하늘이 무너져도 눈물을 보여선 안된다고 말이야.》

그렇지만 상근이 자네하구 헤어질 땐 어린 마음에 어쩔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 자네야말로 이세상에 나하구 제일 가깝게 남은 마지막사람이었으니까.》

어느날 내가 풋강냉이를 무드기 삶아 가지고 함속에 찾아 가서 둘이 함께 실컷 먹고 났을 때 대국이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누운채 천정을 올려다 보며 그렇게 말했다.

《살발은 천척이 있는것도 아닌데 여긴 어째서 도로 왔나? 도시로 갈수도 있었을텐데.》

내가 묻자 그는 시무룩이 웃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온게 아닐세. 여기로 배치하더군. 말하자면 당에서 병사 리대국에게 내린 새 <명령>을 수행하러 왔지.》

대국이를 만나 본 어머니는 해가 서쪽에서 뜬것만치나 놀라와 했다.

《사람이 아주 탄탄으로 룡이 돼서 돌아 왔구나. 강보에 싸여서 젖동냥을 다닐 땐 세사구실을 할것 같지 않게 피덩이였는데.》

그리고는 서겁게 한숨을 지으며 그때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터놓았다.

《그 사람은 본시 이 고장 태생이 아니다. 해방되기 두해전에 어딘가 도회지에서 이사해 오면서 <딱부리로친>이 짜안구 왔었지.

그 엘 살리느라 로친이 심봉사만치나 고생을 했어. 세살을 넘길 때까지 온 동리 젖을 다 얻어 먹었으니까. 나한테도 와서 <풋강냉이젖>을 많이 먹었지. 내 아이를 내려 놓고 그 애를 안아 들 땐 두살이나 더 먹었다는 애가 가랑잎처럼 가분한게 어찌도가슴이 아리던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환각에 빠져 들었다. 함께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삼삼히 눈에 보여 와서 솟제 한태줄을 이은 친동기간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런 느낌은 대국이를 만날 때마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것으로 가슴에 번져왔다. 나는 그에게서 남이 아니라 바로 형제사이에서만 느낄수 있는 그런 정을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것이였다.

3

그해의 첫눈이 꽃잎처럼 흩날리던 초겨울 어느날, 대국이는 같은 갱에서 권양기운전공으로 일하는 처녀와 결혼을 했다. 씻은 팔알처럼 깨끗하고 이쁘장스러운 얼굴에 축축히 내뿜친 속눈썹과 웃을 때마다 한쪽 볼에 살짝 패이는 볼우물이 꽤 인상적인 그 처녀 역시 조국해방전쟁때 일가식술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고아였다. 아마 그렇게 서로 엇비슷한 처지가 가져다 준 연분으로 두사람사이가 맺어 진 것 같았다.

마침 우리 이웃에 살던 로인내외가 원산에 사는 큰아들한테로 옮겨 가고 집이 비어 있어서 나는 대국에게 그 집으로 오가고 권했다. 그는 두말없이 응해 나셨다.

한해가 지나 그들의 가정에 떡돌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또 한해가 지나 우리 집에 둘째딸이 태어났다. 처마를 이어 대고 같은 마당을 쓰면서 사는터에 몇해후에는 직장마저 같아 저서 그와 나는 매일 얼굴을 마주 보며 지내게 되었다. 막장에서 손탁 드센 소대장, 중대장으로 이름 떨치던 그가 새로 개발된 화산갱의 갱장으로 소환되던 무렵에 광산금속대학을 검정시험으로 졸업한 나도 그갱의 책임기사로 조동되었던것이다.

그 시절의 리대국갱장이라면 《명령갱장》으로 광산사람들속에 알려 져 있었다. 그는 사업에 들어서서는 특히 계획수행을 놓고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설줄을 몰랐고 아래사람들이 작업지령을 털끝만 치라도 에누리하거나 흥정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이건 군대로 말하면 명령이란 말이요.》 하고 버릇처럼 외우며 무조건 그대로 집행시키고야 말았다.

내가 현장기사생활 두해만에 입당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문건을 내놓으며 《입당보증을 서주지 않으려오?》 하고 묻자(그가 나보다 두살터울로 윗벌이라는것을 안 때부터 나는 반말투를 삼가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당원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기라도 하듯 한동안 말없이 멀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더니 나직이 마른 기침을 짓고 나서 입을 열었다.

《당원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닐세. 당에서 바라는 일에 제 몸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당원이지. 난 자네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겠네.》

그리고는 입당보증인란에 자기 이름을 정히 써넣었다.

당원증을 받아 안고 온 날 저녁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의 뒤를 따라 방에 들어서던 나는 무춤 굳어 졌다. 첫물강냉이가 나기에는 아직 이른 때였는데 방 한복판에 퍼 놓은 두리반우에서 큼직한 법랑소랭이에 담긴 풋강냉이이삭들이 더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얼퍼름해서 상앞에 앉는데 말쑥한 사기그릇에 풋나물김치를 떠 들고 들어 온 대국의 안해가 처녀때처럼 한쪽 볼에 귀인성스러운 볼우물을 파며 알려 주었다.

《풋강냉이를 좋아 하는 현옥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이가 우정 온 밭의 이삭을 모두 쥐여 보며 플라판거니까 많이 드세요.》

대국은 먼구한듯 안해에게 눈을 흘기며 맨 우에 놓여 있는 그중 큰 이삭을 들어 내 손에 쥐여 주었다.

《어서 들게. 알이 채 들지 않아서 제 맛이 안날거야. 곡식이라는게 아무래도 제 철은 속일수가 없는 모양이지.》

그리고 보니 통통하고 호담한 겉모양과 달리 이삭들은 모두 《물통이》들이었다. 그렇지만 온통 단맛이 입안을 채우던 그날 저녁의 류다른 첫물강냉이 맛은 오늘까지도 잊혀 지지 않는다.

한알한알 음미하듯 씹고 있는 나를 미소 어린 눈길로 지켜 보던 대국은 자기도 한이삭 집어들며 누긋한 어조로 뇌였다.

《오늘부터 우리 더 가까워진 셈일세.》

물론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결코 무시하는 들어 넘길수 없는 말이였다. 그리고 왜선지 그 순간에 어머니의 젖을 함께 물고 있는 우리 둘의 모습이 또다시 눈에 삼삼히 밝혀와서 마음이 푸근해 졌다....

입당을 보증하면서 나에게 한 대국의 말은 단숨히 선험자연한 《훈계》가 아니였다. 그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모든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한번은 수직갱의 안내력에 변형이 생기면서 광석을 만재한 승강기가 두시간동안이나 꼼짝없이 멎어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는 삶과 죽음이 결단날수 있는 그 위험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밀어제끼고 자기가 직접 허공에 매여 달린채 한시간나마 아슬아슬하게 신고를 해서 끝내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일이 끝났을 때 《목숨이 돌ियो?》 하고 내가 성이 나서 야단을 하자 그는 상처입은 손에 형질을 둘러 감으며 혼연히 대꾸했다.

《돌이 아니어서 안타깝네. 하나밖에 없는걸 그저 살다가 땅에 묻어 버리기는 아깝구, 하다 못해 이런 작은 일이라도 바쳐 지면 다행 아닌가.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나는 가슴이 무죽해서 눈길을 들어 마주 보았으나 대국은 벌써 결사람에게 다른 과업을 주고 있었다.

4

우리 화산갱은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기업소는 물론 성적으로도 언제나 앞선 순위를 차지하곤 했다. 일군들은 화산갱을 기업소의 자랑으로 내세웠

고 쟁로동자들은 온 광산 사람들앞에서 보란듯이 가슴을 내밀고 다녔다.

하지만 대국쟁장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늘 불만족을 안고 일하였다. 일군들의 찬사를 듣고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하고 혼자 소리를 뇌이며 도리머리를 저었고 도와 중앙에서 찾아 온 기자들을 만나는 일도 나에게 밀거나 적당한 이유를 대고 자리를 피해서 막장으로 들어가곤 했다.

나쁜 자기자신에 대한 그의 불만족이 정도에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이룩한 성과에 자부를 가지는 것은 앞으로의 분발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대국쟁장의 가슴 밑바닥에 맥맥히 흐르는 깊은 속마음을 너무도 모른 천박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 아버지수령님을 너무도 천만뜻밖에 잃은 비분이 그날로부터 달포가 지난 무렵이었다.

터발에는 여느해와 다름없이 꽃강냉이가 여물었다. 첫물강냉이를 따던 날 나는 대국쟁장을 집으로 청했다, 전례대로 맛이나 별식으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누구라 없이 말수더구나 적어 진 그 나날에 마주 앉아 본지도 오랜 터에 가슴속에 무겁게 얹혀 있는 속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서였다.

상앞에 앉은 대국쟁장은 내가 원하는 강냉이이삭을 받아 들고 이윽도록 내려다 보다가 조심히 한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오래도록 입을 놀리던 그는 씹던것을 간신히 넘기고 나서 찬물그릇을 들어 한모금 마시더니 더는 입에 델념을 얹고 손에 든 강냉이이삭을 멀꺼리미 굽어 보기만 했다.

《왜, 입맛이 없으시오?》

내가 묻자 그는 뭉그러 쥔 주먹을 입가에 대고 군기침을 갖으며 뜻을 알수 없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맛 없어서가 아닐세.》

그는 종시 강냉이이삭을 내려 놓고 물려 앉아 담배통을 끄당겼다. 한대 붙여 물고 그물그물 연기를 피워 올리는 그의 주름이 얹히기 시작한 얼굴에 추연한 빛이 어리었다.

《자네도 알지만 소시적에야 내 언제 강냉이를 입에다 댔었나. 애육원에 가거나 군대에 나가서도 여전했네. 친구들과 전우들은 내가 <특이체질>이어서 그런다고들 했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였지. ...

공화국이 창건된 해니까 내가 다섯살때로군. 그날 우리 마을이 얼마나 들썩했는지 모르네. 모두 공화국기를 들고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면서 늙은 돌배나무밑으로들 모여 들었지. 모여서는 라디오를 듣구 손을 높이 흔들며 만세들을 부르구

그리고는 낫양푼에 물바가지를 얹어놓구 두드려 대면서 춤들을 추었지. 조무래기들은 빙 둘러서서 구경들을 했구.

그때 어떤 애가 내 곁에 서서 손에 든 삶은 강냉이를 맛나게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나도 먹어보고싶어서 못견디게 감질이 났었네. 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감질을 느껴왔지만 그런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구 할머니가 아예 입에도 못대게 했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 왔을 때 나는 강냉이를 삶아 내라구 막무가내로 투정질을 했네. 나를 얼리다 못해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손찌검을 하더군. 그러더니 방바닥에 벌렁 나가 누워 발버둥을 치며 울어 대는 나를 들어 껴 안구서 나직나직 흐느끼질 않겠나. <대국아, 이 할미를 욕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으면... 왜 너한테 강냉이를 삶아 주지 않겠니.>하면서 말이네.

그날 할머니는 나에게 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지. 어째서 나에게 강냉이를 못 먹게 했는지 죄다 말해 주었네.

내가 태어났을 때 동리에 기근이 들어서 온 식솔이 사흘을 굶었다더군. 여위다 못해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산모와 빈 젖을 빨며 밤낮으로 울어 보채는 어린것의 정상을 차마 볼수가 없어 아버지는 소작 부치는 밭에서 꽃강냉이 몇이삭만 따게 해 달라고 지주놈에게 사정을 했다네. 인정에 들어서는 제애비도 몰라 보는 짐승 같은 그놈은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통강냉이알 같은 버덩이가 들슴들슴해서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게 징그러운 놈이었다더군.) 단마디로 잘라뺐다는거네. 그대로 있다가는 산모도 아이도 다 죽일판이라 아버지는 밭에서 강냉이 몇이삭을 따다가 삶았다네. 온 식구가 오랜만에 상에 마주 앉아 눈물과 함께 강냉이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주놈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 서며 다짜고짜 상을 뒤엎고 구들에 널린 강냉이이삭들을 발로 마구 밟아 짓몽개 버렸다는군. 아버지는 의분을 누를길 없어 놈의 먹살을 틀어 잡구 토방돌우에 메여꽃았다네. 칼 찬 왜놈순사에게 끌려 갔다가 온통 피투성이로 인사불성이 되여 돌아온 아버지는 내 이름만 겨우 지어놓구서 이틀만에 절명했구 모진 굶주림에 산후탈까지 겹쳐서 운신을 못하던 어머니마저 며칠 못가서 세상을 하직했다네.

오막살이집마저 지주놈에게 빼앗기운 할머니는 나를 싸안구서 해변도시로 나와서 해마다니다가 각박한 인간세상을 피해서 더 깊은 산골을 찾아 여기로 왔다네. 그때 젖동냥을 다니다 못해 배고파 우는 내 입에다 삶은 강냉이를 씹어서 넣어준 일이 있었는데 금시 새파랗게 질리면서 눈자위가 돌아가서 다 죽은걸 겨우 살려냈더군. 그때부터 할머니는 손주에게만은 한당대 강냉이를 안먹인다구 독심을 사려 먹었다는거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 나서 서럽게 울었네.

할머니는 웃고름을 들어 눈굽을 훔치고 나서 꽃한 어조로 일렀네.

<눈물을 닦아라. 사내자식은 하늘이 무너져도 눈물을 보여선 안되지니라.

대국아, 예로부터 백성은 뼈를 갈아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만 오늘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는 나라를 세워 주셨다. 그러니 백성은 뼈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이 고마운 세상을 받들고 지켜야 하느니라. 알겠나?>

저녁에 할머니는 큼직한 강냉이 두이삭을 밥그릇 위에 올려 놓아 주었네. 손주의 투정을 받고 보니 그리도 굳게 사려 먹었던 독심이 물러진 모양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 강냉이를 입에 대지 않았네. 지금껏 그리도 감질을 자아 내던 먹음직스러운 강냉이 이삭이건만 선뜻 손이 가질 않더군. 딱히 짝어 이를 할수가 없는 그 소원한 감정은 자라면서 점점 더 분명하고 뚜렷한 형태로 가슴속에 자리잡아 갔네. 어쩌다 누가 삶은 풋강냉이를 권할 때면 그것때문에 비명에 목숨을 앓기운 아버지, 어머니생각이 가슴을 치고 나 또한 세상을 등질번 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어쩔수 없는 전율을 느끼곤했네.

그런데 그리도 소원감을 자아내던 풋강냉이가 달리 보이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군대때였지. 하루는 기동임무를 받고 길을 가다가 산자드락의 비탈밭어구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알을 지나게 되었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비문을 읽어 보니 바로 그 자리에서 수령님께서 농장일꾼들에게 농사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나서 구운 풋강냉이 한이삭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시고 다시 현지지도의 먼 길을 이어 가시였다는거데. 조국땅 어디서나 흔히 볼수있는 산촌의 풍경을 둘러 보느라니 이름 못할 걱정으로 가슴이 숙연히 젖어 들더군.

그날 오후에 사관장이 중대부업밭에서 판 풋강냉이를 간식으로 삶아 가지고 진지굴설공사장에 나왔네. 나는 사관장이 다심하게 마음을 써서 따로 내놓아 주는 삶은 닭알 두알을 내려 놓고 강냉이이삭을 집어 들었네.

자그마한 모닥불가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풋강냉이 한이삭으로 식사를 대신하시고 또다시 로고의 길을 떠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기록하신 영상이 우렁치 않게 와서 따끈한 강냉이이삭이 더없이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 졌고 매끈하고 따스한 닭알을 손에 들고 있기조차 못내 죄스러웠네. 난생 처음 입에 대보는 통통한 강냉이알을 한알 뜯어 내어 씹으면서 그 달고 찰진 맛을 감득하느라니 하많은 생각

이 밀물처럼 뇌리에 차들겠지. 이런 풋강냉이 몇이 삭때문에 생떼같은 목숨을 빼앗긴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나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고마운 세상을 뼈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받들고 지켜야 한 다던 할머니의 말도 떠오르구, 비탈밭어구에서 띄여 본 표식비의 글밭들도 눈앞에 보여오구...

이렇게 돼서 나는 풋강냉이와 한생의 인연을 맺었네. 그런데...》

대국쟁장은 또다시 주먹을 입가에 대고 마른 기침을 깃더니 갈리고 잦아든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을 잃구 이렇게 풋강냉이를 입에 대려니... 목이 열리질 않는구만. 그이께서 바쳐오신 로고의 덕으로 행복을 누리면서도 보답을 못한게 죄스러워서...》

그 순간에 나의 귀전에는 언젠가 대국쟁장이 20년동안 갱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 온 공로로 로력훈장을 수여받은 날 나와 마주앉아서 뇌이던 말마디가 되살아 올랐다.

《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서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나같은 혈혈단신이 이 세상에 숨이나 불어 났겠나. 설사 살아남아서 일을 많이 했단들 기껏해서 연명이나 하구 가산이나 모았겠지.

그런데 웅당 할 일을 하고서도 이렇게 값높은 수훈을 받아안으니. 참 이 고마움에 어떻게 해야 보답한단말인가....》

이렇게 말하며 훈장증서를 쓸어 만지는 그의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펴고 있었다.

그런데 강냉이 한이삭을 다 축내지 못한 이 순간에는 그 눈물이 주름 얹힌 눈가에 축축히 젖어번지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대국쟁장이 걸어 온 인생길이 크게 남달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 역시 다름없고.》

하지만 범상하기조차 한 그 인생의 의미를 체감하는데서는 우리 두사람이 같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 느끼게 되었다....

5

나는 지금도 주체85(1996)년 여름의 일들을 잊을수가 없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시련도 많고 고초도 많았던 해였다.

그때 우리 갯에서는 불합리한 운반계통문제를 풀기 위해 6호조구와 사갱을 새로 굴진하고 있었는데 날로 긴장해 지는 전기사정과 폭약, 카바이드보장문제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게다가 종업원들의 출근률도 시원치 못했다. 어느 가정에서나 여의치 못한 식량사정으로 날마다 뾰박한 사연들이 엮여지던 때였다.

대국쟁장은 여전히 《명령쟁장》의 그 본새대로 저이기 거칠고 깨끗한 표정으로 날마다 소대들의 계획수행을 따지며 다블러 냈지만 나는 좀처럼 자기 제도에 올라 서지 못하는 생산실적앞에 암울한 생각에서 벗어 날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런 사흘째나 멎을줄을 모르고 퍼부어 내리는 비속에 퇴근해 온 나는 그만 아연해 졌다. 한창 알이 들기 시작하던 터발의 강냉이들이 모두 없어 지고 말았던것이다. 아니, 발이 통채로 없어 졌다. 산비탈에서 밀려 내린 사태에 묻혀 내렸던것이다.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서 쓰고 나갔던 우산마저 내던지고 온 저녁 쏟아 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아가며 온통 돌과 나무뿌리투성이로 되어 버린 발아닌 《발》을 정신없이 헤매 다녔다. 광산병원 외과의사인 둘째 딸과 함께 조출하게 지내면서(안해는 덕천에 시집 간 큰딸의 해산방조를 위해서 여러날전에 떠나갔었다.) 봄에 뜰어다 말리워 두었던 산나물에 다 안해가 남겨 두고 간 얼마 안되는 강냉이가루를 조금씩 अच्छ서 한끼한끼 때식을 이어 가는 터에 일루의 희망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을 위안해 주던 터발의 강냉이들을 줄지에 잃고나니 마치 벼랑끝에라도 선것처럼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떡심이 풀려 맥을 놓고 집에 들어 오니 갑자기 오한이 나고 열이 오르면서 음식을 입에 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튿날 나는 출근하지 못했다. 신열로 몸도 여의치 못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의 공허와 허탈을 이겨 낼 길이 없어서였다.

저녁에 집에 들린 대국쟁장이 자리에 누운 나를 근심이 비낀 눈길로 이윽히 내려다 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어떤가. 열이 내렸더니 래일은 일어 날만 한가?》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일어 나질 못하겠수다. 기운이 있어야지요.》

대국쟁장은 숙였던 옷몸을 바로 펴며 방심한 어조로 답답히 뇌였다.

《말할 기운은 있군 그래. 사람이 약해 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죽는다고 했네. 일어 나야 하네.》

나는 속에서 울컥 치받치는 반발심 비슷한것을 느끼며 고집 쓰듯 뇌였다.

《그 무슨 죽음에 대한 소린 하지도 마시우. 그런 생각 해본적은 꿈에도 없수다. 그렇지만... 지쳤수다. 일어 나지 못하겠수다.》

대국쟁장은 뜻밖인듯 모가 살아 난 눈으로 나를 굽어 보다가 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정 못알어나겠으면 나라에서 자네한테 준걸 모두 내놓게. 공민증, 기사자격증 그리구 당표... 지금처럼 어려운 때 누워 있는 공민, 누워 있는 기사, 누워 있는 당원이 나라에 무슨 소용인가. 숨이 불어

가지고도 나라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죽은 사람이 아니고 뭐가 말일세. 나로 말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친구로 상종하기가 부끄럽네.》

그리고는 킁킁하게 거칠어 진 얼굴로 훌쩍 자리를 일어 방을 나갔다.

사람이 늙으면 아이 된다고들 한다. 말년으로 가면서 기력이 쇠잔해 질수록 소시적의 기질과 습관들이 되살아 난다는 소리일것이다.

그즈음 나는 대국쟁장에게서 드문히 그런 느낌을 받곤 했다. 다소 과민해 지고 조급해 지고 일이 뜻대로 안될 때마다 작은 눈을 들어 마뜩잖게 상대를 흘겨 보고 늙어서라기보다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겹쳐 드는 착잡한 난문제들과 아픈찬 생산과제를 그러안고 씨름질하느라 그만 지쳐버린 탓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그날 저녁 분기를 터뜨리며 방을 나가는 대국쟁장의 뒤모습에서 나는 《말》타기를 하다가 께해서 뒤돌아 달려 가던 그의 어릴적 모습을 너무도 방불히 보았다.

나는 얼얼해 나는 가슴을 쓸어 만지며 그가 던지듯 남기고 간 말마디들에 대답할 말을 찾았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다. 사정이야 어떠하든 내가 공민으로서, 기사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누워 있는것은 사실이였다....

이튿날 아침 뜻밖에도 삶은 풋강냉이가 상에 올랐다.

딸애가 중환에 든 병자를 어루듯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알려 주었다.

《창일동무의 아버님이 일찍 출근하던 길에 들려서 두고 가셨어요. 이걸 잡수시면 입맛이 돌아 설거라구 하면서.》

봄에 두 집 자식들의 혼약을 맺은 뒤로 딸애는 《쟁장아저씨》라는 말대신에 그렇게 부르곤 했다.

나는 딸애가 쥐여 주는 강냉이이삭을 내려다 보았다. 당원증을 받은 날 대국쟁장네 집에서 먹은것처럼 물통이였다. 그날 쟁장의 안해가 《...저이가 우정 온발의 이삭을 모두 쥐여 보며 골라 판거니까 많이 드세요.》 하던 말이 생생하게 귀전에 되살아 났다.

처음 입에 대보는 음식처럼 서름서름 한입 베여 무니 이름 못할 정회로 가슴이 찌르르 젖어 들었다. 한생토록 삶은 풋강냉이를 즐겨 입에 익혀왔건만 강냉이가루 몇줌을 남겨 놓고 절량의 화난이 눈섭 끝에 닥친 그 순간에 그리도 애바르게 기대를 걸었던 터발의 강냉이를 모두 잃고 락심천만해 있다가 입에 대보는 그 맛은 참으로 새삼스러운것이였다.

창밖에서 비소리가 들렸다. 새벽의 미명속에 저 비속을 누비며 대국쟁장은 나를 위해 온발의 강냉이 이삭을 모두 손더듬했을것이였다.

한이삭 또 한이삭 쥐여 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알수가 없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 보았는지, 뼈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이 고마운 세상을 받들고 지켜야 한다면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는지, 아니면 군대때 띄어 본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표식비의 글발을 생각했는지... 그런중에도 분명한것은 그가 나를 못내 원망했을것이라는것이였다...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가다듬으며 갯에 나가니 대국경장이 반가운 빛을 애써 감추며 태연히 맞아 주었다.

《어제는 거칠게 굴어서 안됐네. 약한 소리를 하는 자네를 보니 속이 타서 그랬네.》

그 순간에 별스레 더 늙고 수척해 진 그 얼굴을 대하느라니 아침상에 올랐던 꽃강냉이이삭들이 눈에 밟혀 오고 가슴이 뭉클 젖어 들어서 눈길을 바로 들수가 없었다.

밖에서 불어 치는 비바람에 창문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자리를 일어 창문을 닫던 대국경장은 그대로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되었다.

《참, 무슨 놈의 비가 이리도 모질게 내리는가.

장군님께서 지금쯤 저 비를 다 맞으시며 전선길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창문을 꼼꼼히 여며 닫고 자리로 돌아 온 그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하듯이 담담히 되었다.

《우리 일을 더 많이 하자구.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따라 선줄을 아시게 되면 험한 길을 헤쳐 가시는 장군님의 걸음이 한결 가벼우실것 아닌가.》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점차 설피여 가는 비발사이로 멀리 쪽빛 하늘의 한귀퉁이가 패창하게 들리우고 있었다...

작업지령이 끝난 뒤 우리는 함께 갯에 들어 갔다. 두줄기 레루가 뻗어 간 굴길로 나란히 걸으면서 그는 전에 볼수 없게 흥분 어조로 말했다.

《현옥이 어머니가 돌아 오면 인차 애들의 혼례를 치르세. 뭐가 있어야 멋진가. 그저 소박하게 차리면 되는거지.

내 그날은 꽃강냉이를 삶아서 애들의 상에 올려 놓아 줄테네. 먼 후날에 가서도 오늘을 잊지 말라고 말이네.》

6호조구 굴진막장어구에 이르자 그는 나를 돌아 보며 일렀다.

《사갱에 내려가주게. 조구에 올라가보구 곧 따라 갈테니.》

그리고는 빛의 덩어리처럼 동그랗게 모아 진 안전등의 초점으로 굴벽의 여기저기를 비쳐 보며 어지간히 구배가 심한 조구로 툭아 올랐다.

그때 그를 만류했어야 했다. 아니 차라리 대국경장을 사갱에 내려 보내고 내가 조구에 올라 갔어야

했다. 그랬으면 뒤일이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

대국경장과 헤어져 사갱으로 내려 가면서 나는 그가 외우던 말을 생각했다. 현옥이 어머니가 돌아 오면 인차... 그러자 안해를 떠나보내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큰딸한테서 해산방조를 바라는 편지가 날아 왔을 때 안해는 한숨을 쉬어 가며 푸념을 늘어 놓았었다.

《원 셈평들이 없지. 아이도 때를 보아 가면서 낳는거지 이걸 아무때나 덜씩...》

나에게는 안해의 심증이 가히 리해되었다. 그애가 첫 해산을 할 때에는 청하지도 않는데 꼴과 미역, 햇잡쌀을 갖춰 가지고 부랴부랴 달려 가서 한달 가까이나 눌러 붙어 있으면서 아이를 받아주고 시중을 들다가 돌아 와서 손녀가 달덩이 같더라고 춤이라도 출것처럼 기뻐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그렇게 시큰둥한 소리를 늘어 놓고 앉았으니 어지간히 속이 탄다는 소리였다.

나는 안해의 푸념에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편지를 밀어 놓았다. 미상불 반갑기는 해도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한끼 때식이 새삼스러운 때에 햇잡쌀은 어디서 나며 꿀은 무슨 수로 구하겠는가.

이튿날 사무실에 단돌이 있을 때 대국경장이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침부터 얼굴색이 썩 좋아 보이질 않는구만.》

나는 울적한 심사를 덜고 싶어 자초지종 사연을 터놓았다.

시들부들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갯장은 수척해 지긴 했어도 다부진 틀을 잃지 않은 옷몸을 의자등받이에 기대며 온 얼굴의 주름살이 펴이도록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참 안할 걱정들을 하고 있구만. 가문에 식솔하 나가 드는데 이것저것 따질게 있나. 만사를 제쳐 놓구 달려 가아지.》

자리를 인 그는 창가에 다가서서 한창 록음이 질어 가는 바깥풍경을 은은한 눈길로 내다보며 흐뭇하게 쇠었다.

《좋은 일ियो. 다른 나라들에선 해마다 인구가 준다구 아우성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때에도 아기를 낳고 있으니 글썄 이게 얼마나 뜻이 깊은 일인가.》

자리로 돌아 온 그는 선선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여러 생각 말구 현옥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지금은 아이를 낳는것도 사갱굴진 못지 않는 전투라고 나는 생각하네. 빈 손이면 뭐라나. 제 어머니의 손목만 잡고 있어도 산모한테는 힘이 된다고들 하더군. 글썄 나라의 대를 잇는 중한 일이 아닌가.》

레사로이 흘러 가는 나날이었다면 《아이를 낳는 것도 전투》라는 말마디가 귀 설고 새삼스럽게 들

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 대국쟁장이 입에 올린 그 말은 더없이 자연스럽게 들려 와서 내 마음에 흠뻑 차들었다. 지금처럼 엄혹한 시절에 새 생명 하나를 이 세상에 받는다느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전투》인가.

저녁에 나는 안해에게 대국쟁장의 말을 그대로 외었다.

《여러 생각 말구 떠나우. 지금은 아이를 낳는것도 나라의 대를 잇는 <전투>요. 잡곡이면 뭐라오? 있는대로 털어 가지고 가우.》

그렇게 떠나간 안해였다...

갑자기 웃쪽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다급히 구르는 기척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우를 올려다 보았다. 전차소대의 애젊은 조구공이 사색이 되어 발을 헛디디며 달려 내려 오고 있었다.

열댓걸음쯤 사이 두고 나를 알아 본 젊은이는 쓰러질것처럼 사다리란간에 몸을 실으며 떠들떠들 알려 주었다.

《책임기사동지, 쟁장아바이가... 봉락구간의 락반을 막아 사람들을 구원하구 지금... 병원으로...》

젊은이는 금시 눈물을 뿔굴것 같은 표정으로 말끝을 맺지 못했다.

나는 속에서 무언가 담담히 흐르고 있던것이 갑자기 꺾 방향을 바꾸어 거슬러 흐르는 감을 느끼며 떨려 나는 아래다리를 가까스로 가누어 사다리를 되밟아 오르기 시작했다.

밖에 나오니 여름날의 푸근한 아침해빛이 퍼진 쟁사무실 앞마당에서 여러 사람이 담가에 누힌 대국쟁장을 하얗게 반짝거리는 구급차의 뒤문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입술을 악문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그 얼굴은 판 사람처럼 이상하게 달라져 보이는데 머리와 온몸을 둘러 감은 붕대에 내뻗 선혈이 보는 사이에 점점 형체를 넓혀 가고 있었다.

얼굴을 싸쥐고 돌아 서는 현옥이에게 《상처가 어떠냐?》하고 물으며 담가에 다가서자 내 목소리를 알아 들은듯 대국쟁장이 스르시 눈을 떠올려다 보았다.

《책임기사, 6호조구를 빨리 뽑아야 이달 계획을...》

한순간에 조갈이 들어 버린 입술을 감빨고 나서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뇌였다.

《내 뉘까지... 일을 많이 해주게... 난 죽지 않아...》

그것이 이 세상에 남긴 그의 마지막말이었다. 한 시간후에 대국쟁장은 따뜻한 해빛이 비쳐드는 구급치료실의 침대우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점심때가 훨씬 지난 무렵 사무실에서 홀로 이마

를 싸쥐고 앉아 있는데 통계원처녀가 발끝걸음으로 다가와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내밀었다.

《쟁장동지가 이걸... 기사동지한테 드리라우...》

처녀는 말을 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꾸레미를 펼쳐 든 나는 그만 굳어져버렸다. 풀썩 무늬의 보자기에 아침에 내가 먹은것과 꼭 같은 풋강냉이 두이삭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평소에 흔히 그랬듯이 대국쟁장이 남보다 일찍 출근하면서 조반으로 싸가지고 나온것일것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나의 점심몫으로 남겨 두고 떠나 간것이였다.

불현듯 어린 날에 헤여지면서 그가 나에게 안겨 주었던 큼직한 강냉이이삭이 덧보여 와서 숨이 킁막혔다. 아득한 세월의 공간을 넘어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한시에 쏘아, 소리치며 눈앞으로 달려 오는듯만 싶어 나는 보자기채로 강냉이이삭을 가슴에 그리 안으며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쟁장동무... 대국형님!...》

하지만... 수십년세월 익히 들어 온 정든 그 목소리는 다시 들을 길이 없었다...

리대국쟁장의 장례는 기업소장으로 치르였다. 어릴적에 그가 나에게 파스한 풋강냉이이삭을 안겨 주고 낫선 녀인을 따라 애육원으로 떠나갔던 그 언덕의 양지 바른 산기슭에 그를 안치했다.

달포후에 창일리와 현옥이의 혼례를 치를 때 나는 소박한 그 애들의 결혼상우에 삶은 풋강냉이도 올려 놓아 주었다. 눈물을 머금은 그 애들에게 해줄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간신히 한마디했다.

《이건 임자 아버지의 뜻이였네. 풋강냉이 한이삭도 달게 씹으며 시련을 이기구 사회주의를 지켜낸 오늘을 후날에도 잊지들 말게...》

대국쟁장의 산소에 갈 때마다 나는 나라 없던 세월에 얼굴도 모르는 그의 아버지가 지었고 지금은 비둘에 새겨 져 있는 그의 이름을 음미해 보곤한다. 대국... 아마 아들만은 강대한 제 나라에서 살며 복락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지었으리라고 생각되였다. 그리고...우리 인민이 세상에 다시 없는 수령복을 행운으로 타고 났기에 간절한 그 소원이 후련한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해마다 여름이면 삶은 풋강냉이가 상에 오른다. 그때마다 호담하게 살진 이삭들이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듯만싶다. 비록 평범할지라도 조국을 위하여 바친 인생은 강성대국의 미래속에 영원히 살아 빛난다고. 대국쟁장도 말하지 않았던가. 《난 죽지 않아.》하고...

두 문호의 대결

베제르부르그에 있는 푸르게네브의 집으로는 당시의 이름난 작가들이 자주 모이곤 하였다.

오래동안 빠리에서 살다가 돌아 온 푸르게네브는 문단에서 로씨야소설의 일인자로 쟁쟁히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농노해방운동을 열렬히 선포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 져 있었다.

이날도 그의 집에는 레브 톨스토이를 비롯한 작가들이 모여 뽀쉬끼이며 고골리 등 로씨야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였다.

화제는 로씨야문단생활을 벗어 나 프랑스의 녀류작가 조르주 상드에게로 넘어 갔다.

푸르게네브를 비롯하여 몇사람은 입이 닳도록 상드에 대하여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상드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훌륭한 소설가이네.》 푸르게네브가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하였다.

《무엇이 훌륭하단 말인가?》

톨스토이가 반박해 나섰다.

《자네는 그의 재치를 모르겠나?》

《모르겠네. 아니, 난 그가 영 질색일세. 그의 작품 어디에 작가의 재치가 보이는데가 있나? 프랑스 사람이나 프랑스물이 든 자네에게는 비위에 맞겠는지 모르겠네만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일세. 로씨야사람의 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여보게 레브, 자네는 로씨야 촌구석에 박혀있으니 그럴수밖에...》

《이보라구 이완, 뽀쉬끼이나 고골리의 발뒤꿈치에도 못 가는 그 녀자를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라구. 그의 소설에 무슨 인간의 참생활이 있나?》

난 남자들도 녀자들처럼 분으로 얼굴을 진하게 화장하고 긴 손톱에 빨간 물을 들인 제씨들과 한뼉이나 되는 뽀쪽구두를 신은 요사스러운 숙녀들을 자주 내세우는 요즈음의 프랑스문학이 싫네. 향수 내만 풍기는 프랑스문학에 구역질이 난단 말일세. 상드의 소설도 그런 류가 아닌가.》

《흥, 그래.》 푸르게네브의 얼굴에는 톨스토이를

얕보는 빛이 감돌고 있었다.

《로씨야장교님은 여전히 촌뜨기라니까. 레브, 세상밖을 나돌아보라구. 왜 바깥세상의 좋은것을 볼 줄 모르나. 자네 일년 열두달 재물에 담가두어도 로씨야물이 빠지지 않을 킬투성이 우렁 같다니까.》

이 말에 톨스토이는 격해졌다.

《이완, 자네는 뽀쉬끼이나 고골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상드를 과찬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나? 그래 자네는 상드가 우리 로씨야의 뽀쉬끼이나 고골리보다 낫다고 보나?》

《그들이야 이룰데 없는 우리들의 선배들이지. 내가 그걸 부정했나?》

《그렇네. 자네는 무엇이든지 빠리가 아니면 못 배기거든. 자네야말로 프랑스에 오래 가있더니 빠리물이 단단히 들었군 그래. 앵무새처럼 프랑스흥내를 내니 말일세. 대지주의 아들로서 빠리흥내를 내면 자네가 훌륭해보일지 모르겠네만 로씨야의 작가가 서글프게 프랑스흥내를 내서야 되겠나. 우리는 로씨야사람이 아닌가. 로씨야의 소설가란말일세. 로씨야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인 우리 로씨야의 문호를 왜 모르나 말일세. 로씨야의 난알을 먹고 로씨야공기와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자란 우리가 로씨야를 잊어서야 안되지.》

《과시 로씨야백작답군. 자네 몸에선 로씨야촌바위의 곰팡내가 물씬물씬 난단 말이야.》

푸르게네브는 입을 뽀죽이며 톨스토이를 야유하였다.

《뭐라구? 빠리시궁창의 쥐새끼 같은 놈! 로씨야를 모르는 이놈! 우리 로씨야에는 로씨야의 녀이 빠진 녀같은 놈이 서있을 자리가 없어. 당장 프랑스로, 상드가 있는 빠리로 사라져 버리게!》

성이 똑같이 난 톨스토이가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 서자 푸르게네브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촌놈이 폭력을 쓰려는게지》 하고 중얼거리며 다른 방으로 내뽀고 말았다.

우리 집 창문가에서

최양수

설사 그것이 비록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생활의 한 측면일지라 해도 깊이 음미해 보느라 하면 거기엔 시대가 비껴져 있고 그 시대 인간들의 모습도 새겨져 있는 것이다.

얼마전 일요일날 우리 집에서 있던 일이다.

늘 반복되는 일과대로 그날 아침도 딸 윤희가 창문턱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물을 주고 난 딸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시울을 가늘게 찡그리고 해 솟은 맑은 하늘이 멀리 어딘가를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셋째 윤미는 혼자서 놀기가 심심했던지 인형을 안고 제 언니한테로 아장아장 걸어 간다.

《어-언-니-... 나두... 나두...》

언니가 하는 일은 뭐든 따라 하려는 막내이의 어리광이다. 여느때 같으면 귀여운 동생의 응석을 얼른 받아주었을 언니가 웬일인지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한본새로 그냥 서있기만 한다. 헛감자알같은 손이 치마자락을 자꾸만 잡아당기는데도...

(?!...)

나는 펼쳐 들었던 책을 덮고 아이들에게로 다가갔다. 도대체 무엇이 딸애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을가? ...창가에 시선을 주었으나 매일 보아오던 수도의 전경뿐 특별한것이 안겨 오지 않는다.

아침노을이 곱게 물든 선홍빛 하늘가에 우뚝 솟은 주체사상탑, 대동교와 옥류교, 그 배경으로 즐비하게 늘어 선 고층살림집들...

나는 의문을 풀길 없어 딸애에게 뭘 하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딸애가 고개를 가우뚱 쳐든다.

《숙제를 해요. 국어 숙제...》

《숙제라니?!》

《선생님이 우리 집 창문가에서 보이는것들을 학습장에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 그래 무엇이 보이느냐?》

딸애의 대답 역시 내가 보는것과 다를바 없었으니, 그 천진한 눈동자에 비껴진것은 두말할것 없이 수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항상 보아오던 전경이라 나에게도 별다른 느낌이 있을수 없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장깊이 흘러 들며 가슴이 쩍 열리고 기분이 상쾌해 질뿐...

우리 집 창문가에서 내다보이는것은 무엇인가? ... 아이들의 동심에 어울리는 그 질문을 다시금 외

워 보던 나는 문득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무엇이 라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것이였다.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의 기치인양 하늘을 찌를듯 거연히 솟은 주체사상탑, 크나큰 사상과 뜻을 세계만방에 펼치며 활활 불 타오르는 봉화의 불길... 참으로 어느것이든 하나하나 꼽아보면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들이다. 푸른 기와를 엮은 옥류관, 저 멀리 당창건기념탑, 룡라다리, 5월1일경기장...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새삼스레 느끼게 하고 거기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현명한 령도의 거룩한 자옥자옥들을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는 위대한 화폭들이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결국 우리 집 창문가에 혁명의 수도 평양의 모습, 주체조국의 벽찬 현실이 비껴져 있는것이다. 나의 오늘, 우리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밝은 얼굴도 이 작은 창문가에 비껴져있는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바라보는 아침노을은 저렇듯 아름다운것이고 가없이 푸르른 하늘조차 이 마음속에 류다른 감흥을 안겨주는것 아닌가.

무릇 과거속에 현재가 있고 현재속에 미래가 있다고 한다.

아득히 흘러 간 나의 유년시절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그때는 온 나라에 천리마대교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들은 이른 새벽이나 깊은 밤에 얼핏얼핏 볼수 있었고 길거리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음박질쳐 가던 그때... 창문가에서 어제 본 조립식살림집이 하루밤새 두세층씩 경충경충 키돋음을 하고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대진군의 힘찬 노래소리를 들으며 철부지나이에도 들뛰는 가슴을 진정할 길 없던 그때... 하도 놀랍고 신비스러워 미숙한 상상력으로나마 그 의미를 묻는 나에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조국이 커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국이 커가다니?!...

잠만 있으면 장난질에 여념이 없던 그 시절, 나에게 아버지가 폐사롭게 한 이 말을 이해하기가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기보다 더 어려웠다.

나무나 곡식이 자란다면 몰라도 조국이 어떻게 커간단 말인가?...

그러나 조국은 커갔다. 하루가 새롭게, 한해가 다르게 움쭉움쭉 키를 솟구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세상리치를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확실히 느낀것은 아버지가 한 말이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것이였다.

단층주택지구엔 덩치 큰 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서고 흙먼지 날리던 좁은 도로가 비행장 활주로처럼 탁 트이고...사람들의 옷차림새며 언어생활도 눈에 띄이게 달라 저 가는... 그래 이것이 정녕 조국이 커가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돌이켜 보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한 그때의 모습들은 조국의 오늘을 안아 온 약동하는 시대의 거센 숨결이였다.

그 숨결! ...그것을 어찌 어제날의 추억이라고만 하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포위공격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무적필승의 신념을 안고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사회주의 한길로 줄기차게 달려 온 우리 인민! 허리띠를 몇번이고 졸라 매면서도 남을 넘겨다 보거나 주춤거림이 없이 막아 서는 고난과 시련의 언덕들을 웃으며 넘어 온 우리 인민!

나에게는 들려 온다. 이 나날 우리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동치던 심장의 박동소리가, 서로서로 어

깨를 그러잡고 내뿜던 뜨거운 숨결소리가!...

승엄한 감정이 온몸을 휩싼다.

그러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사람들모두가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뛰고 또 뛰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이 멀지 않아 펼쳐게 될 조국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을텐가!

나는 막내딸을 뉘름 안아 들었다. 한손으로는 만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아, 어서 보아라. 우리 집 창문가에선 아버지랑 엄마랑 너희들모두가 안겨 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은혜로운 조국이 보인다. 너희들의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아, 그러니 우리 집 창문가에선 내 조국의 앞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통일된 내 나라에서 세월이 무궁토록 부흥번영할 21세기 주체의 강성대국의 모습도 내다보이는것이 아닌가.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타져 나오는 말.

아름다워라, 나의 조국이어!

자랑스러워라, 나의 조국이어!

위대하여라, 나의 조국이어!

...

명언해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조국이며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이라는 뜻이 깃들어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가장 높이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이 지닌 존엄과 영예는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있는 존엄과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걸출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 많던 력사를 끝장 내고 룡성과 번영, 자주와 새 력사를 펼쳐 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신 건국의 어버이, 민족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세상에 존엄 떨치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공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조국의 상징,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시며 우리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조국,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민족이다.

가사

금수산의 백학아

강인숙

낮이나 밤이나 노을이 지지 않아
백학아 네 여기 날아 왔느냐
수령님 계시는 금수산성지에
세월의 소원을 안고 왔느냐

어제도 오늘도 그리움에 넘쳐
백학아 네 여기 못 떠나느냐

수령님 인민들과 만나시는 집
태양의 성지를 못 떠나누나

천만년 수령님 받들어 모셔 갈
인민의 그 마음 안고 있어라
그 념원 절절해 천연돌로 굳어져
백학은 오늘도 못 떠나누나

가사

청춘의 벗들아 노래를 부르자

김은희

청춘의 벗들아 노래를 부르자
백두산아래서 자라난 우리다
인생의 봄시절 꽃피는 시절아
노래를 부르자 혁명의 노래를

청춘의 벗들아 노래를 부르자
금별의 땅에서 자라난 우리다
인생의 봄시절 꽃피는 시절아
노래를 부르자 조국의 노래를

청춘의 벗들아 노래를 부르자
붉은기시대에 자라난 우리다
인생의 봄시절 꽃피는 시절아
노래를 부르자 수령의 노래를

아 청춘의 노래여 울리어 가라
저 푸른 하늘로 저 넓은 대지로

교훈시

가을날에

홍문수

어느새 가을이 와
별은 별마다
슛스러이 숙인 이삭을 안고
해빛을 향해 감사를 드리누나

아아, 깊어 지는 생각이어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

귀밀머리 희여지는
가을이 왔을 때

알찬 이삭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대지처럼
삶의 열매를 익히지 못한다면
한생이 어찌 허무하지 않으랴

처녀시절이 끝날 무렵

최현구

△때: 현대
 △곳: 대동강가, 최전연 섬마을
 △나오는 사람들
 향심(재봉공)
 향옥(향심의 언니)
 경수(향옥의 남편)
 명호(2대대장)
 정희(재봉공)
 금실(재봉공)
 순옥(재봉공)
 미경(재봉공)
 부대정치위원
 공장초급당비서
 인민반장, 1대대장, 3대대장, 경찰참모, 군관
 서 경
 △무대: 화창한 봄날의 대동강가.
 △처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속에 노래가 울린다.

처녀 처녀시절 봄 같은 계절
 누굴 위해 급게 꽃으로 피나
 꽃시절 꿈시절 영원하려마
 처녀시절 끝날무렵 생각 많아라

△향심과 금실 꽃나무모를 들고 나온다.
 금실: (대동강을 향해) 오, 평양! 정 든 고향이여!
 청춘의 고운 꿈 가꿔 준 대동강 맑은 물이여.
 향심: 그런데 어느덧 끝나게 됐구나. 우리의 처녀시절이...
 금실: 아수해, 영원했음 좋겠어. 호호호.
 향심: 그래서 난 희망찬 인생의 제2장을 의의있게 시작하자는다. 여기에 붉은 장미꽃으로 오각별을 새기는것으로부터 말이다. 우리 다섯 처녀가 한그루씩...
 금실: 좋아, 이제부터 일생토록 이 가슴속에 붉은 오각별만 안고 살 군관의 안해가 될테니까.
 향심: 안해? 호호호, 우리가 벌써?...
 금실: 막상 부르고 보니 좀 쑥스럽구나. 호호호. 애들이 무슨 일일까?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향심: 일생문제결정인데 좀 이러저러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겠지 뭐.
 금실: 하긴 갑자기 최전연 섬초소로 시집가겠다고 하면 부모들이 놀랄게야. 여하튼 약속한 시간을 어기는 애들은 배반자다.
 △순옥, 미경 숨이 차서 뛰어 들어 온다.
 금실: 아니 너희들 왜 그러니?
 순옥: 저기, 저기 막 따라와. 막아줘.

향심: 뭐, 누가?
 미경: 글썽 뺨스줄에서부터 그냥 따라 오는데...
 금실: 혹시 총각벼락을 맞은 모양이구나.
 향심: 애들두, 따라 오는 사람이 안보이는데.
 순옥: 분명 따라 왔는데...
 향심: 호호호, 처녀시절엔 제뒀에 오는 총각들은 다 자기를 따라 오는 총각처럼 보인다더라.
 미경: 아니야, 분명...
 금실: 아, 처녀시절 끝날무렵 총각도 많아라!
 △처녀들 즐겁게 웃는다.
 향심: 그래 부모님들의 승낙은 받았니?
 순옥: 우리 아버지 글썽 눈물이 글썽해서...
 처녀들: 뭐? 눈물이...?
 순옥: 우리 아버지 그곳 초도에서 군대복무를 하셨거든.
 처녀들: 그래?...
 순옥: 아버지 우리 장군님께서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고 초도를 찾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장하다, 군관의 안해도 총 잡은 병사다,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라 하시며...
 미경: 우리 부모님들두 축복이야. 축복!
 향심: 그러면 그럴겠지. 우리의 부모들은 다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셨지. 그런데 정희가...
 금실: 왜 안올까? 정각 열신데.
 순옥: 혹시 하루밤새 마음이 달라 진게 아니야?
 향심: 그럴수야... 정희 우리 장군님께서 섬초소를 찾아 주신 소식을 듣구 제일먼저 달려와 그곳 군인들의 길동무가 되자구 호소하지 않았니.
 금실: 하여간 정희에게 문제가 생긴게 분명해.
 향심: (주변을 살피다가) 저기 정희가 아니야?
 순옥: (소리친다.) 정희야! 여기야, 여기!
 미경: 아니, 저 애가 왜 저럴까?...
 △정희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온다.
 향심: 야! 너 정말 고운 옷 입었구나.
 처녀들: 요 무늬 봐. 새롭지? 정말 곱구나.
 정희: (마뜡지 않게) 웃이나 고와선 뭘하니...
 향심: 부모들이 반대하던?
 정희: 아니...
 금실: 그럼 마음이 변한게 아니야?
 정희: 너희들은 날 어떻게 보구 그러니?
 미경: 말을 해야 알게 아니야. 야, 답답하다.
 정희: 난 아직...
 처녀들: 뭐?
 정희: 난 너희들과 함께... 못 갈것 같애.
 금실: 흥! 돌개바람이 불었구나. 열렬한척 하더니.

순옥: 흥! 입은 입이구 심장은 심장이니까 말하자면 입과 심장과의 거리는 한뼘밖에 안되지만 그 거리가 수천수만리보다 더 먼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희: 뭐라구?

미경: 난 아직 우리 처녀들속에 자기 안일부터 먼저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는게 부끄럽게 생각돼. 조국은 시련을 헤치고 있는데 화려한 옷, 안락한 생활에 대한 꿈... 이건 우리 시대 처녀들의 수치야, 수치.

정희: 그만 두지 못하겠니? 정말 너희들은...

향심: 애들아, 그만 두자. 각자는 자기 신념과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강요는 아니니까.

정희: 향심아, 너까지...

향심: 정희야, 우린 어려서부터 저 대동강 푸른 물결을 그저 평화롭게만 바라보며 이 잔디밭우에서 뛰놀고 덩굴며 행복만 누려왔지. 이제 우리의 처녀시절은 바야흐로 끝나간다. 이 마당에서 우리들앞에는 다만 가정부인이 되어 남편과 자기에게만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치는 그저 그러루한 녀성이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지켜 시대의 전초선에 서서 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하면 우린 너무 철이 없었어. 우리 장군님께서는 족잡과 꿰기밥을 드시며 그 험한 최전연길을 걸으시는데...

정희: 알아, 나두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마음이상으로... 그대 꿈은 얼마나 끈지 아니?

향심: 그런데 왜 그러니?

성희: 저... 난...아침에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처녀들: 뭐? 거울?

정희: 곱게 생기지 못했다는걸 말이야.

처녀들: 뭐?

정희: 내 코를 좀 보려마 좀 납작하지 않니?

처녀들: 뭐, 코? 아니 그것때문에 호호호.

정희: 웃지들 말어. 남자들은 처녀를 고르는 원칙에서 처음엔 인물이구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던데 그곳 총각군관들은 남자가 아니니.

미경: 요 짹짹한것, 네 손뽕금숨씨에 반해서 줄을 서서 따라 다니는 총각들은 다 어떻게 하구, 호호호.

정희: 그러나 그곳 군관들은 아마 눈이 높고 도고할 계란 말이야. 더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일일이 손까지 잡아주시지 않았니. 그런데 약속하지도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저쪽의 마음도 모르면서 날 고와해 달라구 무슨 럽치루 비위 좋게... 못하겠어.

미경: 애, 듣구 보니 이건 심각한 문제로구나. 그래 우리들중에 누가 첫눈에 합격될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수 있니? 오히려 일생 부담을 주게 된다면...

순옥: 가만, 문제를 그렇게 세우고 보면... 야, 나두

자신은 없구나.

금실: 나두...

향심: 야, 다들 이러면 우리의 맹세는 어떻게 하니?

금실: 그거야 우리들끼리 한거구, 넌 자신 있니?

향심: 뭐? 나? 그건... 자신까지야 뭐, 이렇게 하자. 그새 우리가 공장에서 받은 혁신자표창장이랑 다 가져 가자.

금실: 글썽, 그건 두번째 심사라지 않니.

순옥: 애들아, 우리 인물이 뭐 어떻다는게야. 세계에 다 나가는 《조선》화보에까지 조선녀성의 전형이라구 척 나가지 않았니. 맞서보자는게야.

미경: 그러다가 탁 채우면 그땐 어떻게 돌아오니.

정희: 어마나, 생각만 해도 낮이 뜨겁다예.

금실: 가만, 좋은 수가 있다.

처녀들: 뭐? 좋은 수?

금실: 정찰!

처녀들: 뭐? 정찰?

금실: 향심아, 너희 아저씨가 그곳 부대 대렬참모라구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휴가로 가장하구 가서 그곳에 어떤 대상총각들이 있으며 취미는 어떠한지. 특히 배우자선택에서 미적리성이 어떤지...

처녀들: 야, 그게 좋겠다 향심아.

향심: 애들은, 처녀가 그걸 다 어떻게... 못해.

금실: 임무는 어렵다. 이건 우리 다섯처녀들의 운명 문제다. 정찰이 끝나면 지급전보, 즉시 출발하겠다.

정희: 특별히 내 문제에 관심을 돌려줘. 코는 좀 작아두 손뽕금만은 어떤 남자의 심장도 녹여낼수 있게 탈수 있다는걸.

미경: 넌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걸 잊지 말아.

순옥: 난 무용수라는데 참 고해라. 군인가족예술조경연에서 한몫을 할수 있다.

금실: 가만가만, 서로들 리기주의하자는게 아니야? 향심아, 철저한 공정성이다. 알았지?

순옥: 그리구 이 일이 다 성사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비밀이다. 처녀의 비밀!

금실: 야! 어떤 총각들이 곱게 안아줄것인가.

처녀들: 가슴 설레여라!

향심: 자, 꽃으로 오각별을 새기자. 군인선서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을 심장의 맹세!

처녀들: 한생을 별처럼!

방창 처녀 처녀시절 행복의 시절
그 향기 누구에게 풍겨 드릴가
장군님 전사를 그리는 마음
처녀시절 끝날무렵 가슴 설레라

-무대 어두워 진다.-

제1경

△무대, 섬초소 구분대 군인사택마을, 무대 오른 쪽으로 치우쳐 경수의 단층집이 있다.

△무대 밝아 지면 부엌에서 칼장단소리 들리는데
 향심 무엇인가를 찾으며 나온다.
 향심: 어디 떨어 졌을가?... 아까 몰탈 운반하다가?
 (부엌에 대고) 저 언니, 파란 뚜껑 수첩 못봤어요?
 향옥: (나오며) 뭘 잊어 먹었니?
 향심: 아니, 뻘어요. 머리속에 다 있는걸요. (중얼거리며) 1대대장 화살표 노래...
 향옥: 너 뭘 그러니?
 향심: 호호호, 정찰자료...
 향옥: 뭐? 정찰자료?...
 향심: 아니, 정찰참모동지가 무용을 잘한단 말예요.
 향옥: 오, 정찰참모아저씨...
 향심: 네, 내 빨래터에 갔다 오겠어요.
 향옥: 빨리 오너라. 이제 곧 손님이 오겠는데.
 향심: 손님이라니요?
 향옥: 아저씨에게 부탁하던 명호대대장.
 향심: 아, 그 매바위초소 대대장 말이지요? 됐구나.
 향옥: 좋아하는 한다.
 향심: 그 동무에게 애인은 없다는게 분명하지요?
 향옥: 걱정 말아.
 향심: 그럼 뻘어요. 내 빨리 올게요. (나간다.)
 향옥: 원, 선 보기전부터 지나치게 좋아하는것 같다.
 하긴 무르익은 철인데.(부엌으로 들어 간다.)
 △이때 경수 성이 나서 들어 온다.
 경수: (부엌에 대고) 여보! 좀 나오우.
 향옥: 예, 다 돼갑니다. (나오며) 중좌동지! 지금 생일상차림의 마지막단계에 있습니다.
 경수: 나 원참...
 향옥: 예? 명호아저씨가 안오겠대요?
 경수: 명호동무 생일상은 부대에 가서 차려 주겠소. 된대루 싸주오.
 향옥: 아니 검사해서 향심이와 맞세우겠다질 않앗소?
 경수: 허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향옥: 그 애 휴가도 끝나가는데 이번 기회에...
 경수: 망신스러워서... 여보, 당신 동생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줄 아오?
 향옥: 그 애야 휴가를 바치면서 부대에서 건설하는 소형발전소건설장에서 살지 않소.
 경수: 흥! 빨리 집으로 돌려 보내야겠소.
 향옥: 예?
 경수: 소문이 나기전에... 당신네 가문에 바람쟁이 조상이 있었소?
 향옥: 갑자기 왜 그래요? 가문까지 거들면서...
 경수: 명호대대장이 향심에겐 몇번째인줄 아오?
 향옥: 몇번째라니요?
 경수: 네번째란 말이요. 네번째!
 향옥: 네번째요? 아니?...
 경수: 발전소건설장에 나갑네 하면서 흥클하게도 총각군관 세명씩이나 떠봤다질 않소. 1대대장, 3대대장, 정찰참모.

향옥: 예? 아니 그 애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신이 소개해 주질 않았나요. 《이젠 네 나이가 얼마나. 시집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경수: 그렇다구 처녀가 한꺼번에 다 두드려 본단말이요? 바람이 들어도 분수가 있지. 당신네 가문이 그런줄은...
 향옥: 아니 아까부터 가문, 가문 하면서 그래요.
 경수: 글썽 별스레 그 사람들이 요즘 나만 만나면 향심동무, 향심동무 하길래 허참.
 향옥: 정말 그렇다면 좀 지나친것 같지만...
 경수: 이젠 더 못만나게 해야겠소.
 향옥: 그럼 나이찬 처제생각은 안한다는거예요? 이 총각이 끝끝하다 저 총각이 홀룡하다 하면서 잔뜩 들뜨게 한건 누구게요?
 경수: 그게야 그 애가 오자 바람으로 부대에 총각군관들이 몇명이나 되는가고 묻기에 난 향심이도 당신처럼 군관의 안해로 발전시켜 주려구... 하긴 그때부터 도수가 넘는다 했더니.
 향옥: 아, 처녀때야 이 총각, 저 총각 하면서 좀 비싸게 놀수도 있지요 뭐. 나도 일생 후회되는건 처녀때 여러 총각들과 교제도 못해보고 당신에게 꼭 잡힌거예요. 글썽 길을 좀 친절하게 대웠더니 《동무, 나하구 결혼합시다. 그게 좋겠소.》 하구 제잡담...
 경수: 휴가 마감날에 딱 나타났으니... 하긴 군관안해가 되려면 사랑도 군대식으로 하는게지 고르긴 뭘 고르단 말이요. 별 단 사람이 이렇소하고 제기하면 처녀란 《예, 알았습니다.》 하는게지.
 향옥: 호호, 처녀의 일생문제를 아무려면 대렬참모가 대렬배치하듯 그렇게 될것 같애요?
 경수: 아무튼 처녀가 한꺼번에 네다섯씩. 음음...
 향옥: 계획했던 일정대로 밀구 나가보자요.
 경수: 망신한다는데두 그래요, 정말.
 △이때 향심 들어 온다.
 향심: 아저씨 왔어요? 명호대대장동무가요?
 경수: (못마땅하여) 음...
 향심: 아니 못오나요?
 향옥: 저... 이제 온다.
 향심: 에이, 아저씨 가슴이 덜컹하게. 야, 빨리 만나봤으면... 어떻게 생겼을가...
 경수: (쓰거운듯) 허... 참,
 향심: 아저씨, 한번 더 확인할게 있는데 혹시 그 동무에게 어디 보아 둔 처녀가...
 경수: 뭐?
 향심: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담보하지요, 예? 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경수: (못 참겠다는듯) 향심아, 너 정말...
 향옥: (막아서며) 향심아, 그건 이미 말하지 않았니. 그 아저씨 우리 장군님께서 늘 전선길을 걷고 계시는데 순간도 섬초소를 떠날수 없다구 하면서 몇년째 휴가두 미루고 있지.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섬초소를 찾아 주셨을 때 해풍에 튼

명호아저씨의 손을 오래오래 잡아 주셨단다.
 향심: 야, 얼마나 좋았을가요. 그 손 잡아 봤으면...
 경수: 뭐 손을? 허참...
 향심: 다행이에요. 그 동무에게 애인이 없다는게.
 경수: 이거야 정말... 애인이 있다.
 향옥: 여보.
 향심: 아니, 정말이에요?
 향옥: 아니다.
 경수: 얼마나 고운줄 아니?
 향심: (울상이 되여) 아저씨 도대체 뭐예요. 얼마나 주의를 쏘냐요. 아저씨때문에 시간만 뺏겼어요. 동무들이 눈이 까매서 기다리겠는데.
 경수: 누가 기다린다고?
 향심: 이젠 아저씨하구 말두 안하겠어요. (나간다.)
 향옥: 향심아, 어디 가니?
 향심: 나 부대에 찾아 가서 직접 물어 볼래요.
 경수: 뭐 직접?
 향옥: 애, 가지 말아. 아저씨가 톱으로 그래 본저다. 언니가 보증한다. 여보, 그렇지요?
 경수: 허참...
 향심: 아이, 아저씨 엉터리야. (경수의 등을 두주먹으로 두드리며) 에이, 혼났네.
 향옥: 향심아, 너 그새 발전소건설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겠구나. 말해 바라. 그 사람들중에서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던?
 향심: 정말 다 훌륭한 동무들이예요.
 경수: 뭐? 몽땅?
 향심: 예, 모두 마음에 꼭 들겠지요 뭐.
 경수: 이거 바람도 통짜 바람이구나. 가문이 정말.
 향옥: 여보, 또...
 향심: 호호호, 3대대장동무 말이에요. 얼마나 익살스러운지. 온종일 웃기는데 허리가 개미허리가 될번 했어요. 호호호, 얼마나 재미난지 늘 함께 있으면 늙을새가 없을것 같애요.
 경수: 뭐? 허허허...
 향심: 그리구 1대대장동무 노래도 잘하구 용접도 척척, 미장도 척척. 만능박사더군요. 정말 반할만 하더군요.
 향옥: 그래서 그한테두 반했단말이나?
 향심: 그러문요. 정찰참모동무 있지 않나요. 글썄 처녀처럼 곱살하게 생겼는데 벽돌장을 석장식이냐 한거번에 얹히고 깨는데... 나에게도 격술을 배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경수: 그 사람에게도 반했겠지?
 향심: 어떤 처녀가 반하지 않겠어요.
 경수: 이거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군.
 향심: 반하면 안되나요?
 향옥: 그래, 다 반할만 하지. 우리 장군님께서 금싸래기처럼 아끼시는 1선군관들인데... 너희아저씨 《분공》으로 그 총각군관들이 가정을 이루어 줄데 대하여 과업을 받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그런단다.

향심: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져 보겠어요.
 경수: 뭐? 다 책임을? ... 부끄러운줄 모른다구야.
 향옥: 여보.
 향심: 솔직히 처음엔 좀 주저도 했었는데 이 문제도 혁명의 총대문제라고 생각되기에... 대담하게 해보겠어요.
 경수: 뭐? 대담하게...?
 향심: 아저씨,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기둥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처럼 되자고 정신도 품모도 따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과 리상은 장군님을 제일선에서 받드는 병사들처럼 결사옹위의 충신으로 되는거예요. 그 길에 청춘을 바치는것, 이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어요. 아저씨, 우리들이 꿈과 리상을 실현하게 해주세요.
 경수: 엉? 그래그래...
 향심: 야, 우리 아저씨 제일이야. 언니, 대대장동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요?
 향옥: 그 사람은 음식나무라는게 없다.
 향심: 그러니 다식성이구만요. 보지 않고도 성격이 알려요. (수첩에 적는다.) 다식성...
 경수: 여보, 저것 보우.
 향옥: 너 뭘 적니?
 향심: 호호호, 사실은 저... 비밀을 지킬것.
 향옥: 뭐라구?
 향심: 이제 언니,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하자구.
 향옥: 뭐?
 △이때 명호 들어 온다.
 명호: 중좌동지, 명령대로 왔습니다.
 경수: 어 왔나, 자, 어서 부대로 가지구.
 명호: 아니, 급한 일이 있다구 부르지 않았습니까.
 경수: 해제됐으니 가자구. 빨리!
 향심: 언니!
 향옥: 여보, 가긴요. 향심아, 인사해라. 제 동생이에요. 명호대대장아저씨다.
 향심: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혼자말로) 야, 인물깨나 볼것 같구나.
 명호: 향심동무지요.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빨래도 해주고 전설장에서 밤도 같이 새운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향심: 아이 뭘요. ...(명호를 유심히 본다.)
 명호: 저...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습니까?
 향심: 예? 아니 정말 멋 있어요. 아이...
 명호: 예?
 향옥: 향심아, 그런 말은...
 경수: 또 찻눈에 반했는가. 허참...
 향심: 저... 제가 그 손을 한번 잡아 볼수 없을까요?
 명호: 예? 저의 손을 말입니까?
 향심: 소원이 돼서...
 명호: 예? 소원 말입니까?...

경수: (향옥에게)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향옥: 향심아, 넌...
 향심: 우리 장군님께서 대대장동무의 그 손을 잡아 주시면서 이 무죄주먹에 조국보위의 무거운 임무가 얹혀져 있다고 하셨는지요? 어디 그 손을 잡아 보게 해줘요.
 명호: 예? 저... 그럼...
 향심: (명호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마워요.
 경수: 저런!
 향옥: 저 애가?
 향심: 언니, 아저씨, 미안하지만 자리를 좀...
 경수: 엉?
 향심: 야, 우리 단 둘이서 말할게 있어서 그래요.
 경수: 둘이서? 가만, 명호동무, 무대에 가봐야지 않겠소?
 명호: 시간이 있습니다.
 경수: 혹시 찾을수 있단 말ियो.
 명호: 아, 일없을겁니다.
 경수: 아, 제길 눈치두...
 향옥: 어보, 뭘 좀 도와줘요. (경수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간다.)
 향심: (원탁우에 수첩을 꺼내놓는다.) 여기 앉으세요.
 명호: 전 이렇게 서있는게 좋습니다.
 향심: 상급은 부엌으로 나갔다가요. 어서요.
 명호: 예... 저 어찌자는겁니까?
 향심: 저... 부럽습니다.
 명호: 예?
 향심: 우리 장군님께서 섬초소에 찾아 오셨던 그날은 그렇게 파도가 세쳤는지요?
 명호: 예. (감회깊이) 우린 그날 너무 안타까워 가슴을 쳤지요. 해풍은 폭풍처럼 불지, 파도는 산악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속을 헤치며 쾌속정이 달려 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흔들리는 갑판우에 서시여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만세를 부르며 물속으로 뛰여 들었지요... 그런데 내리실 때 보니 옷은 바다물에 젖어... 후에 들으니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향심: (격정에 겨워) 아, 어찌면... 장군님!
 명호: 우리 병사들은 언제나 이렇게 행복의 절정에서 살고 있지요.
 향심: 행복의 절정! 그래요. 우리 장군님의 전사들만이 오를수 있는 절정! 우리 시대 청춘들의 꿈은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그 절정에 올라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장군님과 제일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최전연동무들이군요.
 명호: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전연 병사들은 인민군대의 맏아들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향심: 야, 인민군대의 맏아들! (혼자소리로) 그러니 맏뎌느리가 될수 있겠구나. 밤을 새며 기다릴텐데...
 명호: 누가... 밤을 새웁니까?
 향심: 예, 처녀시절을 졸업하게 되는 년령기의 처녀들이... 호호호.
 명호: 예, 그 년령기에 들어 서면 잠이 좀 없어지는 모양이군요.
 향심: 호호호, 이렇게 눈을 뜨고도 무지개꿈만 꾸답니다. 저... 몇가지 질문해도 되겠어요?
 명호: 질문이요? 예, 군사비밀만 내놓고는...
 향심: 저... 취미는 무엇인지요?
 명호: 예? 제 취미 말입니까?
 향심: 말하자면 음악 같은걸 좋아 하시는지...
 명호: 아, 노래 말입니까? 병사생활 그자체가 랑만의 노래거든요.
 향심: 그럼 손풍금수를 좋아 하시겠군요.
 명호: 그럼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 섬초소에 손풍금이랑 악기를 많이 보내주시지요. 멋들어진 손풍금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향심: (혼자소리로) 정희야, 희망적이다.
 명호: 예? 저 적는건 뭡니까?
 향심: 전 아무때나 굵적저리는것이 버릇이 돼서. 그런데 키는 좀 작은편인데...
 명호: 누구의 키가 말입니까?...
 향심: 예? 아니 그저...
 명호: 허 참, 무엇을 물어보는지 통 모르겠군요.
 향심: 아이, 말할줄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대답해주세요.
 명호: 하하하, 그러면 하여튼 대답합시다. 우리 집 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작답니다.
 향심: 그러니 작은 키도 일없다는게지요?
 명호: 하하하, 군사활동에선 키가 작아서 유리할 때가 많지요. 피탄면적이 적으니까요.
 향심: 그럼 저... 군관안해의 생활도 말하자면 군사활동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명호: 그야 그렇지요. 군인의 안해란 그대로 별달지 않은 병사이니까요.
 향심: 야, 됐어요. (적으며) 정희야, 이제 한가지만 남았다. 식성은 다식성...
 명호: 뭇라는지요?
 향심: 아이, 혼자말을 해본거예요. 저... 채봉기와 말하던 습관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물겠어요.
 명호: 하하하, 이거 뭐 심문하는것 같군요.
 향심: 아이, 그런게 아니예요.
 명호: 하하하, 하여튼 좋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향심: 저... 미적감정을 어디서 느끼시는지요?
 명호: 예? 미적감정이요?...
 향심: 말하자면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라 할가... 특히 처녀들을 평가하는데서 어떤 립장인지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을 얼굴생김새에서만 느끼는지 마음씨에서 찾아 보는지...

명호: 그게야 마음이 고우면 다 끝게 보이는게지요.
향심: 정말이예요? 저...코가 좀 낮아두 일없겠어요?

명호: 예? 웬 코 말입니까?...

향심: 야, 하여튼 대답해 주세요. 어서요.

명호: 하하하, 코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향심: 야, 됐구나. 정희야! (탄성을 올린다.)

명호: 누구라고요?

△향옥, 경수 나온다.

향심: 고마워요. 정말 우리 군인들의 미적감정은 훌륭해요. 이제 멋들어진 손퐁금소리가 꼭 울릴 거예요.

명호: 그럼 향심동무가 손퐁금을 잘 타는 모양이지요? 됐습니다. 이제 발전소조업식날 대대별 예술소조경연이 있는데 군민프로를 부탁드립니다.

향심: 군민프로! 약속했어요.

명호: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생일이 돼 봐서...

향심: 언니!

향옥: 아저씨의 생일상은 다 차려놔네.

명호: 예? 제 생일상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전사동무의 생일이어서... 만형구실을 해야지요... 손퐁금은 꼭 부탁드립니다.

향심: 다시 만나자요.

△명호 인사하고 나간다.

향심: 언니, (향옥의 손을 잡고) 난 얼마나 기쁘지, 우리 군인들은 고상한 미의 체현자예요.

향옥: 고상한 미?

향심: 내가 찾던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향옥: 그게 정말이냐?

향심: 마음이 놓여요.

경수: 그러니 이번에는 네 마음에 든단 말이지?

향심: 처녀들의 마음이야 뭐 군인동무들이 명령하면 그저 처녀들은 《알았습니다.》이럴뿐이지요 뭐.

경수: 뭐? 알았습니다?... 너 말 잘했다. 됐구만, 됐어.

향옥: 향심아, 용타, 그래 우리 시대의 처녀들에게 있어서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군인의 안해가 되는것은 가장 큰 긍지고 행복이다.

경수: 당신도 말 잘했소. 하하하, 그런걸 난...

향심: 저... 그런데 아저씨.

경수: 왜 그러니?

향심: 저... 한번만 더 도와 주세요.

경수: 그래, 네 한번이구 열번이구 다 들어주지

향심: 저...

경수: 어서 말하라는데두.

향심: 아이참, 이번엔 제 문제가 돼 봐서...

경수: 뭐? 네 문제?

향심: 저... 딱 한명만 더...

경수: 뭐? 한명만 더?...

향심: 후에 알게 될테니까, 부탁이예요.

경수: 그럼 그것도 총각군관이여야 되겠지?

향심: 예, 애인은 없어야...

향옥: 야, 너 또 뭘 보겠다는거냐?

경수: 에이, 이거 참아두 한계가 있지...

향옥: 아니, 여보.

경수: 당신네 가문 알만 하오. 에이! (나간다.)

향심: 아니 아저씨, 야, 어찌나. 시간이 없는데. (따라 나간다.)

향옥: 향심아! 참 철이 없어 그러는지 바람이 들었는지...

△인민반장 들어 온다.

반장: 마침 있었구만요.

향옥: 반장동무가 어떻게...

반장: 저... 그 집 동생이 휴가가 언제까지나요?

향옥: 왜 그러나요?

반장: 빨리 보냈으면 해서... (수첩을 주며) 이게 동생거지요?

향옥: 이걸 어디서...

반장: 읽어 보세요, 하참.

향옥: (읽는다.) 대상자들... 정찰참모... 키는 중키, 식성은 주로 남새계통... 1대대장...

반장: 글썄 처녀때니까 이 총각, 저 총각 고를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서장을 꾸미면서까지, 이거야...

향옥: 예?

반장: 우리야 최전연 군인가족이 아니나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야 하는건데.

향옥: 예, 알겠어요.

반장: 그럼 전 가보겠어요. (나간다.)

향옥: 네가 어디서 날라리바람이 잔뜩 들어 가지구, 어디 보자.

△향옥 방에 들어 가서 향심의 트렁크를 가지고 나와 퇴마루에 놓는다.

△향심 들어 온다.

향심: 언니, 왜 그래요?

향옥: 당장 떠나거라.

향심: 예?

향옥: 네가 뭐길래 우리 군인들을 우롱하니?

향심: 아니...

향옥: (수첩을 주며) 여기에 뭘 써 넣었니?

향심: 어마나!

향옥: 인민반장이 가져 왔다.

향심: 이걸 어찌나. 다 보았겠는데...

향옥: 여기가 어딘줄 아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지키는 제일선참호란 말이야, 일선참호!

향심: 언니...

향옥: 뭐? 군인의 안해가 되겠다구? 군인의 안해가 된다는것은 남편과 함께 총을 잡고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가진 혁명전우가 된다는게야. 자격이 없다. 가라.

향심: 언니, 그런게 아니예요. 저... 이젠...

△경수 들어 온다.

경수: 여보, 끝내 일이 터지는것 같소.

향옥: 일이 터지다니요?
 경수: 향심아, 우리 1대대장하구 약속한게 있니?
 향심: 예. ... 발전소 조업식날에 군민2중창을...
 향옥: 뭐? 네가? 그 아저씨 독창가수야, 독창가수.
 향심: 알아요.
 향옥: 알면서 그런 약속을 해?
 경수: 그래야 몸값이 올라 갈게 아니요.
 향옥: 그래 저쪽에서 먼저 제기했니, 네가 했니?
 향심: 그건 제가 먼저... 서로 감정이 통하게 하자구.
 향옥: 먼저?... 감정을?...
 경수: 3대대장하구는 무엇을 약속했니?
 향심: 대화시를...
 경수: 글썄 경찰참모하구는 쌍무를 주자구 약속했다지 않소.
 향옥: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구나.
 경수: 이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한단 말ियो. 조업식날이 앞당겨 졌는데 망신하게 됐소.
 향심: 조업식날이 앞당겨 졌다구요? 어찌나...
 향옥: 어서 사라져라. 그러는게 핑계대기두 낫지.
 향심: 야, 언니 전 가지 않을래요.
 향옥: 뭐?
 경수: 할수 없지. 욕은 내가 먹어두 우선 도망치게 할수밖에... 향심아, 이 뒤길로 가자. 사람들이 보지 않게! 어서!
 △향옥과 경수 트렁크를 쥐여 주며 옥신각신한다.
 향심: 아저씨, 정확히 조업식이 언제인가요?
 경수: 래일모래다. 코앞에 닥쳐 왔어.
 향심: 야 됐어요. 우리 동무들이 떠났을테니까요.
 향옥: 경수: 영?
 향심: 걱정말아요. 다 제대로 될거예요.
 향옥: 너 기어코 언니와 아저씨를 망신시키겠다는 거냐, 영?
 경수: 망신이야 해둔거지.
 △이때 배고동소리 울린다.
 향옥: 아이쿠 늦었구나.
 △이때 1대대장 들어 온다.
 1대대장: 아니, 어디 떠났니까?
 경수: 허, 일이 터졌소.
 1대대장: 예?
 향심: 저 대대장동지, 무슨 일이에요?
 1대대장: 조업식이 앞당겨 저서 그러는데 편습을...
 우린 군민2중창을 약속했답니다.
 향옥: 저 이젠 노래를...
 1대대장: 압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독창가수였다는걸요.
 향심: 걱정마세요. 편습은 안해도 됩니다.
 1대대장: 우선 소리색같이 맞는가도 보고...
 향심: 딱 맞을거예요.
 1대대장: 지금 다른 대대에선 준비가 평장합니다.
 향심: 된단니까요. 저 지금 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수: (향옥에게) 저런, 거짓말을...
 1대대장: 그럼 안되겠군요. 다른 대상을 찾아야지.

향옥: 예. 갑자기 목상태가... 오래 걸릴것 같애요.
 1대대장: 알았습니다. 돌아 가겠습니다.
 향심: 아니 안돼요. 다른 사람과는... 맞춰 보자요.
 향옥: 너 도대체 어찌자는게냐.
 △이때 3대대장 들어 온다.
 3대대장: 아, 마침 향심동무가 있었군요.
 경수: 또 터졌군.
 3대대장: 예?
 1대대장: 동무는 어떻게 왔소?
 3대대장: 예술소조경연에서 군민종목이 제일 점수가 많다지 않나. 우린 대화를 약속했네. 그렇지요, 향심동무.
 향심: 예. 저...
 △이때 명호 들어 온다.
 명호: 아 어떻게들 여기에 왔다. 대렬참모동지, 향심동무를 좀 데려 가야겠습니다. 손퐁금반주를 부탁했습니다.
 3대대장: 뭐 손퐁금을?...
 명호: 하하, 이제 보니 모두 예술소조경연때문에 온 모양이구만. 미안합니다. 이미 저하구...
 경수: (참다못해) 여보게들, 후에 내 뺨을 칠셈치구 좀 돌아 가주게. 어서!(밀고 나간다.)
 향옥: 제가 동생교양을 잘못해놔서...
 군관들: 아니 왜 그러니까?
 향옥: 처녀매니 그럴수도 있겠지 하구 넓게들 생각해 주세요. (같이 밀고 나간다.)
 향심: 저 모두 기다리세요. 꼭 약속을 지켜 줘요.
 향옥: 너 정말!
 경수: 허 참, 예이! (나간다.)
 향옥: 그래 부끄럽지도 않니? 뻔뻔스럽게... 그래내가 저 많은 사람들과 다 결혼할수 있다는거냐, 영?
 향심: 결혼을요? 어마나... 언니 이젠 우리 동무들이...
 향옥: 나에겐 너 같은 동생이 없다. 어디서 날라리 바람이 잔뜩 들어 가지구 썩 사라져라. 온 인민반에 바람쟁이로 소문이 났다.
 향심: 예? 바람쟁이요? 어찌면...(속상해서 얼굴은 싸권다.)
 △국부조명속에 무대 전환된다.

제2경

△무대, 바다가 보이는 섬마을 동구길이다.
 △무대밖에서 염소울음소리가 들리는것과 함께 무대 밝아지면 정희, 금실, 수옥, 미경 염소를 끌고 재봉기, 토끼상자들을 들고 나온다.
 금실: 휴식! (나팔부는 흥내를 내며)따따따...
 수옥: 아이구 어께야. 고놈의 토끼새끼 모시구 올래기... 이크 또 오줌을 쌌구나.
 금실: 야, 여기로구나. 꿈속에도 그러 보던 곳이...
 정희: 우리 장군님께서 이 외진 섬초소에까지 오실

줄이야.
 처녀들: 글썸말이야.
 정희: 눈에 보이는것만 같애. 풍랑을 헤치고 달려오는 배머리에 서서여 손을 높이 드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미경: 만세! 만세! 부르며 울고 웃는 병사들의 모습이.
 금실: 정말 내 조국은 시련속에서 한손에 총을 잡고 우리 행복을 지켜 주었어.
 △이때 향심 나온다.
 처녀들: 아니, 향심이 아니냐. 향심아!
 순옥: 전보를 기다릴래기 눈이 다 빠질번 했다.
 우리 공장 초급당비서동지도 함께 왔어.
 향심: 뭐? 비서동지?
 미경: 방금 부대지휘부에 가셨어.
 향심: 야, 이걸 어쩌면 좋니?
 처녀들: 아니 왜 그러니?
 향심: 나 바람쟁이로 몰리웠어.
 처녀들: 뭐? 바람쟁이? ...
 금실: 너 경찰을 로숙하게 하지 못한 모양이구나.
 향심: 너희들두 한심하지. 어떻게 혼자서 다섯명이나. 처녀가...
 미경: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순옥: 야 답답하다. 도대체 어떻게 됐니?
 향심: 처음엔 잘됐지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통하게끔 작전했었는데 2중창이랑...
 미경: 멋들어진 생각을 했었구나.
 정희: 그래 내 대상자도 골랐니?
 향심: 응. 멋진 대대장이야.
 정희: 야, 난 됐구나. 숨이 나간다.
 처녀들: 난 어떻게 됐니?
 향심: 이젠 헛수고가 됐다.
 순옥: 하긴 향심이가 바람쟁이로 몰리웠으니 우리 평양처녀들을 다 그렇게 본게 아니야.
 금실: 까짓거, 우리가 뭐 누가 불러서 왔니? 여기서 토끼랑 기르구 재봉도 하면서 살면 될게 아니야.
 순옥: 하여간 일은 난처하겐 됐다.
 △처녀들 맥없이 주저앉는데 비서 들어온다.
 비서: 동무들! 아니, 왜들 그래요?
 향심: 비서동지!
 비서: 향심으로구나. 우리 경찰병!
 향심: 비서동지, 제가 그만 잘못해서...
 처녀들: 쫓겨 가게 되었습니다.
 향심: 그만 바람쟁이로 루명을 썼습시다.
 비서: 그래요? 호호호, 그거 야단났군요.
 처녀들: 어쩌면 좋습니까?
 비서: 호호호, 그럼 속시원히 한번 맞서보지요.
 자, 어서 몸단장들을 해요. 군관동무들이 오겠는데.
 처녀들: 예? 군관동지들이 옵니까?
 비서: 첫 인상이 중요해요. 어서요. 정희, 머리를 빗어요. 결정적순간인데, 호호호.

△처녀들 바빠 돌아치면서 단장들을 한다.
 △이때 정치위원과 군관들 나온다.
 비서: 동무들, 정치위원동집니다.
 정치위원: 이렇게 다 걸어온걸 차를 가지고 마중나갔됐군요.
 비서: 우리 처녀들이 병사들이 늘 걷는 이 길을 걸어 보겠다구 해서...
 정치위원: 아, 이 무거운것들을 지구... 이거 염소두 토끼두 있구만.
 금실: 새 품종의 우랑종입니다. 크면 7kg 이 넘습시다.
 정치위원: 고맙소. 이걸 우리에게 주려구 가져 왔소?
 금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정치위원: 아니 동무네가 기르겠단 말ियो?
 정희: 우린 뭐나 다 할수 있습니다. 재봉도 하고 수영도 그리구 태권도도 잘합니다.
 처녀들: 우리를 쫓지 말아주시시오.
 정치위원: 그러면 여기서 살겠단 말ियो? 하, 여기 섬초소는 해풍이 세차고 파도소리만 들리는 척박한 곳인데 도시처녀들이...
 처녀들: 압니다. 그래서 입대하자는겁니다.
 정치위원: 입대라, 하 그러자면 집이 있어야겠는데.
 순옥: 집도 우리가 짓겠습니다.
 명호: 아, 우리들이 있어가지구야... 집은 우리가 짓겠습니다.
 정치위원: 그럼, 이 동무들의 입대를 승인하자는건데. 명호동무!
 명호: 아 그거야
 향심: 군관동지들, 이미 약속했던 군민예술소조련습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자 정희동무.
 정희: (손풍금을 메고 나서며)전 반주를 할수 있습니다.
 명호: 아, 그러니 동무가 손풍금수로구만요. 내가 그새 손풍금수를 얼마나 찾았대구요. 향심동무, 하하하 이렇게 된걸...
 △모두 유쾌하게 웃는다.
 향심: 1대대장동지, 2중창을 약속했지요.
 정치위원: 우리 독창가수하구? 아마 대상자가 없을게요.
 미경: 저... 저하구 노래를 견주어 보지 않겠습니까?
 1대대장: 아, 동무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독창가수요?
 미경: 리미경이에요.
 1대대장: 우리 소리 맞춰서 다른데를 꼭 누릅시다.
 미경: 좋아요.
 금실: 전 대화시대본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3대대장: 어디 봅시다. 아, 제목이 좋습니다. 《우리 장군님 걸으신 최전열길이어》 3대대로 갑시다. 마음에 듭니다.
 금실: 향심아, 마음에 든대.

순옥: 향심아, 난...

향심: 경찰참모동진 무용을 요구했지요?

경찰참모: 군중무용이 점수가 제일 많아 나서...

순옥: 그건 제가 배워 줄 수 있습니다.

향심: 정희야, 손풍금반주!

△손풍금반주에 맞춰 순옥 춤을 춘다.

△이때 군관이 들어 온다.

군관1: 정치위원동지, 금방 출장에서 돌아 왔습니
다.

정치위원: 왜 이제야 왔소. 음 유감인걸. 동무는 정
찰대상에서 빠졌단 말이요.

향심: 아니 안빠졌습니다. 래일 출장에서 돌아오게
되어있다고 해서...군관동지, 제가 기다렸습니
다. 저...

정치위원: 빈틈이 없었군. 평양에서 온 처녀동무요.
앞으로 사귀어 보지 않겠소? 금덩이요.

군관: 예? 하하하. 좋습니다. 사귀어 보겠습니다.

△모두 유쾌히 웃는다.

비서: 정치위원동지, 이제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정치위원: 동무들, 방금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
서 전화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두: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정치위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섬초소를 다
너 가신 후 어려운 자연조건에서 사는 우리 병
사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어 마음을
쓰시는데 평양에서 자란 처녀들이 내 마음을
받들겠다고 그곳 섬초소로 찾아 가는데 자존심
세고 도고한 총각군관들이 어떻게 맞아줄지 모
르겠다고 하시면서 사랑문제는 최고사령관도
명령을 할수 없으니 잘 의논해서 한명이라도
섬섬하게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부
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최고사령관동지!

처녀들: 비서동지!

군관들: 정치위원동지!

명호: 정치위원동지,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려 주
십시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녀성혁
명가들을 맞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병
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1대대장: 우리들은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총
과 함께 살자구 군인선서를 한 최고사령관동지
의 총대입니다. 그 총대를 함께 쥐고 최고사령
관동지를 결사옹위하자고 찾아 왔으니 어찌서
반갑게 맞아 주지 않겠습니까.

군관들: 환영합니다! (거수경례를 한다.)

처녀들: 고맙습니다. (인사한다.)

향심: 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처녀들의 마음은 한
결 같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군인의 길동무가 될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
격도 취미도 그리고 생김새도... 오�히려 부담으
로 되면 어찌겠습니까.

명호: 향심동무,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최고사
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
까.

비서: 군관동지들, 지금 우리 온 나라 인민들은 언
제나 이곳 최전연군인들과 함께 서 있는 심정
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처녀들도 그래서 대
동강가에 오각별을 새기고 떠나왔답니다. 군인
의 안해가 된다는것은 목숨까지도 바칠수 있는
그런 길인줄 잘 압니다. 뜨겁게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 하시게 총대가정
을 꾸려 주세요.

군관들: 고맙습니다.

경수, 향옥: 향심아, 그런걸...(그러안는다.)

정치위원: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제 동
무들이 다 약속되면 저 경치 좋은 바다가에 세
상이 들썩하게 잔치상을 차려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예?! 최고사령관동지!

정치위원: 이런 일은 오직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병사들
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중의 특전인것입니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의 축복속에 전설 같
은 행복의 레식을 올립시다.

△군악소리 울린다.

처녀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답게 남편들과 함께 최고사령관동지
를 결사옹위하며 싸워 나가겠습니다.

△방창

세상에 고운 처녀 그 누구나
장군님 병사를 만드는 처녀
세상에 아름다움 그 빛이나
장군님께 기쁨 드릴 오직 한 마음

△환영곡 군악소리 높이 울린다.

△아름다운 바다경치가 펼쳐 진다.

-무대 서서히 어두워 진다-

새 세기와 공민증

전승일

세계를 둘러보느라면
누구는 승용차를 끌고
누구는 별장을 이고
누구는 절망의 빈 구역을 둘러 메고
백년세월앞에 마주 설 때
나는 심장우에
작은 공민증 하나 품고 나섰다

억만의 사람들이
제나름의 희망을 걸고
일시에 붐비며 들어 서는 새 세기
나는 이 작은 공민증과 함께
백년세월의 새 문턱에 들어 선다

때로는 아픔에도 젖었고
때로는 기쁨에도 젖으며
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해온 공민증
감히 묻지 말아라
이 공민증 하나 품고 나선
나의 백년미래를 놓고

생각 깊은 이 시각
내 한자한자
이 공민증의 글줄을 마음속에 읽어 보나니

이름, 난날, 사는곳...
오 밀물처럼 파도쳐 오는
불덩이 같은 세월아
이 행성에 대고
대답해 달라 나의 공민증아
너처럼 이 강토를 그리안고
련인처럼 몸부림친것이 있었더냐
너처럼 제 심장을 내대서라도
이 강토의 의지를 산악처럼 들어 올린것이
있었더냐

나의 공민증
때로 이 이름이 허기질 때도 있었다
때로 이 난날을 잊고 살 때도 있었다
때로 이 사는 곳이 차거워 질 때도 있었다

하나 죽지 않았더라 이 공민증은
단 한자 퇴색되지도 않았고
이 세기의 영웅증서처럼 우뚝 일어 섰더라

너는 력사의 검증을 받은 공민증
만대력사가 그리도 소원하던 인간존엄이
너에게서 금옥처럼 빛을 뿌렸고
만대력사를 우롱하던 제국주의 사나운 채찍이
너에게서 산산 꺾어 저 휘뿌러 졌거니
너는 이 행성우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와 승리의 증서

나에게 이 공민증을 안겨 주자고
우리 수령님 백두의 흰 눈을 다 녹이시며
한생의 피를 바치고 넋을 바치시였거니
오늘은 우리 장군님
강토 천만리를 누벼 가시며
목숨처럼 이 공민증을 지켜 가신다

내 무엇이 두려웁고
내 무엇이 부러우랴
이 공민증이 우리의 《광명성 1》호를
저 하늘에 쏘 올렸고
이 공민증이 천년 잠을 두드려 깨우며
천리옥답을 기적같이 펼쳐 놓지 않느냐

이 공민증을 품고 폭풍쳐 달려
우리 처녀가 세계의 《너왕》이 되고
이 공민증을 품은 인간들이
장군님 만세로 이 행성을 놀래우며
강성대국의 쇠북소리 메아리쳐 울리지 않느냐

새 세기여 너의 새 문턱을 넘어 서는
이 공민증앞에 축복을 올리라
너의 백년천년 세월을
사회주의 붉은 노을로 아름답게 물 들여 갈
아 장군님 조국의 이 공민증만이
21세기 네앞에 가장 힘 있게 들어 설
정의의 출입증이다!

언제

윤경찬

정희! 그동안 잘 있었소?

정은 평양과 사랑하는 동무의 결을 떠나 여기 《사》수력발전소로 내려 온지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청춘시절의 1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나날에 생활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심장속깊이 새겨 안게 되었소. 인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까지도 믿고 사는데 습관된 동무에게는 새삼스레 들릴수도 있겠지만 난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였던 말이요. 애인에게 보내는 총각의 편지가 서두부터 너무 요란하다고 동무는 혹시 나무람할지 모르지만 삶의 참된 진리를 자기의것으로 받아안았을 때의 가슴 벅찬 환희를 리해해 주기 바라오.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오. 내 이제 차근차근 다 말하겠소.

×

내가 동무와 헤어져 《컴퓨터에 의한 수력언제의 균렬감시 및 조종신호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고향마을에 있는 《사》수력발전소로 현지연구를 떠난것은 모란봉기슭에 진달래가 만발하던 지난해 봄이었소. 전기공학자인 동무도 아다싶이 언제의 여러 개소에 전자수감장치를 설치하여 언제의 균렬을 제때에 찾아 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게 하는 중요한 연구과제였소. 그 연구과제가 처음으로 나에게 맡겨 졌을 때 난 주저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었소.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대학시절 아버지가 나에게 준 과제였기때문이었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첫 사랑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우리들사이에 장기출장은 섭섭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었지만 난 아무 의견없이 연구소를 떠났던거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연구를 훌륭히 완성해서 고향사람들앞에는 물론 연구소에도 나의 명성을 시위하리라는 탐구자의 야심이 은근히 나를 부채질해 주었었지.

지금도 나에게서는 그때 평양역에서 헤어 지면서 동무가 하던 말들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 오군하오.

《영진동무, 꼭 성공하세요! 그러구 빨리 돌아오세요.》

《아버지가 발전소 지배인인데 제 아들의 연구사업이야 잘 도와 주겠지.》

난 동무와 일시나마 헤어지는게 알찌근했지만 대범한 기색을 지어 보였지. 발차신호가 내리고 렬차원들의 긴 호각소리가 역구내에 울릴 때에야 동무는 트렁크를 내 손에 들려 주며 함박 정어린 어조

로 말했었지.

《기다리겠어요. 전기의 법칙에두 있지요. <음전기는 양전기로 향한다>》

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다는 동무의 진정어린 목소리는 내 가슴에 마디마디 파고 들었소. 그리고 그 진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연구를 완성하고 돌아 오겠다고 생각했소. 솔직히 난 그때 우리가 몇달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것이라구 믿었했소.

...

내가 고향으로 내려 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아버지였소.

《그러니 책상앞에 척 앉아서두 언제의 건강상태를 제때에 진단할수 있단 말이지. 용타! 영진아! 난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로 오지 않아 섭섭하긴 했다면 그대두 믿었다. 아무렴! 발전소집 자식이야 어디에 가서든 언제를 위해 살아야지.》

그날 저녁 한잔 술에 거나해 진 아버지는 모여왔은 친지들앞에서 노래까지 불렀소.

동무는 아버지가 왜 그리도 나의 귀향을 기뻐했는지 그걸 알자면 아무래도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이 발전소와 운명을 함께 해온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 같소.

이건 언젠가 나의 아버지가 들려 준 이야기요. 아버지는 나에게 이 발전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때면 언제나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시작하곤 했소.

×

...우리 집안은 네 할아버지때부터 이 발전소와 운명을 함께 해 왔다. 왜놈들이 망한 후부터 발전소의 주인으로 된 너의 할아버지는 노상 발전소에 붙어 살다싶이 했단다. 그래서 난 어릴적에 아버지가 생각나면 발전소를 찾아 가곤 했다.

《아버지, 여기선 뭘 하나?》

《전기를 만든단다.》

《전기는 어떻게 생겼나?》

《전기는 발전기에서 생긴단다.》

《아니, 어떻게 생겼나?》

《허허 자식두, 발전기에서 생긴다는데.》

락심한 나는 한참 눈을 깜박거리다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물었다.

《아버진 전기를 보았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그대두 못하는

일이 없지.》

《그럼 요술할아버지와 같구나.》

그제야 어린 아들의 말뜻을 짐작한 아버지는 곁
곁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그래. 그 요술할아버지를 아버지가 만든단
다.》

《그럼 아버지가 더 세구나.》

《그래 원복아! 우리 저 언제우에 올라 가 볼
가?》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자 아버지는 나를 한손에
안고 언제의 경사면에 드리워진 쇠사다리를 타고
언제우로 올라갔다.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장쾌한
광경이었다. 어린 마음이 받아 안기에는 너무나 크
나큰 세계였다. 호반의 푸른 물은 조금만 더 차면
언제를 넘으리만큼 만 수위로 찰랑거리며 눈이 모
자라게 펼쳐져 있었다. 산골에서 나서 자란 나에게
는 첫눈에 반해버릴만큼 넓고넓은 바다였다. 잔잔
한 수면우에는 옅은 물안개가 피어흐르는데 흰 물
오리들이 한가롭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안개발속
으로 언뜻언뜻 바라보였다. 문득 한줄기 서늘한 바
람이 불자 잔잔하던 수면우에 물이랑이 생겨 나고
안개는 순식간에 걷혀 버렸는데 수십마리의 물오리
들은 일제히 후드득거리며 하늘로 날아 오르는것이
였다. 나는 머리를 돌려 우리가 올라 온 쇠사다리가
놓인 쪽으로 다가섰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 기고 다
리가 후들후들 떨려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어 잡
았다.

《아버지, 어지러워!》

《일없다. 눈을 뜨고 저 멀리를 봐라!》

나는 고개를 젓히고 하늘부터 바라보았다. 땅우
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 왔는데도 하늘은 아직 높은
곳에 있었다. 얼마나 더 올라 가야 하늘에 닿을수
있을가. 나는 아버지의 말대로 하늘과 땅이 맞붙은
멀리에서부터 천천히 눈길을 내리우며 아래를 굽어
보았다. 언제우에서 내려다 보니 모든게 한눈에 안
겨 오는데 그것들은 장난감처럼 작아보였다. 사람
이며 집이며 까치둥지가 아득히 울려다 보이던 들
메나무며... 모든것이 작아 보이는데 내가 서 있는
언제만은 밑에서 울려다 볼 때보다 더 커진듯싶었
다.

《아버지, 언제는 세상에서 제일 크나?》

《그래. 제일 크다. 그러구 제일 귀중하단다. 너
보겠니?》 하면서 아버지는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그 갈피에서 무슨 그림 같은것을 내앞에
펼쳐 보이는것이였다.

《이건 뭐나?》

《우리 나라 국장이란다. 봐라. 여기에 언제가 있
지. 글씨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의 국장에다 이 언
제를 새겨 주시었구나. 처음에 이걸 보니 어찌 꿈만

갈던지. 이젠 이 언제가 우리 목숨이나 같구 나라와
같단다. 그러니 네 말처럼 언제는 세상에서 제일 크
고 귀중한것이지. 원복아! 너도 이 다음에 크거
랑 언제의 주인이 돼야 한다. 알겠느냐?》

나는 목숨이니 나라니 하는 아버지의 말을 다 리
해할수는 없었지만 무작정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절절한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에서 꼭 아버지
의 말대로 살아야 한다는 무조건적인것을 느꼈기때
문이라고 할가. 하기야 내 나이 다섯살에 아버지가
왜 그토록 언제를 사랑하는지 어찌 다 알수 있었으
랴.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이 가서 진지도 3년이 지난
어느 명절날이였다. 발전소에서는 그날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들놀이 나가기로 했었다. 공교롭게도 아
버지는 그날 근무가 되어 못 간다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물론이고 나도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래간만에 씨름솜씨를 보이
게 되었다면서 기뻐하더니 갑자기 근무라는건 무슨
소린가.

아버지는 락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를 못
본척하고 뿌루통해서 신발코숭이로 땅만 허비는 나
에게로 다가왔다.

《가서 잘 놀아라. 아버지 언제곁에 있는게 더 좋
단다.》

아버지가 한번 결심하면 어쩔수 없는것이여서 나
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났다.

들놀이는 호수가에서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팔뚝
같은 쏘가리를 삼아 돌가마에 제창 집어 넣었고 다
른 한쪽에서는 씨름이며 윷놀이, 사람찾기로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뱀이 쫓려 씨름판에서 떠나지
못했다. 발전소지구에서 씨름군으로 소문난 아버지
가 그 자리에 없는것이 서운해서였다. 공무직장에
서 일하는 박아저씨가 제노라고 으시대는데 더는
맞설 사람이 없으니 1등상으로 라지오를 그 아저씨
가 가질건 불 보듯 뻔했다.

(아버지가 왔으면 라지오를 탔을텐데.)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단단히 버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풀밭에 음식들을 쭉 차려 놓고
작업반별로 모여 앉았다. 다들 어려운 산림인데도
맛 있는 음식들을 푸짐히 해가지고 나왔었다. 우리
집만 해도 하루 세끼 강냉이밥이었지만 오늘날은
아버지뭇을 많이 내놓고도 찰떡이랑 지짐이랑 닭알
볶음이랑...

어른들이 술잔을 한고패 돌릴 때였다. 발전소쪽
에서 혈떡거리며 뛰여 오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들 어디 갔다 늦었겠지 하고 다들 심상히 생각하였
다.

그런데 저고리 앞섬을 활 열어 제낀 그 사람은
멀리서부터 손을 내저으며 소리치는것이였다.

《큰 일 났소! 반동놈들이 발전소에...》

험악한 기상으로 숨이 턱에 닿아 달려 온 그는 땅바닥에 어루러지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서 처음엔 모두 아연해 졌다. 그러다가 그의 어깨죽지에 검붉은 피가 내배인 것을 보고서야 사태를 짐작했다.

《반동놈들이 언제를... 폭파하겠다구... 원복이 아버지가 그만... 아! 원통하오!...》

호수가의 즐거운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제일 먼저 발전소를 향해 달린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코고무신 한짝이 벗겨 졌지만 그것을 주을 생각도 않고 나머지 한짝마저 벗어 버리고는 맨발로 달리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신발을 주으려고 달려 나가며 소리쳤다.

《엄마야, 같이 가자!》

쨍쨍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머리위로, 정적에 잠긴 바다 같은 호반위로 울려 퍼졌다.

엄청난 사실앞에 한순간 굳어 섰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발전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사태라도 난듯 싶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호수가에는 사람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들이 퍼 놓았던 음식그릇들만 주르르히 날려 있었다. 발길에 채운 술통이 텅굴고 돌아가마가 얹어 졌을뿐... 그토록 발전소는 누구나 자기의 운명을 엮고 사는 소중한 것이었다.

나도 사람들속에 끼워 달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다는걸가?)

언제 가까이 당도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통곡소리를 들었다. 술한 사람들이 감사랑(언제의 균렬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입구에 몰켜 서있다가 나에게 말 없이 길을 퇴위 주었다. 누군가의 손길에 떠밀려 앞으로 나간 나는 감사랑으로 들어 가는 철문 옆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알아 보았다. 얼굴이며 옷자락이 온통 피투성이였다. 마지막 숨을 몰아 쉬던 아버지는 나를 보자 겨우 입술을 놀리는 것이었다.

《언제를... 잘... 지켜라!》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난 아버지가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수 없었다.

저녁에 집을 찾아 온 조객들중에는 씨름에서 상으로 탄 리지오를 들고 온 공무원장 아저씨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장사 같은 형님이 그따위 반동새끼들 칼에 쓰러지다니.》

언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앞산마루에 아버지를 안장했다. 지금껏 애써 믿으려 하지 않던 그 불행앞에서 나는 아버지를 묻지 말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흐느끼기만 하는 내결에 당위원장이 저씨가 다가왔다.

《이젠 이걸 네가 간직하거라. 아버지품속에 있던 거다.》

그것은 아버지가 언제우에서 나에게 보여 준 우리 나라 국장이었다.

그것을 품속에 간직하고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당위원장의 당부를 어린 마음에 새겨 들으며 나는 그때 갑자기 어른이 된듯 싶었다.

그 이듬해 8월 수령님께서 우리 발전소를 찾아오시었을 때는 내가 인민학교졸업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책가방을 둘러멘채 발전소를 향해 달려 갔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자면 인제가 든든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 거대한 언제는 참으로 큰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뜻 깊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여서 수령님말씀의 깊은 뜻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다. 하지만 명백히 깨달은것은 수령님께서두 우리 아버지처럼 언제를 몹시 사랑하신다는것, 아니 언제가 안고 있는 크나큰 의미를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언제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처럼 한생을 이 언제에 바치겠다는것을 맹세했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한 나는 이 발전소로 돌아 왔다.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던 날에는 언제를 배경으로 결혼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사진첩의 맨 앞장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나라 국장을 붙여 놓았다. 그래서 사진첩을 본 사람들은 무슨 국가문건처럼 요란스럽다고 말하곤 했다. 하긴 사진첩에는 언제와 운명을 함께해 온 한 가정의 력사가 담겨 저 있었으니 요란스럽단 말을 들을만도 했다...

《영진아! 너도 크거들랑 언제를 위해 한몫 하리라 고 나는 믿는다...》

×

정희!

사실 난 평양을 떠날 때까지만 해두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언제에 애착을 가지지 못했댔소. 그저 연구과제나 끝내고는 동무의 결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생각뿐이었지.

그러나 과학의 열매란 언제나 노력에 정비례하는 건 아니였소. 난 발전소에 내려 온 날부터 언제에 붙어 살며 연구를 심화시켰지만 점점 더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것만 같았소. 힘 겨운 탐구의 날과 달이 흘러 갈수록 연구소를 떠나올 땐 손 바투 잡힐듯 싶던 성공의 무지개가 먼 하늘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것만 같아 난 날마다 속이 타 들어 갔소.

실험으로 밤을 밝힌 어느날 새벽, 나는 머리를 식힐겸 언제우로 올라 갔댔소. 동틀 무렵이어서 거대

한 언제는 넓고넓은 호수를 태연히 그리안고 날더러 아무 걱정 말라는듯 자기의 용자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더구만. 그날 따라 나에게는 언제에 비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 보이더군. 중력에 의해 그 안전이 담보되는 언제, 인간의 손으로 창조한것에 제일 덩치 큰 콩크리트구조물을 나의 빈약한 지식으로 타진해 보려 한다는게 그 어떤 불가항력과 맞서려는 어리석은 시도처럼 생각되더라 말ियो. 마음 같아서는 이제라도 모든걸 포기하고 연구소로 올라 가고 싶었소. 예전에는 언제를 만년대계로 담보하는 이 연구과제가 대단히 의의 있는것으로 느껴 졌지만 연구가 난관에 봉착한 지금은...

그것으로 당장 전력생산이 높아 진다면 몰라도 먼 장래를 예견하고 언제연구에 시간을 바친다는것은 어찌 보면 인생의 낭비처럼 생각되더라 말ियो.

하지만 난 머리속에 갈마드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애써 털어 버리며 자신을 다잡았소.

(물러 설수 없다. 물러 설 자리도 없다.)

그러면 마음속 어느 구석에선가 또 이런 귀속말이 들려 오더군.

(연구를 완성할 무슨 담보가 있는가. 수명이 오래된 언제가 조금씩 실금이 생기는거야 어쩔수 없는일이 아닌가. 물질세계의 모든것은 변한다는거야 변증법이 아닌가.)

난 마음을 무겁게 내려 누르는 그 모든것을 잊고 하루만이라도 폭 쉬고 싶었소. 그래서 여기 오면서부터 버르던 고기잡이를 해보리라 작정했지.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산중의 호수에는 물고기가 육식거리었소. 여기 사람들은 호수에 황소만한 물고기도 있다고 하더구만. 하긴 언젠가 굉장히 큰 물고기가 취수구에 막혀 소동이 일어 났던걸 보면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것 같소.

나는 전마선을 빌려 타고 수산분조의 애젊은 청년과 함께 호수의 한 복판으로 노를 저어 갔소. 파아란 수면에는 우중충한 산발들이 거꾸로 잠겨있는데 매생이가 일으킨 물결을 따라 산발들도 춤추듯 흔들거리더구만. 동무와 함께 타군 하던 대동강의 뽀트가 아니라 바다 같은 산중의 호수에서 전마선을 타고 있으니 대기의 청신함에 머리가 핑도는것 같았소. 우린 적당한 장소를 골라 넓게 그물을 치군했소. 물고기가 어찌 많은지 그물질 몇번에 배 밑창에는 발 놓을 자리마저 없어 지더구만.

그런데 잡힌것들을 보면 기름고기뿐이었소.

《젠장, 쏘가리나 잉어 같은건 안걸리구 요파위 송사리 같은것들뿐이야.》

《그런 큰 고기가 쉽게 걸리나요. 이것두 맛이 썩 좋아요.》

수산분조청년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분이 동등떠 있었다.

《그런데 이것두 빨리 처리해야지 변하기 쉽겠소.》

《됐어요. 이걸 저 언제우에다 말리우지요.》

운동장처럼 넓은 언제우에는 삼복철이여서 맨발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콩크리트바닥이 달아 있는데다 바람까지 선들선들 불어서 물고기건조장으로 는 그저 그만이었소.

《종기는 한데 지배인동지한테 걸리면 좋지 않은데.》

내가 고개를 기웃거리자 그 청년은 피씩 웃더군.

《체, 형님이 지배인동지 아들이라는걸 내가 모르는줄 알아요?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라더니 언제를 아끼는건 꼭 같군요. 하지만 일없어요. 제격 말리우고 내가 싹 청소해놓겠어요.》

배를 기슭에 대자 그 청년은 나를 안심시키며 제먼저 언제우로 올라 가는것이였소.

그런데 일은 참 공교롭게 되었소. 언제나처럼 감사랑을 돌아 보던 아버지가 언제우에까지 올라올줄이야...

아버지의 기상은 대번에 험악해 졌소.

《이건 뭐요?》

그날에 앉아 땀을 들이느라고 돌아 앉았던 나는 아버지의 호령소리에 화닥닥 놀라 일어 섰소.

《네가? ... 이걸 네가 널어 났니?》

《물고기가 변할것 같아서...》

아버지의 노성은 나의 말허리를 단번에 툭 잘라버렸소.

《이놈아! 고기가 변하는건 걱정돼두 언제가 변하는건 무섭지 않느냐?》

난 아버지의 분노가 리해되면서도 수산분조청년 앞에서 육 먹는게 창피스러워 물고기들을 와락와락 걸어 모으며 변명했소.

《아버지두 참, 언제가 당장 못 쓰게 되는것두 아닌데...》

《뭐라구?》

그제서야 난 언제를 그토록 신성시하는 아버지에게 언제연구사로서뿐 아니라 자식으로서 안할 말을 했다는 후회가 갈마들더구만. 수산분조청년은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뭇한지 슬그머니 사라지더군.

아버지는 격해 진 감정을 녹잡히려는듯 담배를 꺼내 드는데 담배불을 붙이는 큼직한 손이 보기 딱할 정도로 떨리는것이였소.

후-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내뿜은 아버지의 담배연기가 순식간에 허공으로 흩어 저 버리는데 지금껏 간직해 오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마저 그 담배연기와 함께 다 빠져 나가는것만 같이 생각되어 난 입술을 깨물었소.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아버지는 물고기 말리우던 어지러운 자리를 아픈 눈길로 바라보다가 두벅두벅 발길을 옮기는것이였소.

어디서 가져오는지 물바게쓰와 걸레를 들고 온 아버지는 호수의 물을 퍼올려 그 자리에 끼얹기 시작하더군. 아버지의 말 없는 행동은 어딘가 엄숙하게까지 느껴 저 난 내 손으로 하겠다고 감히 만류하지도 못했소. 언제를 어지럽혀 놓은 내 잘못을 흔적까지 없애려든듯 짹짹 물을 끼얹던 아버지는 어쩔바를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걸레를 내미는 것이었소.

《땀아라!》

거역할수 없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콘크리트바닥을 닦아 내기 시작했소.

근엄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 보던 아버지는 한참만에 낮으나 무게 있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소.

《넌 내가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언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을수가 없구나. 나라의 전력사정은 점점 긴장해 지는데 우리가 강성대국을 건설하체두 언제가 든든해서 전기를 뽕뽕 내야 할게 아니냐. 그런데 넌 언제연구사라는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생각 깊은 눈길로 주위를 둘러 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소.

《모래와 자갈을 물로 씻어서 만년대계로 타입한 거대한 언제두 끄떡 없겠거니 안심하고 내버려두면 실금이 생기고 나중엔 무너지고 만다. 인간이 창조한것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것이란 없거든. 오직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땀 흘려 공력을 들여야만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는 법이다. 그러니 든든하다고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믿음이 갈수록 더 아끼고 정성을 고여야 한다.》

천천히 언제를 내려 가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착잡한 눈길로 바라우며 눈길로 바라우며 난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소. 아들에 대한 실망과 자기가 신성시하던것을 모독당한데서 오는 울분으로 하여선지 아버지는 그날따라 별스레 늙어 보이더군.

난 그날 이 발전소를 쉽게는 떠날수 없다는것을, 연구를 완성하기전에는 설사 한생이 걸린다 해도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것을 피로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소. 만약 내가 여기서 훌 떠나 버린다면 평생 부모들앞에 그리고 고향사람들앞에 갇을 길 없는 정신적빚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엄연한 진실에 눈 뻘뻘한 말이요. 그러니 어찌겠소. 사방산으로 둘러 막히고 강물소리 소란한 외진 산골마을이 청춘의 꿈으로 가슴 부풀던 나의 앞길에 설사 찬란한 미래는 약속해 주지 못한다해도 난 여기에 남아야 한다고 결심했소.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나를 괴롭혔소.

그럼 정희가 이 산골에 오겠다구 할가, 고생을 모르고 자란 평양처녀가...

그날도 나는 밤 늦도록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마

주하고 점도록 앉아 있었소. 수감장치들의 위치를 정하는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아침부터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만 눈앞에선 자꾸만 동무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더라 말이요.

휘영청 달 밝은 밤, 어깨 나란히 거닐던 대동강유보도, 머리를 스칠듯 산들바람에 흐느적이던 푸른 버드나무가지...

《정희, 우리 날마다 모양이 변하는 저 달이 아니라 언제나 한모양으로 불타는 태양처럼 변함없이 살자구.》

《변함없이 열렬한 태양처럼,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절을 추억으로만 안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사랑의 불변을 믿은것이 과연 한갓 꿈이었던단 말인가.)

시간 가는줄 모르고 사진을 들여다 보던 나는 컴퓨터화면에 새겨 가던 프로그램을 지워 버리고 무의식적으로 건반을 눌러 화면에 글을 써놓았소.

《모든것은 변한다!》

화면에 새겨 진 글자들은 그 어떤 불길한 환영처럼 나의 망막에 안겨 오는 것이었소. 초점 잃은눈으로 멍하니 글자들을 들여다 보던 나는 드디어 마음을 굳게 먹고 동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소.

《정희, 대학시절 우린 물질세계의 모든것은 변한다는 변증법을 배웠소. 그때 우린 모든것이 변해도 우리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것이라는 서로의 믿음을 즐겁게 확인했었지.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본의 아니게 내 가슴에서 허물어 지고 있소. 어떤 원인으로든 세상의 모든것은 변하는 법이요. 난 여기에 와 있는 기간에 사랑보다 더 신성한것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었소. 그래서 난 이 발전소에 한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소. 난 첫 사랑을 지킨다는 구실로 동무에게 여기로 오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세계, 자기에게 습관된 환경이 있는 법이요. 그러니 날 잊어 주기 바라오...》

...

구름우에 올라 앉은 나는 하늘가 멀리로 뚱뚱 흘러 가고 있었소. 숨통치 같은 흰 뭉게구름우에 척 누우니 어찌나 편안하던지 평생을 그 구름장우에서 보내고 싶더구만. 그런데 갑자기 내가 컴퓨터화면에 써놓았던 글자들이 툭툭 튀어 나오더니 구름을 향해 날아 오르는 것이 아니겠소.

(잘못했구나. 아까 제각 지워 버렸어야 하는건데 도대체 저것들이 어찌자는걸까?)

그것들의 추격을 피해 달아 나고 싶는데 덩치 큰 구름장은 어찌나 게으름뱅이인지 도대체 빨리 달아나 주어야 말이지. 이건 말처럼 채찍으로 때려 몰수도 없고...

빠른 속도로 날아 온 글자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가지고 구름속에 푹푹 들어 박히는것이였소. 그러자 내가 타고 있던 구름장은 순식간에 모양이 변하며 허공중에 흩어 저 버리고 난 악- 소리를 지르며 하늘공중에서 떨어 저 내리고 말았소.

...

벌떡 깨여 나 보니 꿈이더구만.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더군. 정신을 차린 나는 다시 한번 놀랐소. 언제 들어 왔는지 아버지가 컴퓨터앞에 버티고 서 있는게 아니겠소.

책상우에는 늬밥통이 김을 문문 피워 올리며 구수한 쏘가리탕냄새를 풍기고 있더구만. 그 늬밥통은 공교롭게도 방금 내가 동무에게 쓰다 만 편지를 꺾 누르며 놓여 있었소. 컴퓨터화면에 띄여진 글과 아들을 번갈아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별스레 컴컴해 보았소. 틀림없이 편지를 읽어 보고 화면의 글이 어째서 띄여 져는가를 짐작한 모양이요.

《지워라!》

대번에 마음까지 얼구어 버리는듯 싶은 아버지의 저력 있는 음성에 기가 질린 나는 얼른 전자계산기의 건반을 눌러 글자들을 지워 버렸소.

《너 평양처녀와 헤어 지겠다는게 정말이냐?》

《...》

《대답해 바라.》

《예.》

난 저도 모르게 통명스런 목소리로 대답했소.

역이 막힌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두툽한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어성을 높이는것이였소.

《안돼! 너처럼 모든게 변한다는걸 절대화한다면 사람이 한생을 살면서 영원히 믿고 안심할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는게 아니냐? 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아냐가 말이다! 사내 마음이 그렇게 종이장 같아서야 어데 쓰겠니?》

아버지의 노성은 방안을 찌렁찌렁 울리며 나의 마음속에까지 공명되는듯 싶었소.

《그럼 난 어쩌면 좋아요?》

연구도 사랑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무력함에서 오는 안타까움은 나의 입에서 절망적인 웨침으로 터져 나왔소.

《그걸 나한테 묻느냐? 푹푹히 알아 두거라. 사랑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것에 절대로 성실할수가 없다. 넌 마치 그 어떤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사랑까지 희생시키며 그걸 장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첫 사랑도 지키지 못하는 네가 도대체 무엇을 신성시한다는거냐. 난 네가 사랑을 희생시킨 대가로 언제를 원망하게 될가봐 무섭구나. ...》

거칠게 숨을 몰아 쉬던 아버지는 문가로 발길을 옮기며 한결 온화한 어조로 덧붙이는것이였소.

《국이 다 식겠다. 네 어머니가 끓인건데 어서 저녁이나 먹고 연구에 전심해라. 지금은 잡생각이나 하면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준마를 타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달리는 때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의 전력사정을 해결하겠는가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오늘 감사랑에 들어가보니 벽체에 물기가 생겼더라. 이런 때 네 연구가 성공해야 어디에 실금이 가서 물이 새는지 제격 알고 대책을 세울게 아니냐.》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도 방안에선 안타까움에 젖은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소. 난 그 밤 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 지더구만. 그것이 설사 뼈를 깎는 호된 욕설이라 해도 거기에 심신을 통채로 맡기고 싶었소. 여태껏 소중한것을 망각하고 살아 온 나자신을 가장 모질게 타매하고 그 고통속에서 자신의 넋을 정립하고 싶었다고 할지....

난 컴퓨터의 건반을 누르며 아버지가 하던 말을 한자한자 화면에 새겨 넣었소.

《사랑을 지키라!》

그리고 기억단추를 힘 주어 눌러 놓았지. 이제는 그 글발이 지워 지지 않을것ियो.

×

며칠후에 난 평양에 다녀 오려고 결심했소. 연구소에 들어 가 참고서들도 보고 더우기는 동무와의 관계를 락착 짓기 위해서였소.

그날은 휴식일이여서 난 천천히 준비해 가지고 기차시간에 맞추어 집을 나섰소. 아버지는 어제저녁도 들어 오시지 않았고 아버지의 아침밥을 들고 나간 어머니도 아직 들어 오지 않아 난 허전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소. 역을 향해 얼마쯤 걸던 나는 구급차의 경적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소. 강기슭을 따라 발전소로 곧추 뻗은 포장도로로 하얀 구급차가 발전소쪽으로 질주해 가고 있더군.

(무슨 일이 생겼는가?)

불현듯 사방을 둘러 보니 골목골목마다에서 술한 사람들이 발전소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게 아니겠소.

저도 모르게 발전소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마주 오는 어머니와 만났소.

《어머니!》

《영진아! 마침 오는구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숨이 차는지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가쁘게 입을 열었다.

《언제에...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았다누나. ...3호취수관이 부식되었다더라. ... 그래서 오늘 취수관 보수전투를 하는데 어느새 소문이 퍼졌구나.》

난 어머니의 말을 더 듣고 있을수 없었소. 그래 트렁크를 덥석 넘겨 주고는 언제를 향해 달려갔소.

동무를 만나려 평양에 가던 길이라는것도 내가 지금 나들이웃차림이라는것도 어느새 잊어 버린채 ...

취수관을 보수하자면 취수문을 막고 용접으로 부식된 부위를 잘라 낸 다음 새 철판을 붙여야 하오. 그런데 급경사진 취수구안에 들어 가 일하는것도 문제지만 보다 위험한것은 취수문을 막았다 해도 일정한 량의 물이 흘러 내리는 속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것이 어려운 문제였소. 게다가 용접에서 생기는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못하면 위험을 초래할수 있었소. 그러니 당장은 나에게 그 어떤 안전대책도, 위험을 방지할 방도도 없었지만 가보지 않을수 없었거든.

발전소에 도착하니 술한 사람들이 발전직장앞에 모여 서서 저마다 들어 가겠다고 야단법석인데 《로동안전원》 완장을 두른 사람이 문앞에 버티고 서 있다가 나만은 폐회라고 생각했는지 길을 비켜 주더구만. 현장에선 아직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제 당장 어려운 전투가 벌어 질 장소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조용한 환경이었소. 다만 말없이 준비를 갖추고 있는 용접공들의 류다른 차림새와 비장한 얼굴표정들이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 지게 된다는것을 명백히 설명해 주고 있었소.

난 용접공차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소. 《아버지! 하루이틀 미루더라도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를 돌아 보던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소.

《우린 기다릴수 없다. 원인을 찾은 이상 하루라도 지체한다면 언제의 균열이 그만큼 커질게 아니냐. 안전대책을 세운다면 지체한 그 하루때문에 평생을 땀땀하게 살지 못할가봐 모두들 그게 걱정이 다.》

아버지는 내 어깨우에 한손을 올려 놓으며 어느때없이 온화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는것이였소.

《우리야 지금껏 이렇게 살아 오지 않았니. 위험한줄 알면서도 귀중하다고 생각되는것은 목숨을 내 대고라도 지키면서 말이다.》

무슨 말인가를 더 할듯 싶던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 서며 소리 치는것이였소.

《준비가 됐으면 시작합시다. 로동안전원동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오.》

난 무심결에 주위를 둘러 보았소. 현장에는 용접공들과 보조공들, 당비서와 기사장을 비롯해서 전투에 필요한 사람들뿐이였소. 영양제식당책임자 10년에 아직 몸이 뚱뚱해 지지 않은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녀인도 특식을 한버치나 이고 왔으니 그 역시 필요한 사람일것이고 방금 구급차를 타고 온 위생복차림의 의사선생도 여기에 필요한 사람인것

만은 틀림 없었소. 로동안전원이 다가오다가 나를 어느 부류에 넣을지 몰라 머뭇거리더니 그대로 지나쳐 버리었소.

(혹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속에 속한다면... 하지만 난 이 위험한 일을 중지시키려고 달려오지 않았는가.)

머리에 찬물을 끼얹었을 때처럼 등골이 서늘해졌소. 방금전에 아버지가 하던 말들을 상기하던 나는 온몸을 사로잡는 전률에 다시 한번 몸을 떨었소. 귀중한것일수록 소중히 지켜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똑똑히 깨달았던거요. 그런데 난 사랑을 지키기 힘들다고 연구사업이 어렵다고 포기할 생각부터 했으니 귀중한것을 위해 한몸 바치려는 이 사람들앞에 어떻게 땀땀이 설수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제는 조국이 아닌가. 성스러운 이 언제를 위해 내 무엇을 주저하랴.)

언제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수 없지만 앞으로는 자기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기쁜 마음으로 확신할수 있었소. 왜냐면 나의 운명이 언제와 대를 이어 필연적으로 련결되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깨달았기때문이요.

나는 맑고 청신한 아침공기를 폐장깊이 호흡했을 때처럼 심신이 거뿔해 지는것을 느끼며 아버지앞에 주저 없이 다가갔소.

《아버지! 제가 들어 가겠어요.》

아버지는 나의 태도가 믿어 지지 않는지 도리머리를 젖더군.

《거긴 위험해.》

《아버지, 제가 이제 물러 서면 락오자가 될게 아닙니까. 전 늦게나마 아버지의 큰 마음을 받아안고 싶습니다. 언제와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쩐지 목이 콕 메여 《전 꼭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하고 한마디 했을뿐이요.

나의 충혈된 눈길을 이윽히 지켜 보던 아버지는 다짐하듯 되묻는것이였소.

《그래 꼭 들어 가야 하겠니?》

《아버지, 절 믿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흔들며 간절한 눈길로 지켜 보았소. 그제야 아버지는 나에게 용접봉을 넘겨 주며 다심한 어조로 속삭이듯 말하였소.

《시간이 되면 나와야 한다. 알겠느냐?》

...

전투는 새벽에야 끝났소. 온밤을 꼬박 새워 피곤하였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소. 그다음으로 나는 언제우에 올라 갔소.

넓은 운무에 싸인 호수에서는 이따금 물고기들이 켜뼉거리는 소리만이 호반의 정적을 깨뜨리는데 언제아래서는 발전기소리, 물소리, 전류 흐르는 소

리... 생활의 거세찬 박동이 산촌의 청신한 새벽 대기를 헤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었소. 나의 눈앞에는 레사롭게 보이던 모든것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장엄하게 펼쳐 지고 있었소.

언제- 지심깊이 뿌리 박은 기초우에 산악처럼 거연히 솟아 있는 언제.

수위가 높아 저도 낮아 저도 물결이 아무리 출렁거리도 끄떡 없는 한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는 언제의 모습에서 나는 우리 조국의 래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변함 없는 기상을 보았소.

지금 나의 가슴속에서는 언젠가 아버지가 하던 말이 되새겨 지고 있소.

《든든하다고 변하지 않을거라고 믿음이 더해 질수록 정성을 더해야 한다. 사랑도 언제든 조국도... 왜냐면 소중한 그 모든것이 사랑으로 아름다와 지

구 더 완성되구 그리고 영원해 지기때문이다...》

언제는 결코 중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언제를 사랑하는 참된 주인들의 굳건한 마음에 의해 그 안전이 더 굳건히 담보되는것이요. 바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애국의 뜨거운 마음이 받들고 있기에.

정희!

생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여 내 마음은 언제처럼 든든해 졌소.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무는 언제의 기초를 담보해 주는 에프론(물받이 보조언제)처럼 영원히 내곁에 있어 주길 믿소. 기다리겠소.

주체89년 X월

영진 보낸

내 받아 안은 믿음은

-20대 청년박사의 수기중에서-

허일

내 받아 안은 믿음의 시작은
어느때부터였던가
철부지 소년이었던 나를
1중학교 교문안에 세워 준
그때부터였던가

아니면
중학생교복차림 그뿐이던 나를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종합대학 교문으로 불러준
그때부터였던가

돌이켜 보면
밤새도 깃을 접는 깊은 밤
실험실창밖에 남몰래 찾아 와
불 타는 열정으로
사색의 바다 헤쳐 가라
순간순간 힘을 주며 떠밀어 준 사랑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때면
땀에 젖고 눈물에 젖은 나의 얼굴
다심한 어머니 손길로 닦아도 주며

탐구의 벼랑끝까지 뚫아오르라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며
함께 잠 못든 믿음이어

아, 내 마음의 주춧돌이 되고
내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며
20대 박사로 나를 키워준
고마운 사랑
은혜론 품이어

내 받아 안은
해빛 같은 믿음
목숨 같은 그 믿음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가슴 펴고 내 떳떳이 말하리라
-20대, 30대 학사 박사가 되라!
-과학기술로 내 나라를 떨치라!
경애하는 장군님
룡남산시절에 하시였던 그 말씀
이 내 심장에 새겨 안은 그때부터였다고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발전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중국) 룽애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에서 발생발전할수 없다. 선행세대가 이룩하여 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옮겨 이어 받을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다.》

1920년대는 조선아동문학이 태동하는 시대적현실과 새 사조에 편승하여 그 근대적성격을 뚜렷이 갖추면서 새로운 경향성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문단적으로 우선 각종 아동문예지가 대대적으로 발간되고 이것을 무대로 하여 아동문학의 사상적경향성과 창작방법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문학작가군이 형성되고 특히 중반기인 주체14(1925)년부터 아동문학은 사회적인 관심속에 그 본격적발전을 가져 왔다.

조선에서는 주체8(1919)년 3.1운동이후 부르조아민족운동이 종말되고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었으며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노동계급이 자라나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1920년대에 들어 와 아동문학영역에서는 아동문학으로서의 고유한 형태적특성을 갖춘 동요, 동시, 동화, 아동소설 등이 활발히 창작되게 되었다.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발전의 특징적면모를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수 있지만 그가운데서 주목되는것은 수많은 아동잡지의 출현과 아동문학작가의 배출이라고 볼수 있다.

-아동잡지의 출현

이 시기 일반문단에 많은 동인지, 문예지가 쏟아져 나온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아동잡지도 역시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무렵에 앞을 다투어 등장했던 아동잡지들을 살펴 보자.

대표적으로 《어린이》[주체12(1923)-주체23(1934)]와 《신소년》[주체12(1923)-주체22(1933)]을 들수 있다.

이 두 어린이잡지는 조선아동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 아동문학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1920년

대 말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발간되어 나왔던 잡지는 무려 10여종이 넘는다. 이 시기 발간된 아동문학잡지를 놓고 보면 《어린 벗》, 《조선소년》, 《새벗》, 《소년계》, 《별나라》, 《소년조선》, 《신소년》 등이다.

1920년대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아동잡지가 대대적으로 련속 나온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

이 시기 발간된 아동문학잡지들중에는 물론 첫호만 내고 폐간된 잡지도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많은 잡지가 등장한것은 이 시기 아동문학계의 활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수 있게 하며 이러한 잡지를 무대로 하여 아동문학작품창작을 활발하게 벌려 나갔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아동잡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년운동단체와 련결되고 그들의 직접적인 후원밑에 간행되었다.

《어린 벗》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어느 한 사설교육기관에서 발행한것이며 《종달새》도 《어린 벗》과 같이 등사판으로 밀어 낸 잡지로서 어느 한 소년회관에서 냈던것이다.

이 무렵에 나온 잡지중에서 특히 《새벗》은 3만 부까지 발행됨으로써 이 시기 아동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었다.

《새벗》과 함께 《소년계》, 《아이생활》, 《별나라》 등 잡지는 초창기 조선아동문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문학사에서 연구될만한 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아동지들은 발행부수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 밑바탕에는 레외없이 반일항거정신과 애국애족의 감정이 깔려 있었다.

아동잡지들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결코 영리적인 목적에 있었던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과 열의에 의해서 움트고 싹 트것이었다.

소파 방정환은 당시 누구든지 개벽사로 주소성명만 통지하면 《어린이》 한권씩 거저 보내 준다고 신문에 크게 광고하여도 《어린이》 보겠다는이가 단 20명도 못되었을 때에 얼마나 상심되었는지 모른다고, 적은 힘이나마 우리의 정성이 헛되게 돌아가고 실패, 락망만이 닥쳐 올 때에 참말로 몇번이나 물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조선에서 근대아동문학운동의 개척자로 알려진 소파 방정환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도 당시 아동문학운동의 형편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난관과 일제의 모략속에서도 모

국어를 잃어 버린 어린이들에게는 모국어를 배워 주고 교과서가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나라를 잃어 버리고 울분에 싸여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애국심을 심어 주며 아동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그야말로 그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다.

이 시기 발간된 진보적인 아동잡지들은 사상적 경향성에 있어서 반일항거정신과 애국애민의 정신을 공통적으로 하면서도 《어린이》를 비롯한 《아이생활》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색채를 띤 잡지도 있었고 주체14(1925)년을 전후해서 새로운 무산계급의 문학,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영향을 받은 《별나라》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계급의식을 강조한 잡지도 있었다.

특히 이 사회주의적인 좌익아동잡지는 1930년을 전후하여 이 시기 아동문학활동을 좌우할만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크게 그 세력을 떨쳐 《어린이》, 《신소년》, 《아이생활》, 《새벗》 등 유력한 아동잡지들도 이에 눌리어 맥을 못 추었을만큼 독무대를 이룬적도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아동잡지의 경향성은 그대로 이 시기 아동문학운동과 작가, 작품의 사상적경향성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1920년대 아동문학은 그 경향성에서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민족주의적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일제에게 빼앗긴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식민지나라 어린이들의 고통과 설움, 울분을 토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급적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프로레타리아문학과 보조를 같이 한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인 아동문학은 그 사상적경향성에서 이리저리한 제한성을 나타냈지만 순수 부르췌아 아동문학과는 달 리 현실을 대하는 아동들의 사상감정세계를 아이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수많은 아동잡지들의 출현으로 하여 1920년대는 확실히 조선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적면모를 당당하게 갖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아동작가군의 형성

1920년대는 아동잡지가 대대적으로 발간된 시기였을뿐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아동작가들을 배출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어린이》잡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동잡지들이 연이어 나오고 아동문학작품들을 실을수 있는 지면이 그만큼 확대됨에 따라서 아동문학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시기 아동문학작품을 많이 쓴 작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화와 아동소설 및 산문부문에는 주로 방정환,

마해송, 연성흙, 고한승, 리정호를 비롯하여 김남주, 최병화, 송영, 동요부문에는 주로 윤복진, 한정동, 류도순, 윤석중을 비롯하여 정시용, 정열모, 박팔양, 고장환, 김태영, 류지영, 김병호, 권환, 박세영, 리원수, 아동극부문에는 송영, 윤석중, 최경화, 마해송 그리고 동요작곡에 윤극영 및 홍란파, 정순철 등이다.

이 시기 아동문학작가들이 수많이 출현하게 된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말할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시기 아동문학작가들이 대부분 아동문학작품창작에만 전념한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운동에 참가하면서 아동교양의 수단으로 아동문학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때문이다.

방정환, 마해송, 한정동, 연성흙, 고한승 등 소수의 작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성인문학에 관계하거나 잡지편집인, 언론인, 교육자, 사회운동가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것은 당시의 아동문학이 문학의 한형태로 명확히 분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는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동관의 확립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한층 더 큰 기대를 아동에게 걸고 있었던 당시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즉 성인 문학가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장래를 어린이들에게 기대하면서 동화, 동요에 손을 대였고 사회운동가는 그들대로 교육자는 또 그들대로 모두가 이런 태도로 아동문학에 관여했던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당시의 아동문학가는 모두 아동애호가 혹은 아동교육가로 예술을 위한 문학을 했다가보다는 민족을 위한 문학을 했다고 할수가 있는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아동문학이 작가문단으로 넘어가는 중간기의 과도적형태로서 습작문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문학자체발전의 합법칙성과도 관련된다.

1920년대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대한 애정과 아동문학에 대한 정열을 무기로 너나 할것없이 작품을 쓰고 발표하였다.

당시 아동문학에 대한 뚜렷한 견해와 방향이 없이 단지 작품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나 취미만이 선행되었던것이라든가 당시 아동문학을 성인문학으로 올라 가기 위한 한때의 연습과정으로 그릇되게 인식한 경향은 어쨌든 아동문학작가대렬을 확대하게 하였다. 따라서 작가의 량적증가에 비해 작품의 전반적질적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못했으며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요나 동화가 내용과 형식에서 낡은것을 되풀이하고있었다.

그러나 주체14(1925)년을 전후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시기를 벗어 날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잡지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아이생

활》등을 통하여 윤석중, 서덕출, 리원수, 윤복진 등의 동요작가와 리병화, 최경화 등의 동화작가들이 이 무렵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유망한 신인들의 배출로 처음으로 당시의 아동문학계는 청신한 기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의 연령은 당시 대부분 10대들로서 조선근대아동문학의 기수들로서 등장한 것임은 틀림이 없었다.

주체 12(1923)년에 창간된 잡지 《어린이》나 《신소년》은 새로 등장한 아동문학작가들을 키운 터전이었다.

동요작가 윤석중의 경우를 놓고 보자.

주체 13(1924)년 당시 서울보통학교 소학생이었던 윤석중은 그해 잡지 《아이생활》에 동요 《세계지도》를 발표한 때부터 이듬해인 주체 14(1925)년 10월호에 《오토기》가 《어린이》잡지에 발표됨으로써 아동문학문단에 당당히 등장하였다.

그는 주체 13(1924)년 당시 서울고등보통학교 3학년때 같은 학급 동무들과 어린이동인지를 만들어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어린이》와 《신소년》이 작품발표를 위한 지면을 제공하긴 했지만 열 편 그들의 의욕에 비해 당시의 잡지지면은 부족하기만 했다. 그 한가지의 불만으로 그들은 아동문학운동을 더욱 활기 있게 하기 위하여 《기쁨사》를 만들어 《굴렁쇠》란 회람잡지를 발간했다.

윤석중이 주동이 되었던 《기쁨사》모임의 취지는 그의 다음과 같은 회상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는 《슬픈 동무끼리 모이자!》-이것이 어려서(13살때) 만든 《꽃발사》와 《기쁨사》의 모토였다고, 우리들의 생각을 환한데로, 밝은데로 돌리기 위하여 그 모임의 이름부터 우선 《꽃발》이니 《기쁨》이니 하고 환하게 밝게 지어 불렀다고 했다.

《굴렁쇠》는 비록 등사판이나 목사지로 박아 낸 것이었지만 이렇듯 조선근대아동문학사에 있어서 뚜렷한 자취를 남기었다.

윤석중은 주체 15(1926)년 《조선물산장려가》가 현상음모에 당선된 때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들어 갔다. 이 무렵 그는 비참한 조선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무산소년들이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의로운 사회실천에 이바지하려는 어린이들을 긍정하고 있었다.

리원수가 등장한 것은 주체 14(1925)년 《어린이》지 10월호에 유명한 동요 《고향의 봄》이 뽑히면서부터였다. 리원수는 그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생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숙한 작가의 창작적재능과 그의 정신적리상의 높이를 쉬이 엿볼 수 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요 《고향의 봄》은 빼앗긴 조국과 짓밟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열렬한 사랑을 어린 시절의 동심세계에 맞게 잘 형상하였다고 지적하시었다.

《고향의 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향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간절한 그리움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비운의 절실한 배경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동요는 높은 형상성과 짙은 민족적정서로 하여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해 지고 있다.

윤복진을 비롯한 일부 동요작가들 역시 《어린이》잡지에 참신한 동요문학을 들고 나오으로써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드러냈을 뿐 아니라 후기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작가로 발전하였다.

한정동이 등장한 것도 바로 주체 14(1925)년이다.

그는 조선아동문학사의 초창기에 그 일익을 담당 한 동요창작의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비록 연령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문단에 발을 들여 놓기는 했지만 창작동요의 개척과 그 질적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직도 창가조의 틀을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한 무미진조한 작품만이 범람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타성을 깨뜨리고 그는 참으로 과감히 예술성이 가미된 동요를 보여 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정동은 설움과 눈물속에 천진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무산소년들의 서글픈 체험과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 주려는 리상을 노래한 많은 동요, 동시들을 썼다.

그중에서도 동요 《두루미》(따오기)는 주체 14(1925)년에 현상음모당선작품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두루미의 처량한 울음소리를 귀전에 들으며 떠나가신 어머니,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어머니의 평온을 바라는 어린 서정적주인공의 서글픈 체험을 정서 깊게 노래하고 있다.

이 무렵 최순애도 《오빠생각》을 발표하였고 천진한 동요속에서도 뭔가 민족의 비애와 념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윤극영의 작곡으로 널리 알려진 《봄편지》의 작사자인 서덕출도 이때에 등장한 신인동요작가였다.

서덕출의 《봄편지》도 당시의 어둡고 답답한 민족적암흑기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겨레에게 은근한 희망을 심어 준 노래이다.

윤극영이 초창기 아동문학계에 기여한 공로는 이 시기 다른 아동문학작가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다른 작가들은 주로 동요, 동화, 동극 등을 가지고 아동문학운동을 일으키고 아동문학발전에 기여하였지만 그는 동요창작도 하는 한편 이미 지어진 동요에 주로 곡을 붙여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1920년대의 동요가 부르는것을 기본으로 한것을 상기할 때 동요의 보급과 그 발전에 기여한 윤극영을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윤극영의 대표작은 《반달》이다. 이 작품은 그가 직접 작사작곡하여 발표한것으로서 당시 가장 애창된 작품의 하나였는데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애국애족의 뜨거운 감정으로 널리 불렸다.

그는 이와 함께 동요 《설날》, 《할미꽃》 등에서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울분과 슬픔, 민족애와 조국애의 감정을 잘 노래하였다.

윤극영의 창작활동은 1920년대의 동요문학이 작곡의 의의를 결코 배제할수 없는 그 시대 특유의 성격을 보여 준다.

동화의 경우에는 이미 활동해 온 방정환 등과 함께 마해송이 등장하였다.

그 당시의 동화는 동요만큼 활기를 띠지 못했으나 소과 방정환이후 마해송에 이르러 창작동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것은 조선아동문학사에서 주

목할만한 점이다.

마해송은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계에서 동요, 동화를 포함하여 아동문학작품창작의 첫 발자국을 댄 선구자의 한사람이었다.

주체12(1923)년 최초로 《바위나리와 애기별》, 《토끼와 원숭이》를 비롯한 일부 동화들을 《어린이》지에 발표함으로써 창작동화의 첫 출발을 보여주었다.

고한승도 조선아동문학사에 있어서 방정환, 마해송과 함께 주체9(1920)년을 전후하여 창작동화의 첫길을 연 조선동화창작의 선구자중의 한사람이다.

이처럼 1920년대 조선의 진보적아동문학은 시대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근대아동문학의 면모를 뚜렷이 하면서 발전하였다.

물론 조선근대아동문학은 시대계급적제한성을 띠고 있지만 민족문화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백시

교육자가 사는 계절 외 1편

백광명

조국의 교단앞에

인생의 씨앗을 고스란히 묻고서

움 트는 새싹에 즈름 주며

꽃을 가꾸며

한생을 바쳐 가는 교육자

그대 사는 계절은

언제나 봄, 여름 가꾸는 계절에 살더라

허나

마음만은 풍요한 가을에 산다

그대 가꿔 온 꽃들

알찬 열매로 무르익을 때

땀 흘린 노력을 맛 보는 한 없는 기쁨

아, 그 한계절에 그대는 산다

교단의 높이

탐구의 눈빛들에

떠받들린 교단

조국의 앞날

부흥과 문명이

그 우에 실려 있음을 그대 아는가

남 모르게 바쳐 가는

수고로운 마음만이

재일수 있는 교단의 높이

아, 앞날 부강조국의 높이

쌀더미나 석탄산으로만 헤아리라

내가 선 교단에서

나는 그 높이를 찾고 싶다

분노의 시

리영

내 나이 40이 넘도록
조국땅을 다 밟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면 통일이 되기도 남으리라던
부모들의 말도 이제는 세월속에 희미해 지고
불우한 나날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통일은 오리라
60년대에는... 70년대에는...
통일은 기어이 오리라
80년대에는... 90년대에는...
했건만 분렬은
이 분렬은 끝내 세기를 뛰어 넘는가

사무친 불행앞에
뉘라서 외면할 자 있으랴
조국이며 민족이며 들어 다오
내 심장을 두드리며 하고픈 말이 있나니
나는 조선의 시인이자!

X

지금은 밤
벽시계는 방금 열점을 쳤다
고요한 이밤
책상우에서 지구의를 돌려 보는
나의 마음은 평온치 않다
도무지 잠을 이룰수가 없다

인간이 생존하는 이 행성에서
갈라 저 사는 민족이 어데 있느냐
원통하다 이 밝은 세상에서
분렬이라는 말조차 역겹다

침략자앞엔 호랑이 갈았던 강토여
애국명장들을 낳던 슬기론 민족이여
오늘의 이 참상을 보자고
활촉은 그리도 빛났고
말발굽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더냐

단군을 시조로
자자손손 피줄기 이어 온 이 민족이
대대손손 물려 온 삼천리 이 땅이
20세기에
두 동강이 났다

분렬이라는 이 말속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있어라

여기엔 갈라 저 못 사는
겨레의 울부짖음이 있고
7천만이 원하지 않는 일이
콩크리트장벽이 되어 뻗대고 있다

어느 늬이나
오늘까지도 분렬을 조장시켜
민족불행을 초래케 하는 놈들이
집승도 제 우리 짓밟고 제 살 궁리 하지 않거늘
외세앞에 민족의 존엄까지 팔아 먹는 놈들아
네놈들의 죄행으로
조국은 어떤 비싼 값을 치르어야 하느냐

분렬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배를 곯아야 했다
밤중에 울리는 때 아닌 고동소리에
창가마다 불빛막이도 해야 했다
분렬때문에
내 누이 내 어머니
이 땅의 연약한 너인들이
강행군길에서 비도 맞고 눈도 맞아야 했다

어찌하여 우리
오곡을 가꾸다가도 전호를 파며
흘리지 말아야 할 땀을 더 흘려야 했던가
어찌하여 때로
새 거리의 준공을 앞두고도
그물망 씌운 배낭을 메고 일터를 떠나야 했던가

분렬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까지 흩어 저 사는 민족아
분렬때문에
눈물도 많았고 피도 흘렸던 민족아

정녕 분렬은 민족이 자멸하는 길이다
조국이며 말해 다오
오בות한 이 나라에
분렬이란 도대체 무슨 낱말이나
이 분렬은 과연 어데 있느냐

그것은 남의 땅에 턱없이 기여 든
《유엔》의 군화자욱에 있다
분렬의 장벽을 더 높이 쌓으려
양키에게 껌처럼 조국을 섬겨 바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노들의 반역에 있다

앞에서 통일을 떠들지 말라

빈말로 통일을 통략하지 말라
검은 나래로 남쪽하늘을 찢는
오만한 폭음속에 분별은 으르렁대고 있다
곡식이 자랄 전야에 미싸일을 배비하며
뒤에서 악을 쓰며 갈고 있는
핵이발속에 분별은 독을 쓰고 있다

분별이 있는 한
평화란 없다
전쟁의 재난으로 하여
이 땅에 또 다른 신천이 생겨 난다면
우리의 아이들속에 교아가 생겨 나고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하는 아들딸을 기다리며
어머니들의 머리에 때 일찍 흰서리 내려
앉는다면

오, 오 시인을 분노케 하지 말라
시인의 분노는 벼락을 내리나니
독버섯 같은
통일의 원썩들이 살라고
이 땅이 펼쳐 진게 아니다
수려한 이 산천에
맑은 물 출렁이는게 아니다

분별을 꾀하는 잔악한 무리들을
불장난을 즐기는 호전광들을
조국이며 내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예로부터 역적은 삼대를 멸족한다 했거늘
내 이 펜으로
그 짐승들의 골수를 우뚝 내리라
그놈들의 족속들을 한두름으로 꿰어
기름가마에 천만번 튀겨 내리라

누구는 힘이 없어
평화를 론하는것은 아니다
새들이 우짖는 공원에 학교에
다시는 폭탄이 떨어 지는 일 없게 하기 위하여
푸르른 산과 들이
다시는 화염속에 묻히는 일 없게 하기 위하여
하여 민족이 행복한 한살림 펴고
이 강산에서 만복을 누리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만 평화를 바라는것이다

내 시인의 자격으로 경고하노니
통일의 원썩들이 오산하지 말라
전쟁은 약자의것
평화는 강자의것이라는것을
만약 네놈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네놈들을 일격에 쓸어 버릴 무적의 군대가
오늘도 포진앞에서 가슴을 누르고 있다

통일이라는 이 대업앞에
국사중의 이 국사앞에

홍정이란 없다
우선 해놓아야 할 일은 통일이 아닌가

하건만 통일은
장벽에 갈리우고
철창속에 갇히우고...
적대와 질시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시비질만 하는 역적들의 허바닥우에서
통일은 놀림을 당하고 있다

바라보면
저 검푸른 남쪽하늘가에
질은 구름이 무겁게 무겁게 떠돌고 있다
묻노니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통일은 언제 그 언제 오려는것인가

나는 지금 울고 있다
허리 부러진 어머니 끌어 안고
목 놓아 목 놓아 울고 있는 어린애마냥
분별된 이 땅을
어루쓸어 보는 어루쓸어만 보는
내 마음은 슬픔이 북받쳐
눈물은 저절로 불을 적신다

조국이며 용서해 다오
크나큰 불행을 겪고 있는 그대를 두고
내 여태 금수강산이라 불려 왔더냐
이 나라 하늘이 푸르다고만 말해 왔고
이 나라 꽃이 아름답다고만 노래해 왔더냐

세상앞에 나는 죄스럽다
분별된 강토의 시인이란 웬 말이나
가슴이 답답하다
제 사는 제 나라도 다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시인이라 말해 왔으니
시퍼런 하늘아래 머리 들수 없구나

북과 남은
바다 건너 대륙 넘어
서로 멀리 떨어진 진 이국땅이 아니다
나는 가보고 싶다
하루길도 못되는 호남벌을
그리고 거기서 땀 흘리는 농부들을
물결 푸른 동해의 유원지로 청하고도 싶다

백마강이 물결치는
그 락화암에도 찾아 가
전설의 이야기도 추억하고 싶다
삼남땅 어느 집 토방에 걸터앉아서
살구꽃 피는 내 고향 자랑도 하며
대숲이 설레는 소리도 듣고 싶다

허나 분별은

시인의 걸음도 가로 막았다
조국의 분렬은
땅만이 아닌
불러야 할 시인의 노래에도
그것이 사정없이 가로 질러 있구나

오호 이 분렬은
무슨 일까지 저질렀던가
하늘아래 겨레여
절통한 이 분렬로 하여
우리는 통일의 어버이를 잃어야 했다
민족의 가슴이 란도질 당하여야 했다

조국의 절반땅만 위해서
그이는 젊은 시절을
백두의 설한풍속에 다 흘려 보내야 했던가
민족을 그 넓으신 품에 모두 안으시고
한없는 도량과 인덕을 베푸시던분
평생을 통일성업에 마음 쓰시며 백발이 되신
그이는 이 분렬로 속인들 얼마나 탔으랴

비가 오면
남녘의 수재민이 걱정되시여
잠 못 드시던 이 땅에 오직 한분
눈이 내리면
추위가 일찍 오는것 같다고
남녘의 류랑민들을 그려 보시며
밤새 정원길을 걷고거니시던 세상에 오직 한분

분렬된 그 아픔이 너무도 모질어
안고 계시던 그 비운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
위대한분은 때 일찍 돌아 가신것이다
통일때문에 바로 통일때문에
우리 수령님의 심장이 끝내는 고통을 멈춘것이다

민족이여 겨레여
우리는 어떤분을 잃었는가
그이를 잃음으로 하여
7천만의 피눈물을 뿌렸고
강철의 령장, 백두장군의 손수건이
눈물에 다 젖어야 했던가

삼가 머리 숙이자
어버이의 령전앞에
수령님을 통일광장에 모시리라던
그 념원은 하늘땅에 차넘쳤건만
우리는 그이를 어디에 모셔야 했던가

더는 이대로 보낼수 없는 새 세기앞에 감히
나서보라
이제 더 분렬을 피할 자는
이제 더 통일을 등질 자는

분렬이란 조선말이 아니다
분계선은 국경이 아니다
너나없이 이 땅을 조국이라 부를진대

생이 태어난 어머니 그 품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법이다

하늘이 낸 그 진리가
수령님 존함이 새겨 진
저 관문점의 친필비에서 빛받치고 있어라
거기엔 분렬이 있을 자리가 없다
거기엔 통일의 새날만이 밝아 오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새날의 노을에 이 마음 실는다
이 마음 실고 훨훨 날아 가고 있는 곳은
제주도 백록담인가
다도해 푸른 기슭인가

내 거기서 마른 목도 추기고
거기서 형제들을 그리안으며
상봉의 기쁨속에 실컷 울어도 보았으면
그리고 아-오- 소리치며
가슴속 걱정을 시로 읊어도 보았으면

동백꽃 피여 나는 그 기슭을
밭목이 시도록 걷고 또 걸으며
조개잡이도 하고
미역도 건지고...
해녀들이 부르는 청 고운 민요가락을
수첩갈피에 서둘러 적어 넣기도 하였으면

통일아 통일아
이 밤이 새도록
나는 너를 목 메여 그리며 너를 찾는다
소원의 통일아
갈망의 통일아

너는 외세의 힘이 아닌
민족의 자주에 있다
제 집안일을 어찌 남에게 맡길수 있으랴
우리의 힘속에 노력속에 지혜속에
다름아닌 우리의 손에 통일은 쥐여 저 있다

겨레들이여 들어 다오, 시인의 절규를
통일은 곧 애국이다
북에서 살든 남에서 살든
유럽에서 살든 그 어디에서 살든
이 나라를 참말로 사랑한다면
가슴 가슴을 맞대이자
혈육의 더운 피 합침에 통일은 있다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은 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통일이여 너는 있다
애국애족으로 열화 같은 우리 장군님 그 품속에
우리의 통일, 강성대국의 새날이 있다

이제 더는 미루어 지지 않는다

이제 더는 미루어 질수 없다
 새 천년이 시작된 이 하루하루속에
 통일은 숨 쉬며 약동하고 있어라
 너와 나 우리모두 조선사람일진대
 그 숨결을 위해 그 태동을 위해
 아깁 피, 아깁 산, 아깁 돌 뼈
 따로 있으랴

우리 수령님의 통일대강으로
 우리 장군님의 통일위업으로
 누리에 빛날 하나의 조국이어
 래일이 아니라
 오늘에 안아 보는 통일이어

너는 내 가슴에 있다
 평양에서 부산으로 달려 가는
 첫 열차의 기적소리 되어
 한나에서 백두까지 뻗어 간
 자유로운 큰길이 되어

장벽의 폐허에 일떠선
 새 마을이 되어, 새 거리가 되어
 거기서 태어나는 새 생명의 고고성이 되어
 거기서 누려 가는 새 생활의 기쁨이 되어

너는 이 가슴에 환희로 솟구치고 있어라
 통일광장에 높이 서신 장군님 우러러
 하늘가로 터져 오르는 축포가 되어
 수령님의 통일유훈 빛내신
 민족의 태양 그분을 우러러 우러러
 천지를 진감하는 만백성의 환호성이 되어

나는 지금 보고 있어라
 상봉의 감격속에 부둥켜 안는
 겨레들의 눈물을 웃음을
 갈라쳐선 다시 못 사는 피의 그 교훈을
 나는 시인의 권리로
 력사의 폐지에 벌써 새겨 가고 있어라

분렬, 그것은
 세월의 무덤속에 씨도 없이 파묻힐
 한줌도 못되는 저 반역의 무리
 통일 그것은
 천세만세 행복할
 우리의 7천만이다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부풀어 오르는
 내 마음의 하늘가 만리에 비둘기는 날은다
 이 땅에 피여 나는 천만 꽃송이들에
 평화의 하얀 것으로 손 저으며, 손 저어 주며...
 《조국통일 만세!》
 《조선은 하나다!》

세계여 듣느냐
 20세기의 령마루에서 터치는 내 심장의 웨침을
 그렇다
 나는 분렬된 강토의 시인이 아니다
 통일된 조국을 안고 노래 부르는
 통일된 조국을 안고 가슴을 활활 불 태우는
 오오, 나는 조선의 시인이다!

상식

영화가 나오기까지

1895년 12월 28일 저녁 프랑스 빠리의 한 커피점 지하실에는 사람들이 가득차 있었다. 거기에서는 루미에르형제가 여러해동안 연구하여 만들어낸 수동식영사기로 무성영화를 돌리게 되어 있었다.

영사실의 조명이 꺼지자 영사막에서는 증기기관차가 역에 서서히 줄어드는 장면, 어린이가 국을 먹는 장면들이 나타났다.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화는 30분동안 상영되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은 루미에르형제뿐이 아니다.

1829년에 벨지끄의 물리학자 플라더는 눈의 시각잠시보존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1832년에 원시적인 영사기모형을 만들었다. 그것은 두터

운 종이원판으로 된 활동판이었다. 활동판의 중간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한쪽눈으로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림이 회전하면 물체가 운동하는것처럼 보였다.

1880년에 영국의 한 촬영가가 길옆에 24대의 사진기를 한줄로 쭉 세워놓은후 모든 사진기의 셔타가 몇초사이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여닫기게끔 련결시켜 놓고 달려 가는 말을 찍었다. 그후 촬영기에서 셔타가 빠른 속도로 련속 여닫기게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었다.

1896년에 와서야 에디슨과 그의 조수 디슨은 비전문촬영가 알마트의 방조밀에 비교적 완전한 위타이영사기를 만들어 냈다.

발성영화는 1914년에 와서야 발명되었다.

단재 신채호의 문학평론활동

한중모

조선의 근대문학사에서 단재 신채호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채호는 권위있는 력사학자인 동시에 이름난 작가, 정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형성발전에서 신채호가 논역할에 대하여 론할 때 사람들은 보통 단재의 소설을 주요하게 고찰하면서 그의 시에도 일정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신채호의 창작활동정형으로 보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신채호는 소설과 시만 지은것이 아니라 문학론적이며 비평적인 글도 썼는데 지금까지 그의 문학평론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이 돌려 지지 못하였다.

단재 신채호는 1905년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을사5조약》의 날조와 강요로 온 강토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우고 조선민족이 망국노의 비분으로 몸부림치던 복잡다단한 사회 력사적현실에서 《황성신문》의 론설위원,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등을 력임하면서 인민들을 조국애와 민족의식, 반일사상으로 계몽교양하기 위한 많은 사회정치론설들을 집필하였다. 한편 1907년 5월 오스트리아의 지배로부터의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마찌니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애국자들의 활동을 형상화한 번안소설 《이탈리아건국3결전》을 집필하여 출판한것을 시발로 2~3년동안에 우리나라 애국명장들의 생애와 투쟁을 묘사한 《을지문덕》(1908), 《성웅 리순신》(1908), 《동국거결최도통》(1909) 등 력사전기소설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신채호가 이러한 소설작품들을 써낸것은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애국자들과 영웅들의 활동과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을 애국주의 정신과 민족자주의식으로 교양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채호는 번안소설 《이탈리아건국3결전》의 시론에서 당시 조선의 현실이 애국자를 절실히 요구한다고 하면서 애국자의 출현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전기소설 《을지문덕》의 서문에서는 《그 나라 민족이 그 나라 영웅을 모르면 그 나라가 어찌 나라됨을 가질수 있으리오》라고 하면서 《파거의 영웅을 씌므로써 미래의 영웅을 부르노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활달하고 분방한 필치로 지난 날의 애국영웅들의 이

야기를 엮은 전기소설들의 창작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계몽기소설문학의 발생발전에서 한몫을 하였다.

신채호는 그후에도 《백세 로승의 미인담》을 비롯한 여러 편의 력사소설들을 써서 남기었다.

신채호의 소설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는 대표작은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주체5(1916)년에 집필한 중편소설 《꿈하늘》과 주체17(1928)년 일제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창작한 단편소설 《룡과 룡의 대격전》이다.

중편소설 《꿈하늘》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면서 파란곡절을 겪던 끝에 《님나라》에 이르러 나라찾기에 전심하는 주인공의 광만주의 적형상을 통하여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적지향을 예술적으로 구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단편소설 《룡과 룡의 대격전》에서는 침략과 략탈,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반동통치계급의 화신인 머리를 한편으로 하고 피압박, 피착취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체현한 혁명력량을 상징한 드래곤을 다른 편으로 하는 필사적인 대결에 대한 환상적인 묘사를 통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 매국배족무리의 멸망과 무산민중, 애국적인민의 승리를 보여 주었다.

신채호는 1910년 일제침략자들이 《한일합병》을 조작하기 직전에 조국땅을 떠나 해외로 망명하면서 지은 《한나라생각》을 비롯하여 《너의것》, 《새벽의 별》 등 여러 시들을 창작하였는데 그것들은 단재문학의 독특한 면모와 특징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시 《한나라생각》에서 너와 나의 사랑사이를 칼로 썬 베여 고우나고온 피덩어리가 줄줄 흘러 내리면 《한주먹 덩석 그 피를 쥐여/ 한나라땅에 끌고 루 뿌리리/ 떨어 지는 곳마다 꽃이 피여서/ 봄맞이 하리!》라고 노래한 구절이나 시 《너의것》에서 서정적주인공의 눈, 피, 숨, 말 등 모든것을 외적에게 짓밟힌 《님나라》를 밟고 아름답게, 깨끗하고 더워 지게 하는데 바치며 나아가서 《살이 썬어 흩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여라/ 님나라에 보태 지게》라고 읊은 시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조국의 해방과 룡성변영을 이룩할데 대한 불같은 념원과 지향에 대한 시적표현이다.

신채호의 소설과 시는 그 내용에 흘러 넘치는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정신, 해방의 열망 그리고 호방하고 기발한 필치와 형상으로 하여 1910~1920년대 우리 나라의 진보적광만주의문학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직한 문학정신과 창작적개성을 가진 단재 신채호의 문인적면모와 특징은 그의 평론활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신채호는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날조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무참히 짓밟히게 된 엄혹한 시기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절규하며 인민들속에 민족의식과 반일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애국문화운동과 다방면적인 문필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한고리로 문학을 문한 글을 집필발표하는데도 관심을 돌리었다. 이 시기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근년 국문소설저자의 주의》(1908. 7), 《소설가의 추세》(1909. 12), 《천희당시화》(1909. 11~12) 등은 그의 문학평론활동을 보여주는 주요한 문설과 평론들이다.

신채호는 이국땅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1910~1920년대에도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애국적인 출판언론활동과 국사저술사업, 진보적인 문학작품창작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의 문학계 동태에 관심하고 평론 《문예계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1920년대 초엽)이라는 글을 집필하여 유고로 남기었으며 평론 《랑객의 신년만필》(1925. 1)을 써보내어 신문 《동아일보》에 실도록 하였다.

신채호의 문학에 관한 문설과 평론들은 불과 5~6편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 작품평가기준을 알 수 있다.

×

20세기의 문어구에 들어 선 첫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력사전기소설과 신소설, 창가와 신체시 등 중세문학과 다른 새로운 근대적인 성격과 특징을 가진 문학형태들의 출현하였으나 문예비평분야에서는 근대적인 문학평론형태의 개척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박은식은 1907년에 출판한 번역소설 《서서건국지》의 서문에서 소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 풍속을 개선하며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것을 지적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좋은 소설작품들로 인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민중을 교양하고 계몽하기에 주력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 리해조는 1912년에 창작, 출판한 신소설 《화의 혈》의 서언, 후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 애국문화운동가들과 신소설작가들은 소설이 그 특유한 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커다란 교훈적의의를 가진다는데로부터 소설창작과 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 애국문화운동가들과 작가들은 문학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소설, 시가 등에서 문명개화와 자주독립의 사상을 표현하며 문학을 인민들에 대한 문화계몽과 애국주의교양의 수단으로 삼기에 힘 썼지만 문학리론적인 문제를 취급하거나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을 목적

한 독자적인 글을 써내지는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신채호의 《근년 국문소설저자의 주의》, 《소설가의 추세》, 《천희당시화》 등이 지상에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근대문학평론을 개척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였다.

신채호의 이 글들은 문학의 계몽적의의와 교훈적 가치를 강조한 견해와 관점에서 박은식의 소설 《서서건국지》의 시문이나 리해조의 소설 《화의 혈》의 서언, 후기의 내용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국민의 애국주의교양과 민족의식고취에서 문학이 노는 기능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신채호는 《근년 국문소설저자의 주의》에서 《천해대사업은 을지문덕, 연개소문같은 대철인, 대영웅, 대호걸이 하는바이며 사회대추향은 종교, 정치, 법률 같은 대철리, 대학문으로 바로 잡히는바 아니라 언문소설이 바로 잡는바라.》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저 리담속어에서 뽑아 만든 소설책자는... 일체 부녀, 유아, 사환군들이 몹시 즐기는바인데 만일 그 사조가 좀 기이하며 필력이 얼마간 웅건하면 백인이 보고 백인이 갈채하며 천인이 듣고 천인이 갈채하되 심지어 그 정신혼백이 종이우에 옮겨져 비참 처절한 일을 읽으면 눈물이 쏟아 짐을 깨닫지 못하며 장쾌한 일을 읽으면 기운의 솟아넘침을 금치 못하고 그 침투감염으로 이윽하여 자연히 그 덕성도 감화를 입으려니 고로 사회의 대추향을 국문소설이 바로 잡는바라 함이니라.

오호라, 영웅호걸이 하는 천하사업을 부녀, 유아, 사환군 등 하층사회를 비롯한 인민의 마음으로 옮겨 놓는 능력을 갖춘것은 소설이니 그런즉 소설을 어찌 가벼이 볼바인가. 퇴폐하고 음탕한 소설이 많으면 그 국민도 이 감화를 받을지며 호협한 정이 강대한 소설이 많으면 그 국민이 이 감화를 받을지니 신비들의 말한바 《소설은 국민의 혼》이라 함이 정말 옳도다.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8일

신채호는 《소설가의 추세》에서 소설이 가지는 감화력과 사회적기능에 대하여 또 이렇게 서술하였다.

소설은 국민의 라침판이라. 그 이야기가 세속적이고 그 필치가 교묘하여 무식쟁이로동자라도 소설은 능히 읽지 못할 자- 없으며 또 즐겨 읽지 아니할 자- 없으므로 소설이 국민을 강한데로 이끌면 국민이 강하며 소설이 국민을 약한데로 이끌면 국민이 약하며 바른데로 이끌면 바르고 그릇된데로 이끌면 그릇되나니 소설가된 자-마땅히 스스로 조심할바이어늘 근일 소설가들은 음담을 주되는 취지

로 삼으니 이 사회가 장차 어찌되리오.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일

이처럼 신채호는 소설이 그 커다란 정서적감화력과 견인력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교양과 정신도덕적수양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박은식, 리해조를 비롯한 이 시기 애국문화운동가들과 신소설작가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문학을 보고 대하는 신채호의 견해와 관점에서 류달리 두드러지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국문소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종교, 철학, 법률보다도 우위에 놓은 것이다.

사회적의식의 여러 형태들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자기나름의 기능을 하며 따라서 인간교양과 사회생활에서의 그 우열을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을 형상적형식을 통하여 반영하는 문학이 커다란 미학정서적감화력을 가지며 그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신채호는 문학의 이러한 미적특성과 예술적 힘을 각별히 중시한데로부터 사회생활의 추세와 그 발전방향을 바로 잡는데서 종교나 정치나 법률보다도 소설의 역할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다. 그가 국민을 교양하고 이끄는 데서 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 하는 것은 《소설은 국민의 혼》이라고 한 선비들의 말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소설은 국민의 라침판이라》는 정식화를 내린 사실을 두고도 잘 알 수 있다.

신채호가 인간교양과 사회생활에서의 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이처럼 중요하게 평가하면서도 천하의 대사업은 울지문덕이나 연개소문과 같은 대철인, 대영웅, 대호걸이 하는 것으로 보고 소설의 능력은 영웅호걸들이 천하사업을 하층인민들의 마음으로 옮겨 놓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 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이 사회적진보와 력사발전에서 노는 결정적역할을 리해하지 못하고 걸출한 개인의 힘을 과대평가한 세계관적제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국민을 교도하며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문학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신채호의 견해는 《천희당시화》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었다.

시라는것은 국민언어의 정화라. 고로 무(武)로 굳센 군민은 그 시부터 굳세며 문(文)으로 약한 국민은 그 시부터 나약하나니 일국의 성쇠치란은 대체로 그 나라 시에서 가히 알바요, 또 그 나라의 나약함을 돌이켜서 굳세어 지게 하려고 할진대 불가불 그 나라의 나약한 시부터 개량할지라. 내가 근세 우리 나라에 류행하는 시가를 보건대 태반이 방탕 음란하여 풍속의 부패만 빚어 내고 있나니 세상의

도리에 관심하는 자는 급급히 그 개량을 꾀함이 가하며 또 그중에서 특히 민속에 유익할만한 시가를 수집하여 시문학계에서 나라의 정수를 보존함이 가할지나 다만 옛 력사기록이 결핍되어 삼국시대의 진정 무로 굳센 시가는 얻어 보기는 어려우니 가석하도다.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9일~12월 4일

이 글에서 《시라는것은 국민언어의 정화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굳센과 나약, 일국의 성쇠와 치란을 그 나라의 시를 보고 가히 알수 있다고 한 구절은 신채호가 국민의 사상도덕교양과 나라의 흥망성쇠에서 시가 노는 기능과 역할을 소설의 사회적가치만 못지 않게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채호는 시가 국민의 강약,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회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직접 토로하는 서정적문학으로서의 그 특성에 기인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시가 환호, 분노한 웨침, 처량한 울음, 신음소리와 미친듯한 울부짖음 등 감정정서상태로 이루어진 글과 말이라고 하면서 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곧 국민의 목구멍을 막으며 뇌를 깨져 버리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그럴수 있겠는가 하고 그의 지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신채호는 시에 대한 이러한 견해로부터 《시가 성하면 나라도 역시 성하며 시가 쇠하면 나라도 쇠하며 시가 존재하면 나라도 역시 존재하며 시가 망하면 나라도 역시 망한다.》라는 명제를 정립하였다.

시의 미학정서적감화력과 사회적기능을 국면에 대한 교도와 연관시키고 나라의 존망과 결부시켜 고찰한 그의 관점과 립장은 《시의 능력, 시도(詩道)와 국가의 관계》라는 이 글의 부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시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인식으로부터 신채호는 《천희당시화》에서 애국명장과 충신들인 최영, 정몽주, 남이, 김종서 등의 시조와 한시를 우리 나라의 우수한 옛 시로 평가하였다.

신채호는 이 시화의 첫머리에서 고려말의 애국명장이며 충신인 최영이 지은 시조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이라》와 시조 《눈 맞아 휘엿노라 굵은 술 옷지 말아/ 춘풍에 피인 꽃이 매양에 고을소냐/ 풍(風)표표 설 분분할새/ 네야 나를 부르리라》의 2수를 인용하고 《그 말이 장중정결하고 그 조자가 격렬하며 그 뜻이 웅건광대》하다면서 《성음의 도》가 사람을 깊이 감동시킨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우리 나라의 시로서 최영의 시조와 함

게 정몽주가 읊은 《이 몸이 죽어죽어 열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이라》라는 시조를 인용하고 최영, 정몽주가 노래한 《님》은 임금을 말한것인데 봉건시기에는 임금을 국가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지적함으로써 《단심가》의 충군사상이 애국심과 연결되어 있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신채호는 량반사대부들이 지은 한시를 시답지 않게 여겼다. 그는 우리 나라에 한문이 들어 온후 한시가 일종의 문학을 이룩하였으나 사대주의를 고취하였을뿐 동방조선의 상무적정신을 발휘한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백두산 둘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마르네/ 사나이 스물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날 그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라고 읊은 남이의 시 《북으로 출정하며》와 최영의 《석자 큰 칼로 나라를 안정하고/ 한 채찍에 천지를 평정하리》라는 시구만을 기록에 남겨놓고 그밖의것은 일체 불 태워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시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시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도와 국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마당에서 김종서의 시조 《작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되/ 만리변성에 일장검 쥔고 서서/ 긴 파람 큰 소래에 거친것이 없에라》의 한구를 읊으니 간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였으며 남이의 시조 《장검을 빼어들고 백두에 올라 보니/ 대동천지에 성진(腥塵)이 잠겼어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 볼가 하노라》를 다시 읊으니 머리카락이 뿔뿔하게 일어 서며 근심으로 마음이 울적하다가 《어와 저 백구》라는 노래 한가락을 읊조리즉 마음과 정신이 즐거워지고 감정상태가 유유해 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으로써 그 시가 굳세고 열렬하면 전국이 굳세고 열렬할지며 그 시가 음탕하면 전국이 음탕할지며 그 시가 웅건하면 전국이 웅건할지며 기타 용맹과 광란, 맹렬과 용렬, 혹 선하고 혹 악한것 혹은 아름답고 혹 추한것이 시가의 지배력을 받지 않는것이 없는데 생각해 보라. 우리 나라에 유행하는 시가 과연 여하한 시이뇨.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9일~12월 4일

이 론술은 인간의 사상감정과 행동, 국가생활과 사회현실에 미치는 시가의 거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다시 주장하고 강조한것이다.

신채호는 문학의 인식교양적의의 특히 국민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애국정신을 배양하는데서 시가가 가지는 감화력을 중시하는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시가창작에서 조선글자를 많이 쓰고 국어로 시구

를 만들어 부인이나 유아도 한번 읽으면 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학교창가에서 한자를 망탕 쓰는 폐단을 지적하고 작시법과 운률조성에서 중국시나 일본시의 음절수를 본 따는것을 반대하였다.

시가의 내용에 조국애나 상무정신 등 의의 있는 주제사상을 담을뿐아니라 시어구사와 음절구성에서 한자어의 랍용과 다른 나라의 음수물에 대한 모방답습을 배격하고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살려 나갈데 대한 이러한 견해의 주장은 신채호의 애국적이며 민족자주적인 립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신채호는 바로 이러한 관점과 립장에 서서 조선시란 《조선말, 조선글, 조선음으로 만든것》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시문학계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고 할진대 《아리랑》, 《녕변동대》(《녕변가》)등 조선노래들에서 고무한것을 고쳐 노래하며 새 사상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강토우에 국권회복과 자주독립, 문명개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애국문화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사회적분위기속에서 신채호는 《근년 국문소설저자의 주의》, 《소설가의 추세》, 《천희당시화》와 같은 론설, 평론들을 집필발표함으로써 문학의 사상교양적의의와 사회적기능을 강조하여 진보적인 문학작품의 창작을 추동하고 퇴폐적인 문학의 해독적작용을 폭로비판하였으며 근대적인 문학평론의 길을 열어 놓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

신채호는 우리 나라에서 근대문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1920년에도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의 문학계형편에 관심을 돌리고 《문에게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 《랑객의 신년만필》과 같은 평론적인 글을 써내었다.

《문에게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은 지상에 발표되지 못한채 유고로 남아 있다가 해방후에야 세상에 알려 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집필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 없다. 하지만 이 글의 첫머리에서 불과 5~6년전에는 신문으로 일제의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잡지로서 《청춘》하나뿐이었는데 5~6년내로 각종 잡지와 2~3종의 신문이 생겨 났다고 서술한것을 보면 1920년대에 들어 와 씌여 진것임을 짐작할수 있다. 또 중국에 와 있는지 10년이 되었으나 말재간이 없어서 중국청년과 필담을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신채호가 1910년의 《한일합병》 직전에 조국을 떠난 때로부터 계산하여 이 글이 1920년대초에 집필된것이라는것을 가늠할수 있다. 《랑객의 신년만필》은 주체14(1925)년 정초에 신문 《동아일보》에 발표된 글이다.

《문에게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과 《랑객의 신

년만필》은 문학에 대하여 론한 글이면서도 수필적인 성격이 다분하며 따라서 문설조로 씌여진 《근년국문소설저자의 주의》, 《소설가의 추세》나 시론적, 시평론적인 성격을 가진 《천희당시화》와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문예계 청년에게 구함》과 《랑객의 신년필》의 기본론지는 현실을 떠난 련애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견해를 반대배격하고 조선적인 문예를 창작할데 대한 주장을 내세운것이다.

조선에서는 3.1인민봉기이후 자연주의, 상징주의, 반동적랑만주의 등 부르조아문예사조들이 밀려들어 와서 혼잡을 이루는 가운데 썩고 병든 식민지사회가 배출한 성격파산자들이 음란한 남녀관계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추잡하게 묘사한 퇴폐적인 련애소설들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좀먹는 해독적인 작용을 하였다.

당시 조선부르조아문학계의 이러한 형편을 두고 그는 《문예계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에서 경제가 혼란되고 침체하며 수 많은 농민들이 서북간도로 이주해 가는것과 같은 위급한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련애문예에 심취한 《문예파》, 《련애문예파》 문인들을 해산하는 안해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하늘소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는 친구를 만나자 시흥이 일어 약첩을 도포소매에 넣은채 금강산으로 달아났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19세기의 위항시인 정수동에 비기여 야유조소하고 비난하였다. 또한 《랑객의 신년만필》에서 그는 당시 조선의 문예를 《예술주의의 문예》와 《인도주의의 문예》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그 주의는 어쨌든 다 조선의 민중에게 관계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험벗고 굶주리는 수백만사람들을 곁에 두고 민중생활과 무관계한 상류사회 부자집 남녀들의 련애를 그리는것을 일삼는 음탕한 문학에 대하여 문단의 수치라고 규탄하고 《예술주의의 문예파 하면 현조선을 그리는 문예가 되어야 할것이며 인도주의의 문예파 하면 조선을 구하는 인도주의가 되어야 할것이니 지금의 민중에 관계가 없이 다만 간접의 해를 끼치는 사회의 모든 운동을 소멸하는 문예는 우리의 취할바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글들에서는 신채호자신이 10여년동안 해외에 있다가니 조선문단의 소식과 조선문예계의 형편을 알지 못한다고 한것처럼 사실 새롭게 대두한 《신

경향파》문학,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 예술주의를 긍정하고 예술지상주의를 찬성한다고 한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근대문예사조와 문예학적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것과 같은 제한성이 발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가 그전에 써낸 평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련애를 위주로 묘사하는 문학, 음담문학을 반대배격하고 조선현실을 묘사하며 조국해방에 이바지하는 문학을 주장하고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신채호가 문예의 강화력과 사회적기능을 중시하는 견해의 관점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조선민중에게 도움을 주는 문학의 창작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그리고 《랑객의 신년만필》의 내용에서 새로운것은 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에 관심을 돌리면서 민중을 상류사회 부유층과의 대립속에서 고찰하고 부귀를 누리는 남녀들의 련애를 묘사한 음란한 문학을 민중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운동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사조가 보급전파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민중의 대중적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당시의 변천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신채호의 세계관과 문예관에서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로부터 몇년후에 신채호가 미러와의 대결에서의 드래곤의 승리에 대한 랑만주의적화폭을 통하여 무산민중혁명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소설 《룡과 룡의 대격전》과 같은 작품을 창작하게 된것은 사회력사와 문예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신채호의 《문예계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과 《랑객의 신년만필》은 1920년대 조선의 현실과 문예계형편에 대하여 론한 글임에도 개념사용과 언어표현, 필치에서 이전 시기의 낡은 투가 일정하게 남아 있고 근대적인 문학평론으로서의 원숙한 면모를 보여 주는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단재 신채호의 문학평론활동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문학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견해를 력설하고 퇴폐적인 음담문학을 반대, 배격하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근대문학평론의 개척에 이바지하였다는데 주요한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신채호의 문예론설과 평론들은 그의 소설, 시들과 함께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력사를 개척하고 풍부화하는데 특색 있는 기여를 한 진보적인 유산의 하나로 된다.

나루가의 밤이야기

림재성

나루가의 저녁바람은 여간만 차지 않았다. 염열을 퍼붓던 한낮에는 땀구멍 없는 동네 개들이 그들 밤에서 어슬렁거리지도 못하는 복철인데도 령복땅의 저녁바람은 어찌나 새침한지 속옷이 그리울 지경이다. 광섭은 동행자들과 함께 강역에 널려있는 삭정이를 주어다 자그마한 화톳불을 마련했다.

마침 일행중의 한사람인 송덕협동농장 회계원이 싸가지고 온 빵을 내놓는 바람에 저녁요기는 그럭저럭 했다. 입가심을 하고 담배 한대를 다 태울때까지도 건너 간 나루배가 돌아 오지 않았다. (어찌된 일일까?)하고 궁금해 하는데 어둠속 저쪽에서 꽤할한 목소리가 노래가락처럼 길게 울려 왔다.

《기다려야 소용 없습네다. 송덕 파수분조장체네가 영예군인총각에게 시집을 가는데...》

때마침 차거운 강바람이 휘익 불어 와 사나이의 목소리를 삼켜 버렸다.

《뭐라구요?》

회계원이 손나팔을 해가지고 맞받아 소리쳤다.

《...시집을 가는데- 사공아바이는 아침까지 깨어나지 못할거웨다-》

《누가 시집을 간다구요?》

《제길, 귀구멍에 말뚝을 해박았노?》

사나이는 투덜거리면서도 파수분조장이 시집을 간다는것을 다시 알려 주었다.

《참, 그렇군.》

회계원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허, 이거 야단났군.》

도에 올라 간다는 중년사나이가 걱정스레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나루배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허, 별일이 다 있군.》

《정말 한심하군.》

허를 갈겨 대며 나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없이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사공이 배를 떠나 잔치집에 가다니. 살다살다 별볼 다 보겠군.》

중년사나이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힐난하는 눈길로 이 고장사람인 회계원을 돌아 보았다. 불담 좋은 잉겔불과 강바람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화톳불의 반사광으로 해서 얼굴이 별결게 상기되고

안경알이 번쩍거리는 농장회계원이 나직이 한숨을 쉬며 용서를 빌듯 주눅이 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공아바이는 제대배낭을 메고 이 고장에 온 때로부터 30여년간을 하루도 나루터를 비운적이 없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나루터에서 적들과 큰 싸움이 붙었는데 전우들을 많이 잃었던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걸려서인지 군에서 여러번 데려 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나루터를 떠나려 하지 않는군요. 그러니 그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바이가 모는 배를 타구 이 강을 건너 다녔겠습니까. 오늘 시집을 가는 파수분조장체너도 인민학교시절부터 내내 아바이가 모는 배를 타구 다녔지요. 말하자면 아바이와 처너는 나루터를 통해 인연이 맺어지고 정이 깊어 졌는데 밤이 지나면 다시 만나기 어렵겠으니 오죽 섭섭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배사공을 나무라기만 할수도 없었다. 그렇다 해서 무한정 찬바람 부는 강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을수 없었다. 중년사나이라도 결사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해서인지 더는 투덜거리지 않았으니 더욱 맹렬한 기세로 왔다갔다했다.

《아무래도 내가 갔다 와야 되겠군.》

광섭은 보고만 있을수 없어 옷을 와락와락 벗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 가 배를 물고 올 심산이었다. 비록 타고장사람인 길손이기는 하지만 송덕사람들이 말밭에 오르는것은 자신이 모욕이라도 당한것처럼 불쾌했던것이다. 광섭이 옷동을 벗어 불이고 막 바지헝끼를 풀려고 하는데 어느새 뺨쓰바람이 된 안경쟁이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찌자는거요?》

안경쟁이는 대단히 침착한 사나이였다. 그는 정황에 어울리지 않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광섭을 쳐다보았다.

《강을 건너 가서 배를 물고 오겠습니다.》

안경쟁이는 머리를 흔들었다.

《생각은 기특하오만 나루배는 물고 오지 못할거요. 사공아바이가 막부득해서 나루터는 비웠지만 노만은 병사가 무기 다루듯 한다오. 이 캄캄한 밤 초행길에 잔치집을 찾아 가기도 어렵소. 더군다나 여기 령복땅의 강들은 좀 괴벽하고 성깔져서 타고장사람들에게 결을 잘 주지 않소.》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잡니까?》

농장회계원이 허를 찼다. 그는 송덕사람이 다 된 것처럼 어려운 일에 남먼저 뛰여 들러는 광섭의 행동에 감동되었던것 같았다.

《내가 있지 않나?》

광섭은 회계원이 왜 옷을 벗었겠는지 이미 짐작되는바 있었으나 정작 그의 결심을 들으니 의심이 번쩍 들었다. 키는 거의 특척으로서 남자의 표준키를 넘지만 중량이 50kg 되나마나하니 그의 체격은 가히 알만 했다. 이런 약골이 밤중에 강을 헤엄쳐 건너 가 나무배를 몰고 온다는것이 어쩐지 미덥지 못했다. 회계원도 자기에 대한 나의 의혹을 느꼈던지 몸을 한번 으시시 떨고 나서 석류석같은 흰 이를 드러 내고 히죽이 웃었다.

《내 이래 봐두 한때 농장을 대표해서 군에 올라가 비교씨름판에 나가본적도 있다오.》

회계원은 회떠운 소리를 했으나 저도 느낄 사이 없이 또 한번 몸을 오들거리며 강복판을 바라고 경충경충 뛰여 갔다. 회계원은 한순간이 새로운 때였으나 어째서인지 되돌아서 몇걸음 내앞으로 다가왔다.

《제대군인동무는 내가 돌아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단말이요.》

농장회계원은 주먹을 무섭게 흔들었다.

《그때처럼 슬그머니 뺨소니쳤다가는 이번에는 가만 놔두지 않겠소.》

《안심하고 빨리 돌아 오시라요.》

농장회계원은 그제야 안심하고 돌아 섰다. 타루빛처럼 거무칙칙한 강심쪽에서 그닥 미덥지 못한 물장구소리가 침병침병 들려 오다가 마침내 어둡속에 잦아 들었다. 주위는 조용해 졌다.

화토불이 다시 피여 오르고 여러사람들이 빙 둘러 앉았다. 몸집이 뚱뚱한 중년사나이만이 화토불 주위를 돌며 빙빙 돌며 안절부절했다. 그는 입속말로 뭔가 중얼거리며 투덜거렸는데 이미 배사공이 어떤 사람인가를 회계원에게서 들어 알고 있는 길손들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이다. 어쨌든 배사공때문에 그의 걸음을 지체시킨것은 사실이니 투덜거리는 사람을 나무랄수는 없었다. 길손들은 지루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중년사나이의 마음을 녹잡힐 심신인지 광섭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시켰다. 제대되어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 농장회계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 안경쟁이회계원의 위협과 절절한 당부에서 여러가지 호기심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모두들 광섭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듯 했다.

광섭은 길손들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기 고향사람인 늙은 배사공을 두둔하고 길손들의 안타까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서슴없이 찬물에 뛰여든

농장회계원에게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보니 송덕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자기의 이야기라는것이 불과 몇사람들에 대한것이기는 하지만 송덕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것을 보여 주는데는 그것만으로도 넉넉할것 같았다.

《송덕리는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인민군대에 입대하기전에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았을뿐입니다.》

×

송덕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목적지에 도착한 리광섭은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가락처럼 좁은 숨 가쁜 고장은 아니지만 구릉지대도 아니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이었음에도 여윌대로 여윌 실개천 하나가 마을앞으로 흐를뿐이고 나무라고는 키 낮은 자작나무가 듬성듬성 보이는 돌서덕 땀기밭들이 바람벽 같은 가파로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리광섭은 벽촌에서 또다시 보다 험한 오지로 쫓겨 간 은둔자처럼 저물어 가는 저녁해를 바라보는데 눈길은 자못 불안했다. 구름떼처럼 흐른다는 양떼와 염소떼는 어디에 있으며 팔뚝 같은 강냉이가 어김없이 두 이삭씩 달린다는 기름진 옥답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저 돌투성이비탈밭에서 전국적으로 정보당수확고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농장과 겨룰만한 알곡을 생산한다는것이 도무지 믿어 지지 않았다. 리광섭은 상급생인 기사를 신통히도 빼닮은것 같은 허풍쟁이 회계원을 돌아 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리광섭이 관리위원장을 찾아 리합속에 가니 텔레비죤촬영기를 멘 미끈하게 생긴 청년을 앞세우고 얼굴에 땀구멍이 송송 보이는 웬 퉁투무례한 사람이 성냥개비로 이발을 쑤시며 나오고 있었다. 이곳 관리위원장은 금년이 60살이라는데 머리카락은 흰 오리하나 보이지 않아 방금 염색을 한것처럼 새까맣고 광대뼈가 푹 볼거진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에 가까운 철색이다. 짝 버그리진 어깨와 실박한 가슴팍은 장대한 키꼴에 잘 어울렸다. 군어 저 버린듯한 갈색눈동자와 큼직한 코며 입이 농장관리일군이러기보다는 왠지스러운 황소를 다루는 달구지군 비슷했는데 손님과 겸상해서 식사할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는 낫가락은 농사군의 풀 베는 낫 두배만큼 컸다. 리광섭이 인사를 할새 없이 웬 아낙네와 뉘뉘거리며 입씨름을 하고 있던 안경쟁이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키가 전보대처럼 커다란 안경쟁이는 관리위원장이라고 짐작되는 사람에게 허리를 낮추고 뭐라고 귀속말로 소근거리며 자주 광섭이쪽을 흘끔 흘끔 돌아 보았다. 처음에는 듣는듯마는듯 하던 퉁투무례한 사나이의 입이 함박같이 벌어 지면서 귀 밑까지 찢졌다. 입에 물고 있던 성냥개비를 책 뱉어

버린 그는 거의 뛰다 싶이 광섬이앞으로 달려 오더니 낮 쥐지 않은 왼손으로 어깨를 짹 눌렀는데 그것은 레스링선수가 자기 힘을 시위하기 위해 상대방의 어깨를 힘껏 움켜 쥐는 모습이였다.

《고맙소. 우리 송덕을 위해 그 먼길을 수고로이 온 광섬동무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와살스러운 황소를 다루는 달구지군 같은 인상을 주던 관리위원장의 얼굴은 한순간에 환해 지고 잉겔불같이 이글거리던 눈은 감격과 환희가 비껴 반짝거렸다.

《오래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리광섬은 코등이 찡하니 저려 오고 가슴이 넓어졌다. 그가 사회생활을 몇해 했다고 하지만 지도원에게서조차 이런 값높은 대접은 받지 못했다. 그는 이때에야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느낄 때에 그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송덕협동농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이지?》

《그렇습니다. 광섬동무는 오래전부터... 워낙 기술자다보니 저쪽에서도...》

말참견을 하고 싶어 안절부절하던 안경쟁이가 이때라 심각하고 제격 끼여 들었다.

《아니, 동무는 무얼 명칭해 있소. 귀한 손님을 마당 한복판에 세워 놓고 해를 넘길 작정이요?》

관리위원장의 삿대질에 안경쟁이가 춤추듯 경충 뛰었다.

《그렇지. 너무 기쁜 김에 손님대접하는걸 껌박 있었군.》

《씨암답도 한마리 튀기라구.》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보, 독고탄실동무나 좀 보지요-》

안경쟁이는 한팔을 몹시 휘저으며 부엌을 향해 경충경충 내뛰고 관리위원장은 리광섬을 이끌고 식당으로 리용하는 방으로 안내했다. 리광섬은 서늘한 저녁바람이 숨막힐듯 후후 밀려 드는 방안을 휘이 둘러 보았다. 회색벽지를 바른 방안은 특색있는 서예작자와 풍경화가 걸려 있는데 닭알색의 은은한 돛자리가 또한 방안의 품위와 아늑한 정서를 보태 주었다. 리광섬은 도대체 정 불이고 살만한 고장이 못된다고 략실했던 초기의 불안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오랜 기간 낯선 타향에서 방랑생활로 헤매다가 부모처자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돌아 온 심정이였다.

옆방에 가서 누군가를 한참 들볶던 관리위원장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 졌다. 그는 무어라고 알아 듣지 못할 소리로 투덜거리며 방등

에 불을 달았다. 중소형발전소도 건설했다는 동네라는데 방등이 웬일인가 했더니 까닭이 있었다.

《설비를 보수하느라 발전기를 한 사날 세웠더니 큰일이나 난것처럼 야단들이요.》

관리위원장은 토스레웃 한벌로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돌려 입고야 바깥출입을 하던 《시골놈들》이 양복, 넥타이에 밤마다 텔레비전을 보더니 어찌나 건방져 졌는지 며칠 전기를 보내지 못한걸 가지고 자기에게까지 서슴없이 온갖 야료를 부리고 삿대질을 한다면서 껄껄 웃었다.

《그래서 올해 농사나 마무리 짓고는 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하자는거요.》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는 《건방진 시골놈들》의 집에 전기난방화를 실시하자는것인데 종합탈곡장과 온갖 편의시설들은 이미 전기화가 끝났으니 벽촌중의 벽촌 송덕땅이 제일먼저 공산주의리상촌으로 될것이라는것이다. 방등이 그닥 밝지 못해 한쪽 얼굴만 휘어스름하고 다른 쪽은 거무스레한 관리위원장의 눈이 잠에 취한듯 가느스름해지고 반대로 목청은 성량이 풍부한 고음가수처럼 높고 청창하다. 리광섬은 60이 넘는 사람 같지 않게 온몸에서 힘이 넘쳐 나는 협동농장관리일군을 보면서 진작 오지 못한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부엌에서 노상 잔소리를 해대던 안경쟁이가 뛰어들어 와 둥근 밥상을 퍼놓고 행주질을 하더니 이어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 전기불이 환영곡이라도 울리듯 번쩍하고 환하게 밝혀 주었다.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에 나오는 마영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계수리공이 있는데 얼마전에 장가를 들었소. 그런데 그 피짜는 시간이 생기면 계속 녀편네결에 붙어서 얼굴만 들여다 보는구려. 아마 세상에 녀편네 얼굴을 싫증과 피곤도 마다하고 더 오래동안 쉬지 않고 들여다 볼수 있는 내기가 있다면 이 피짜가 틀림 없는 금메달수상자가 될거요. 틀림없소. 하하.》

부엌에서 울려 오는 음식그릇을 받아서 두리반상에 챙기며 이야기를 하던 관리위원장은 뒤로 휘뚱자빠지며 뺨이 끊어 지게 웃었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국물이 질끔질끔 쏟아 졌다. 관리위원장은 거기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반나마 쏟아진 국그릇을 부엌으로 되내보내고 무릎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 오는 안경쟁이에게서 걸레를 받아 무릎과 방바닥을 훑쳐 냈다.

《내 그 녀석에게 으름장을 놓았소. <영기 이 녀석, 녀때문에 송덕 망신시키게 됐다. 한시간안으로 전기불을 보내지 않으면 그 별로 닳새동안 녀편네 얼굴을 보지 못할줄 알아라. 내가 빈말하지 않는다는건 너도 알지... 제 녀석이 바빴지 뭘 그래.》

관리위원장은 히죽이 웃으며 이번에는 큼직한 고뿌에 넘쳐 나게 술을 부었다. 참으로 이 사람의 움직임은 립체적이다. 두손은 무언가 쉬임없이 쥐었다놓았다 하고 입은 말하며 눈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룩거린다. 거기에 무릎밑에 깔린 발조차 촉각동물의 긴 빨처럼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움직인다.

《자아, 우리가 만난것을 축하해서 이 잔을 들시라.》

관리위원장은 어물어물하는 리광섭의 손에 잔을 쥐여 주고 술이 넘쳐 나는 자기 잔에 입술을 대고 홀짝 들이 마셨다. 그리고 안경쟁이를 나무랐다.

《내 벌써 몇번 말했나. 술을 이렇게 넘쳐 나게 부는건 <꽉 처먹으라>는 뜻이야. 정말 소리에 경읽기랑이... 자, 어서 들라구.》

《저는...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리광섭은 술을 마시지 않는것이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쁜것은 아니건만 어째서인지 이 사람앞에서만은 인사불성처럼 생각되어 얼굴이 스스로 붉어졌다.

《한잔두 못하오?》

《네, 전혀...》

《하, 그렇군》

관리위원장은 놀랍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탄하는 뜻인지 전혀 알수 없는 애매한 표정을 짓더니 술대신에 닭고기나 먹으라면서 어림짐작으로도 두키로 그람은 된직한 통닭을 그릇채 광섭이앞으로 밀어놓았다. 물이 끓는 가마안에 들어 갔다 나온 알몸뚱이기는 했으나 눈알을 흡쁘고 쳐다보는 닭을 보니 당장 덤벼들것만 같고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피상한 냄새때문에 금시 토할것처럼 속이 가래질하듯 뒤번져 지는것이였다.

《사양말고 들라니까.》

관리위원장은 통닭의 날개죽지를 우지직 비틀어 제끼고 허연 살고기에 소금을 찍어 리광섭의 손에 쥐여 주었다. 리광섭은 닭의 날개죽지를 상우에 집어 던지고 한결을 뒤로 물러 앉았다.

《저는... 저어 닭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건 두발 가진 짐승인데?》

《알레르기성체질이 돼서 말입니다.》

관리위원장은 웃음을 앞으로 쑥 내밀고 얼굴이 새빨갳게 되였다가 하얗게 피기가 가셔지는 리광섭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는데 그때 보니 눈섭밑에 팔알만한 기미가 숨어 있었다. 이마에 주름은 잡히지 않았으나 한쪽 눈썹이 우로 구부러져 올라가고 입귀에 상처자리 같은 깊은 홈이 생긴것으로보아 세상에 닭고기도 못먹는 천치도 있느냐고 하는것만 같았다.

《담배는 피우오?》

《배우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럼련애는 좀해보았소?》

《앵이, 위원장동지도 그런 통담을 하십니까?》

《왜 못할 말을 했는가?》

《련애란 청년들의 눈을 멀게 하는것으로서 이를테면 아편과 같은것이거든요.》

리광섭은 골살을 찌프리며 야단이라도 난것처럼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럼 여보시오, 사내라는게 술을 한잔도 못해, 일체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아, 담배도 안피워, 련애란 뭐, 뭐,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아편과 같다구. 그러면 여보시오, 동무는 무슨 재미로 사오? 절간의 미륵보살과 같군. 엉?》

입안으로 거의 쏟아 넣으려고 입술에 대였던 잔을 상우에 탕 내려 놓은 관리위원장은 숨찬 사람처럼 식식거렸다. 싸움이라도 걸듯 했으나 표정은 인차 부드러워 지고 눈빛은 유연해 졌다.

《그렇다 해서 실망할건 조금도 없소. 송덕땅에서는 모든것을 전부 배우게 될터이니까. 모든것을 말이요.》

관리위원장은 장모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애기서방처럼 기를 펴지 못하는 리광섭을 마음 어진 아버지처럼 어린 자식을 타이르듯 했다. 그는 머지않아 술을 마시는것으로부터 처녀와 련애를 하는데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것이 라면 죄다 배우게 되리라는것을 믿으면서 자신 있게 잔을 들었다. 관리위원장은 모든것을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대할줄 아는 아량 있는 일꾼이기도 해서 밥상머리의 분위기는 인차 호전되였다. 손님을 위해 아껴오던 씨암닭까지 잡았는데 그것을 저가락도 대보지 못한것은 못내 아쉬웠으나 상에는 채식가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모든게 있었다. 생전 보지 못했던 갖가지 버섯류들과 도라지, 드릅, 고비, 참나물, 산천어까지 있어 저녁식사는 흥성거렸다.

《오늘은 푹 쉬오. 나는 기자가 만나자고 해서 나가 봐야 되겠소.》

이미 텔레비죤촬영가와 함께 저녁식사를 치른 관리위원장은 드릅나무무치개 한저가락에 술 한잔을 하고 상에서 물러 났다.

《기자들이 많이 찾아 옵니까?》

리광섭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출판보도기관일꾼들이 자주 찾아 온다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산그림자에 묻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어제날의 화전마를 송덕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것을 말해 준다. 놀랍게도 자기 고장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으로 노상 입을 다물줄 모르던 관리위원장이 어째서인지 대번에 풀이 죽었다.

《많이 찾아 오지. 작가, 기자, 촬영가, 지어 미술가와 안무가까지 찾아 온다오. 와서 마을을 돌아보고 그때는 누구나 다 흥분하고 귀맛 좋은 이야기를 하더군. 그렇지만 돌아 가서는 꿩구어 먹은 자리오. 겨우 지방신문 한귀퉁이에 조박기사가 뒤편 실렸을뿐이요.》

《그건 정말 패썹한 일로군요.》

리광섭은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한것처럼 후끈달아 우물렁거렸다. 관리위원장은 그와 반대로 나직이 한숨까지 쉬었다.

《그건 그들을 탓할게 못되오.》

관리위원장은 아이들 도시락주머니만한 쌈지를 꺼내어 제 엄지손가락보다 실하게 담배를 말아 붙여 물었다.

《마을을 돌아 보구 식사대접까지 받았는데 쓸데 없다는건 이 촌꾼이가 해놓은 일보다 할일이 더 많다는걸 말하는거란 말이요.》

리광섭은 관리위원장의 마지막말은 비몽사몽간에 어렴풋이 들었고 그가 언제 방에서 나갔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해종일 들추는 대용연료차의 적재함우에서 시달린데다 여러날만에 구미에 맞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더니 식곤증이 참을수 없이 밀려와 사지가 나른해 짐과 동시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두덩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처졌다.

리광섭이 이른 조반을 치르고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가니 위원장이 벌써 나와 자기 책상앞에 앉아 있었다. 바지가랭이가 후줄근하고 풀어 헤친 앞가슴에 땀발이 번지르르하게 내뻗것으로 보아 풀짐을 베다 나온 모양이다. 아침 수인사를 나눈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기 오기전에 어느 직장에서 일했소?》

책상우에 팔굽을 고이고 주의 깊은 시선으로 리광섭을 주시하는 관리위원장은 입을 함박같이 벌리고 킬킬 웃던 어제 밤의 그 푸수한 농사군의 어리무리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은색에 가까운 적동색얼굴 한복판에 삐죽 솟은 코마루와 우뚝한 눈확속에서 쉬임없이 디룩거리는 갈색 눈동자 그리고 빈틈없이 턱을 덮은 시꺼먼 수염은 그에게서 사나운 인상을 주었다.

《처음에는 기관차대, 다음에는 객차대에서 일했습니다. 기계공4급의 기능급수를 가지고 있지요.》

리광섭은 리력문건에 적어넣는다면 불과 두줄이상 되지 못할 자기의 짧은 경력을 소개하는데 천리걸음을 하는듯한 부담을 느꼈다. 그렇듯 길지않은 그의 생활 갈피갈피에는 말로써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곡절과 사연들이 얹혀 있었다.

《그러니까 기계는 알겠지만 전기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철도운수는 모두 전기화된것만큼 기계도 보통기계인것이 아니라 전기기계입지요.》

리광섭은 송덕땅에서 본때 있게 일해 볼 희망이 하찮은 문제때문에 물거품처럼 돼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에 철도운수발전전망이며 자기의 기술기능을 재간껏 자랑했다. 그것이 오히려 리광섭의 심심산골인 송덕땅 진출에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관리위원장도 깊은 산속에 들어 박혀 농사를 짓긴 해도 철도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 선행관인 까닭에 온 나라가 발 벗고 도와 준다는것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세워 놓고 보면 기술과 기능이 높은 리광섭의 송덕진출에는 리해할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물론 그는 제발로 견어 들어온 복덩이를 놓고 그의 성실성을 의심하고싶은 생각은 없다. 이제는 잠깐 머물렀다 제 갈길을 가버릴 길손이 아니라 한집안식솔이 돼야 하겠기에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리광섭은 어떻게 돼서 지원을 받아야 할 철도에서 기술과 기능이 높은 청년을 내놓았는가고 문자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저는 기술과 기능은 높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못합니다. 닭고기조차 입에 내지 못하는 알레르기성체질이 아닙니까. 위원장동지도 아시다싶이 말입니다.》

관리위원장은 대답대신 뜻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턱가까이에 올라 가 있는 큼직한 주먹이 얼굴하반부를 가리워 표정은 알수 없으나 잠자코 있는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게 분명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니 여기에서는 기술자가 모자라는데 일이 철도에 비하면 신선놀이이라는군요.》

리광섭은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달달 떨던 관리위원장의 다리가 갑자기 뻗뻗해 지는것을 보았다.

《그게 우리 송덕에 오게 된 리유의 전부인가?》

《또 있습니다.》

리광섭은 혀가 조금씩 굳어져 갔다. 담화라는것이 예심원에게 무슨 심문을 받는것처럼 너무 실무적이어서 은근히 가슴이 조였다.

《관리위원장동지가 일을 잘해서 여기 송덕사람들은 자연재해가 계속되던 시기에도 밥걱정을 모르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더군요.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닌 지금 같은 때에 잡곡밥이라도 배부르게 먹는다는건 대단하지요.》

관리위원장은 리광섭이 말을 끝 마치자 깍지 끼였던 두손중에 오른손은 책상우에 얹히고 왼손은 다섯손가락을 갈퀴처럼 넓게 벌리더니 술이 많은

머리카락을 썩썩 빗어넘겼다. 차림도 어제와 달랐다. 리서관에서 만났을 때에는 팔굽이 드러난 푸른색 짧은 사쓰에 회색바지를 입었는데 오늘은 소매 긴 보위색사쓰에 역시 보위색 바지를 입었다. 차림새가 그렇게 달라서 그런지 웃기 잘하고 룡담도 곧잘하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등글넙직한 인상 좋던 얼굴이 무척 변한듯 했다. 리광섭은 그의 몸가짐이 립체적이라고 보았는데 그것도 썩 달라 졌다. 눈동자는 유리로 해박은것처럼 까딱 움직이지 않았고 손, 발, 지어 노상 벌름거리던 코날개조차 조각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무어니무어니해도 달라진 것은 깨진 징에서 울리는것처럼 징징거리는 그의 목소리였다.

《이제 보니 젊은이는 길을 헛갈렸군.》

《길을 헛갈리다니요?》

《오지 않을 곳으로 왔단 말일세.》

관리위원장은 허리를 쭉욱 펴고 턱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송덕땅의 모든것-탈곡장, 제분소, 간장, 된장을 생산하는 식료공장, 리발소와 목욕탕은 전부 우리 마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여가의 시간의 로동으로 건설했소.》

관리위원장은 황소가 숨을 쉴 때처럼 식-하고 코바람을 불었는데 처음으로 굳어진 듯 싶던 눈동자가 움직이고 코날개가 벌름거렸다.

《그러자니 오죽 힘들었겠소. 아낙네들은 김을 매다가 호미를 친채 밭머리에 쓰러져 잠들고 남정네들은 손톱에서 피가 흘러 담배를 말지 못했네.》

《네, 그건 저도 압니다.》

《알긴 뭘 취뿔을 알아!》

관리위원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뭘 자연재해를 받을 때 밥걱정 모르구 살았다고? 그때 먹지 못해 얼굴이 퉁퉁 부은 우리 송덕사람들을 보거나 했어?... 그래도 그들은 누구 하나 투덜거리지 않고 쌀이 없으면 죽을 먹구, 그것마저 없으면 나무뿌리를 캐먹으면서 발전소를 건설하구 탈곡장, 편의시설을 꾸려 마침내 오늘처럼 일떠서게 된거요. 뭘, 삼출성체질이여서 힘든 일을 못하겠다구?... 덜된 녀석!》

관리위원장은 무언가 잡는 모양으로 어금이를 꼭 깨물었는데 울대뼈가 꿈틀거렸다. 리광섭의 눈에 도 물기가 번쩍거렸다.

《듣고 보니 정말 눈물이 나는군요. 그러나 관리위원장동지, 나도 그런 환경에 맞닥들면 그보다 더 험한...》

《허튼 수작 작작하구 나가라!》

관리위원장은 버락같은 고함소리로 리광섭의 말허리를 꺾어 버리고 그 바른 팔을 내뻗쳐 나들문을

향해 뻗 반원을 그리었다. 옷밖으로 드러난 모든 살이 시커멓고 체대가 우람한 그는 얼굴가죽이 팽팽하게 헤워 지고 눈알은 금시 튀어 나올듯이 툭 불거졌다. 대번에 간담이 서늘해 지고 절망에 빠진 리광섭은 머리를 앞가슴에 구겨 박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을 때에 이미 관리위원장은 보이지 않고 나들문 후려닫는 소리가 탕- 들렸을뿐이다.

문밖에서 안경쟁이의 희떠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네다. 벌써 척 보니 까 먹을알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건달뱅이가 틀림없더다니까.》

《싱거운 소리 작작하구 밥값이나 정확히 청산하란 말이요. 씨암답값도 받아 내요.》

《아니 저 젊은이는 알레르기성체질...》

《어쨌든 저 건달뱅이 같은 녀석때문에 아까운 씨암답이 죽지 않는가.》

...광섭은 여기까지 말하고 잠간 귀를 기울였다.

아직 강건너쪽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강자갈을 밟으며 쉬임없이 서성거리던 중년사나이드 화톳불 곁에서 서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주위는 조용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장동무가 제대군인동무의 등덜미를 쥐여 송덕지경밖으로 내던진 셈이군요?》

누군가 웃으며 물었다. 화톳불이 사위고 어둠이 뻘뻘이 몰려 들어 얼굴을 알아 볼수 없었다.

《아니지요. 내 스스로가 송덕에서 뛰쳐 나왔지요.》

《똥, 더럽다. 넓고넓은 세상에서 나 받아 줄데 없겠나. 같이 일하자고 빌어도 소처럼 우직스러운 당신하고는 한가마밥을 먹지 않겠소.》하고 침을 뱉고 돌아 서 버렸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소?》

삭정이를 한아름 안고 온 청년이 물었다.

화톳불은 다시 확 살아 나고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화가 나서 아무 미련도 없이 송덕을 떠난 리광섭은 50리 길도 축내지 못해 발바닥이 만신창이되었다. 그는 길녘에 털썩 주저앉아 장작개비처럼 뻗뻗해진 다리를 주무르며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해를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갈길은 아득한데 아무리 둘러 봐야 인가는 고사하고 하루밤 묵어갈만한 풀막조차 보이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관리위원장이 패썩했다. 인정머리 없는 그런 소처럼 미운한 사람이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런 사람을 믿고 천리길을 달려 온 저자신이 바보였고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모든 사람들이 미웠다. 그가 정신을 버쩍 차리도록 따끔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쫓겨 나온게 분했다. 이렇듯 로상에

서 지칠대로 지치고 나머지 150리 산길을 밤에 혼자 갈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렇게도 혼한 자동차도 한대 보이지 않아 한숨만 푹푹 쉬는데 난데없이 건드러진 노래가락이 길게 울려 왔다.

...

떠나갈 땐 빈 배로 가지만

돌아 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

리광섭은 머리끝이 곤두섰다.

길동무가 있으면 한결 의지가 될듯한 막막한 처지였으나 무인지경에서 인기척을 느끼니 호랑이만 난것보다 더 무서웠다. 리광섭은 두어개 새짚에 목을 틀어 박고 숨소리를 딱 죽였다. 돌풍과 같은 골바람이 휘익 불어 오면서 이미 산그림자에 가리워 침침하게 보이는 잣나무숲을 스치었다. 한순간 태를 치며 좌-좌- 설레이는 숲속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는 관리위원장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개탄하던 끝에 허탈감에 빠져 바람소리를 노래소리로 잘못 들은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가까이에서 아주 구성진 가락이 푹푹히 울려 왔다.

...

리광섭은 숨소리를 죽이고 오돌오돌 떨던 사람같이 않게 후닥닥 튀겨 일어 났다. 노래소리가 들려온 방향도 가늠이 갔다. 그곳은 좁은 골짜기를 비집고 손가락같이 가느다란 실개천이 있는 곳인데 좌우에는 버드나무와 개암나무가 한데 어울려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키 낮은 잡관목들을 헤치고 줄줄 흐르는 벽계수는 작은 나무다리를 빠져 또다시 무성하게 우거진 버드나무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건드러지게 가락을 뽑은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무다리 저쪽에 멎어 있는 소달구지는 푹푹히 보였다. 그는 허리를 약간 낮추고 온몸의 신경을 두눈에 집중하고 숲쪽을 노려보았다. 이윽고 버드나무와 개암나무의 혼성림이 바람 만난 숲처럼 와슬렁거리며 설레이더니 밀짚모가 솟아 올라 길녘을 향해 뚱뚱 떠오기 시작했다. 리광섭은 약간 성한 왼쪽 발에 의지해서 경충경충 내달리기 시작했다.

《여보시우-》

리광섭은 앞으로 내뻗친 두팔을 엇갈아 마구 휘젓는데 조막만하게 줄어 든 배낭이 툭툭툭툭 춤을 추며 등을 때렸다.

《함께... 가자구요-》

리광섭은 탁 가라앉은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해 저무는 심산속에서 소달구지마저 놓쳐 버린다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게 했다.

《여보시오-》

리광섭은 또한번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쉬어 버린 까닭에 나팔통에서 울려 나오는 고음가수만큼 성량이 풍부하지는 못했으나 손가락같이 좁은 골에 산울림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건드러진 노래가락이 푹 끊어 지고 전이 넓은 밀짚모가 외로 한고래 빙그르 돌면서 시뻘건 얼굴이 이쪽을 살핀다. 연장 없는 물낱은 군복을 입은 서른안팠의 청년이었다. 그도 인가 하나 없는 무인지경에서 사람을 만난것이 무척 놀라왔던지 말뚝짐승처럼 뻗치고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인차 표정을 바꾸더니 히죽이 웃었다. 차림새와 서툰 토끼털을 하는 낯선 청년이 몇 모르고 산골 200리 길에 나섰다가 고생을 한다는것을 인차 알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 내빼지 앓을터이니 덤비지 말고 천천히 오구려.》

소달구지군은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정 느릿느릿 걸었다. 알고 보니 소달구지는 군소재지까지 간다니 다리고생은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그가 송덕사람인지라 이야기하고 싶은 흥심이 없는게 걱정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 안할것처럼 태평스럽게 느릿느릿 걷는 황소가 끄는 달구지에 앉아 150리 산길을 말동무없이 간다는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보다 리광섭을 더욱 괴롭히는것은 그가 부르는 《바다의 노래》였다. 음정이 고르롭지 못한데다 쉼소리까지 나는 목청도 질색이었지만 고장난 록음기처럼 똑같은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는 영 질색이었다.

...

(이거야 어디 참겠나.)

리광섭은 마침내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자기는 그가 성수가 나서 부르는 노래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귀찮아 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을 감고 머리를 앞가슴에 꾸겨 박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소달구지군은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기척없이 앉아 있는 리광섭이 노래에 취하여 자감세계에 빠진줄 알았던 모양이다. 제지하지 않았다가는 군소재지까지 가는 도중 장밤 해종일이라도 부를것 같았다. 비록 거름달구지이긴 하지만 신세를 지는 처지인지라 목소리만은 높일수 없었다.

《제대군인동무, 다른 노래를 부를수 없습니까?》

《왜, 듣기 싫은가?》

《좋은 말도 세번만 하면 싫다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만둡시다. 좋다고 하는 일도 다 못하겠는데 싫다는 일을 왜 하겠소.》

그가 회초리 같은 긴 채찍으로 황소엉덩자를 툭툭 후리 쳤다. 꿈쩍 놀란 황소가 제법 내굽을 안고 달렸다. 어느덧 해는 높은 산너머로 가라앉고 골짜

기와 산비탈에 우거진 나무숲은 그림자처럼 거무죽죽하게 보였다. 하늘은 아직 별이 뜨지 않았으나 담청색으로부터 점차 부드러운 청록색으로 변하고 엷은 채빛어둑이 사처에서 깊은 골바닥으로 급격히 밀려들었다. 자기자신마저 잊을듯한 꿈과도 같은 고요속에서 들리는것은 수림을 스치는 바람소리뿐이었다. 난생처음 산촌의 저녁풍경을 체험해 보는 리광섭은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객지에서 혼란을 일으킨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려고 흔들거리는 소달구지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좀체 사색을 집중할수 없었다. 점심 한끼를 건넸을뿐인데도 배안에서는 쉬임없이 보채는 소리가 쪼르륵거리는데다 소달구지군이 또다시 귀찮게 노래를 불렀기때문이었다.

《용서하라구. 난 이 노래 없이는 살 재미가 없을것 같소. 이 노래를 부르면 답답하던 가슴이 탁 풀리고 온몸에서 힘이 우썩우썩 솟거든.》

청년은 만시름을 잊은 사람처럼 쾌활하게 웃었다. 리광섭이도 웃기는 했으나 그것은 유쾌해서가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였다. 송덕에 해종일 녀편네 얼굴을 들여다 보아도 싫증을 모르는 피짜가 있다더니 같은 노래를 계속 불려야 가슴이 풀리고 용기가 난다는 엉터리도 있으니 그 고장의 정서생활 수준도 가히 짐작할수 있었다. 그것도 《적기가》나 《동지애의 노래》와 같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가요라도 모르겠는데 정적이 깃든 바다가에 나란히 앉아 달 뜨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처녀총각의 애절한 감정이나 북돋아 주기 좋은 민요에서 환희와 용기를 얻는다니 피짜중에도 피짜일것이다. 그러나 제대군인청년의 말을 들어 보니 그가 그 노래를 그렇게도 좋아하는데는 웃어 넘길수 없는 길고긴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한동안 중대사관장사업을 했는데 한 나어린 전사가 때아닌 여름감기에 걸렸소. 그런데 이거 야단 아니요. 앓는 전사가 일체 육불이는 입에 대지 못하오. 알레르기성체질이라나... 동무, 그런 피짜 더더 봤는가?》

《보기만 했겠습니까.》

리광섭은 시침을 뺄 땀다. 우습기도 했다. 사관장의 애간장을 태웠다는 일레르기성체질을 가진 사람을 눈앞에 놓고도 모르니 웃지 않을수 없었다. 리광섭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위해 모르쇠를 했다.

《환자는 서해 꽃게가 있으면 밥을 좀 먹을것 같다는거요. 하느수 없이 전마선을 몰고 바다로 나갔소. 근무성원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농촌지원전투에 나가놔서 함께 갈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일이 안될 때인지라 돌풍을 만나 전마선이 뒤집혀 졌소. 바람은 세차고 파도는 점점 높아 졌소. 나는 영

낙없이 죽은 몸이었지.》

제대군인청년의 이마에는 땀발이 내돌아 번들거렸다.

《<죽었구나!>하고 생각하니 앓고 있는 신입병사와 그의 머리말을 지키며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릴 전우들이며 200리 산길을 따라 나와 앓지 말고 잘 싸우라 당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소. 그러나 점점 맥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 졌소. 이때였네. <힘을 내세요->하는 녀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 왔소. 파도에 실려 아찔하게 높이 솟아 오른 나는 아득히 먼곳에서 파도와 파도사이를 뚫고 가물가물 움직이는 작은 너박선을 보았을뿐이요.》

제대군인청년은 피우던 담배를 성급하게 몇모금 빨더니 멀리 집어 던졌다.

《내가 정신을 차리니 어데선가 <바다의 노래>가 들려 왔소. 돌아다보니 가까이에 자그마한 화톳불이 타오르는데 그결에 웬 처녀가 젖은 무릎을 그리안고 조용조용 노래를 부르더군. 그는 내가 정신을 차린것을 보자 가까이 다가와 내려다 보더군. 나는 이제껏 그렇듯 우아하고 기쁨에 찬 다정한 시선을 보지 못했소. 그후부터 나는 그 처녀가 그리울 때마다 그가 즐기던 그 노래를 불렀소. 그 노래를 부르노라면 가슴을 찢릿하게 하는 향수와 함께 용솟음치는 환희를 느끼게 되오.》

제대군인청년의 이야기는 끝났다. 리광섭은 제대군인청년과 그를 구원해 준 처녀와의 그후 생활에 대하여 알고 싶은게 많았으나 물어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제대군인청년이 들려준 고담같은 이야기를 통해 눈뿌리가 화끈하도록 랑만적인 감정이 온몸을 휩싸는것과 동시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자기의 저조한 기분으로 해서 잠시나마 제대군인청년을 섭섭하게 한것이 몹시 후회되었으나 깊어 가는 밤 산골길에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도록 할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 노래때문에 자기가 점점 난처해 질듯 한 리광섭은 화재를 돌려 어떻게 되어 군사복무를 끝마치고 다시 이 벽촌으로 오게 됐느냐고 물었다. 어째서인지 제대군인청년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점점 정이 끌리고 아울러 보잘나위 없는 고장에서 인정도 정서도 없는 관리위원장과 같은 일군과 같이 일하는 그에게 동정이 갔던것이다.

리광섭이로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질문이었으나 제대군인청년은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나의 병사시절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귀중함을 폐부로 절감하는 나날이었다고 말할수 있소. 총위고 전호가에 서 있노라면 내뒤에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다는 숭엄한 감정이 가슴속으로 그득히 스며 들거든. 지난날 우리 부모

들은 내 나라가 없었던 탓으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왔소, 아버이 수령님께서 세워 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 주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기에 송덕 같은 산골마을에도 고등중학교가 일떠서고 거기에서 졸업한 옛날 화전민의 자손들이 과학자로, 영웅으로 자라났지.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원썬놈들은 또다시 옛날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거던. 그런걸 생각하면 눈에서 불이 일고 총을 억세게 틀어 쥐게 된단 말이요. <이놈들, 내 조국의 한치 땅을 침범해 보라. 그러면 뼈다귀도 추지 못한다.> 이것이 병사의 의지요.》

제대군인청년의 얼굴은 높은 책임감으로 충만되어 한층 엄엄해 보였다.

《그래서 입대할 때의 계획을 바꾸어 제대배낭을 메고 이 벽촌 내 고향으로 돌아 왔소.》

제대군인청년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불이 죽은 담배에 성냥을 고어댔는데 빨간 불에 드러난 그의 생신한 얼굴은 한결 나이들어보였고 짙은 속눈썹이 검은 눈우에서 진지하게 깜박거리고 있었다. 리광섭은 제대군인청년의 이야기가 가식이 없는 생각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이 든 처녀를 바다가에 남겨 놓고 산골중에도 산골인 고향으로 돌아 온 참뜻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자기의 체험으로 보아 성격이 괴벽하고 왈살스럽게 생긴 관리위원장으로부터 무슨 반응이 있었을가 해서 물었더니 제대군인청년은 뺨이 붉어지게 웃었다.

《고향으로 돌아 온 첫날 저녁 집으로 정하더군. 상은 색다른건 없었소만 농사군식으로 텅텅하고 꾸집혔소. 나는 알레르기성체질도 아니고 가마안에 들어갔다 나온것이라면 무엇이냐 삭일만한 풍부한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닭고기면 닭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었소. 이튿날 관리위원장실에서의 상봉은 양상이 전혀 달랐지.

<어째 이 심산벽촌으로 다시 왔나? 제대된 다음에 다시는 돌아 오지 않을줄 알았는데.>

관리위원장은 팔굽을 책상우에 피우고 맞구멍을 뚫을것처럼 나를 쏘아 보는데 우뚝한 눈확속의 갈색 눈동자는 꼭 생매의 그것과 같았소.

<예로부터 송아지는 낳아서 산으로 보내고 아들은 낳아서 벌방으로 보내라 했는데.>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이제 보니 송덕협동농장의 일이 시원치 못한건 다름아닌 위원장동무의 머리속에 녹이 쓸었기때문 이군요.>

<내가 뭐 말을 잘못했는가?>

<아들을 낳아서 벌방으로 보내라는건 두메산골

이 벌방보다 못할 때 하는 소리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어가 모자라서 산골이 벌방보다 못해야 하나요. 예?>

관리위원장은 장난꾸러기였던 가래나무집 막내가 군대에 나가 룡이 돼왔노라고 몹시 감탄하더군. 나는 그것을 일군들이 무책임성을 어물쩍 덮으려는 것임을 잘 아는지라 벌컥 성을 냈네,

<나는 눈만 뜨면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행여나 우리 고향소식이 없나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문을 뒤지고 또 뒤져도 송덕이라는 두 글자는 그림자도 찾아 볼수 없으니 이거야 창피하고 회가 나서 견딜수 있습니까.>

나는 어찌나 성이 났던지 숨소리가 거칠어 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 올라 산산이 불타 버리는것 같았소.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키를 솟구쳐 방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소.

<지금 미국놈들은 우리를 먹여 보겠다고 별의별 못된 짓을 다하고 있지만 인민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배심 든든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송덕사람들은 땅타발, 하늘타발만 하면서 한숨만 쉽니까. 일군들은 무엇을...>

내가 여기까지 말하는데 관리위원장이 벼락같이 달려 들어 내 손을 움켜 쥐고 힘껏 나무어 채더니 제 뺨을 치는게 아니겠소. 처음에는 왼쪽 뺨을, 다음에는 바른 뺨을, 그 다음에는 머리를 마구 두들기었네.

<때리라구. 구실을 못한 이 놈을 정신이 들 때까지 치라구.>

...우리 관리위원장은 이런 사람일세.》

동녘하늘이 흰해 지더니 비록 이그러지기는 했으나 상당히 밝고 아련한 달이 얼굴을 빼주름히 내밀었다. 그러자 어둠속에 잠겨 일매지게 꺼렇게 보이던 산천초목이 일시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나같이 우아했고 친근감을 주었다. 가까운 산비탈에 뽕뽕이 모여 선 잣나무는 밤길 가는 길손들에게 무어라고 속삭이듯 쉬쉬 바람소리를 내며 설레이는데 그보다 가까운 길옆의 참나무와 가래나무는 땅에 비낀 제 그림자 넋없이 들여다보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바람은 밤이 깊어 감에 따라 점점 쌀쌀해 졌다.

두사람은 삭정이를 주어다 자그마한 화톳불을 만들어 놓고 밤참요기를 한 다음 소에게도 풀 한단을 주었다.

소달구지는 다시 삐걱거리며 떠나고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이튿날 관리위원장은 거름달구지를 끌고 200리가 착실히 되는 군소재지를 향해 떠났소. 내가

첫 동행자로 나선것은 물론이요. 동네사람들속에서
가로 꿰진 소리가 튀어 나오더군.

<관리위원장이 주대가 있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영 물감자일세. 글썄 아들별되는 가래나무집 막내
이의 꼬드김에 넘어 가 왕복 400리 산골길을 걸어
진거름을 뽕다니.>

<그 사람 정신이 쑥 빠졌군.>

그러거나말거나 관리위원장과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름달구지를 몰았소. 처음에는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고 전전궁궁하던 작업반장과 분조장이
따라 나섰소. 청년동맹원들도 지켰다고 하겠소?》

제대군인청년은 리광섭을 돌아 보고 히죽이 웃었
다.

《산골사람들이 바빴지 무얼 그래.》

제대군인청년이 리광섭을 돌아 보며 박씨같이 너
뽕너뽕한 이를 드러내고 웃는거라든가 이조까지 신
통히 관리위원장을 빼닮았다.

《우리 송덕사람들치고 군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
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지. 군당회의에 올라
가는 리당비서나 농민시장에 장 보러 가는 농장원
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빈 달구지를 끌고 갔다가
진거름을 싣고 오군 했소. 우리는 그해에 매일 알
곡수확고를 1.5배로 끌어 올렸고 그 정신으로 10여
리나 되는 물길굴을 두개씩이나 뚫어 발전소를 건
설했소.》

리광섭은 제대군인청년과 나란히 앉아 있기가 부
끄러웠다. 그는 조국의 한치 땅이 얼마나 귀중한가
를 폐부로 절감했기에 메마른 벽촌 고향땅을 땀으
로 갈구기 위해 갔지만 자기는 배불리 먹고 쉽게
살아 가기 위해 왔다. 그러니 송덕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리광섭은 속물중에도 너절한 인간쓰레
기, 건달군외의 다른 아니였다. 그때부터 그는 군소
제지의 철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철문에 빗장을 지
른것처럼 내내 입을 다물고있었다.

헤여질 때가 되었다. 참으로 지난 며칠사이에는 20
여년간 리광섭이 체험한것을 모두 합친것보다 더
많은것을 체험한 의의있고 보람 있는 순간순간이었
다. 험한 산골길에서 신세를 툭툭히 지기도 했거니
와 보다 중요한 생활의 철리를 깨우쳐 준 제대군인
청년을 잊고 싶지 않아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 말인가?》

제대군인청년은 눈이 울롱해 졌다가 인차 실눈을
지었다. 장난기가 비껴 있는 눈은 웃고 입은 귀밀
까지 찢었는데 그는 낯선 길동무의 질문에 만족한
것 같았다.

《내 이름으로 말하면 작고하신 천세봉선생이 지
어 주신것인데...》

《아, 마영기...》

《벌써 들었군. 하하.》

제대군인청년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한바탕 웃고
나서 채찍을 머리위로 높이 쳐들었다. 리광섭은 웃
지 않았다. 소달구지우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제대
군인 마영기는 해종일 너편네의 얼굴을 들여다보아
도 싫증을 모르는 피짜가 아니라 어데서나 볼수 있
는 보통청년인 동시에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시대의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인것이다.
이렇듯 총 권 병사의 정신으로 사는 시대의 영웅들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숲을 이루고 있기에 그 어떤
광풍이 몰아 쳐 와도 장군님 모신 내나라, 내 조국
은 끄떡없이 강성대국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내달
리는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웃음보다도 경의를
표시해야 되는것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리광섭은 군인식으로 바른손을 모자채양에 정중
히 올려 붙였다.

긴 회초리가 공중에서 한번 찢지는 소리를 내자
달구지는 떠났다. 몹시 덜커덩거리는 소달구지는
마영기가 채찍을 휘두르며 《이랴, 이랴.》 하고 고
함을 지르면 유쾌하게 빠져거렸다.

이윽고 소달구지는 잣나무 우거진 자그마한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고 대신 건드러진 노래가락이 구
성지게 들려 왔다.

...

꽃이야 곱다면 얼마나 고우랴
일 잘하는 우리 님 제일로 곱더랴

...

리광섭은 어느덧 친숙해 진 노래를 들으며 마영
기가 해종일 들여다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안해가 바다가에서 구원해 준 그 처녀가 아닐
가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은 봄날의 해빛처럼 더
없이 따스해 졌다.

...

화토불도 사위여 지고 광섭의 이야기도 끝났다.

《송덕에 가면 관리위원장동무와 다시 만나겠는
데 감회가 깊겠군요.》

누구인지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야릇한 말을 했
다. 광섭은 가슴속으로 전류와도 같은것이 찌르르
하니 밀려 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그후 인차 인민군대에 입대했고 병사생활
을 통해 마영기청년이 체험한것과 똑같은 장군님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귀중함을 느꼈소. 참으로
조국의 한치 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렬들이 피를
뿌렸고 지금도 총 권 병사들이 그 조국을 지키고
있소. 그것을 깨닫고 관리위원장아바이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는데...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소.》

송덕관리위원장은 두번째 발전소를 건설하던 어느날 깊은 밤 공사현장을 돌아 보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물사태와 맞닥뜨렸다. 산너머 저쪽 골에서 큰 비가 쏟아졌던 것이다. 그는 비상신호로 공사장에 매달아 놓은 쇠토막을 두드리고 위험에 처한 가물막이쪽으로 달려 갔다. 가물막이쪽이 터지면 농장원들이 겨우내 쉬지 못하고 건설한 모든것이 물에 떠내려 가고 흙사태에 묻히고 만다. 관리위원장은 독새짚으로 쏟아져 나오는 얼음보다 찬 물줄기에 등을 들이댔다. 나이 이미 60이 된 그로서는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그는 쓰러져서는 안되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강성대국건설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실현이 그만큼 늦어 진다는 절절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불사신의 힘을 날게 했던 것이다. 산골물은 자꾸 불어 나는데다 나이 또한 적지 않은지라 힘이 점점 빠지고 기력이 진해져 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수 없었다...

마을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달려 왔을 때 관리위원장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위원장동무는 숨을 거두기전에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놓고 이말저말 하던 끝에 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회계원. 그때 찾아왔던 젊은이말일세.>

<위원장아바이를 노엽힌 건달군같은 녀석말이지요. 내 그 녀석을 만나면 그저...>

회계원은 눈물을 툭툭 떨어지며 아바이를 노엽힌 그녀석을 혼살내 주겠다고 울려했다는군요. 관리위원장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닐세. 그때만은 자네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 젊은이는 건달군이 아닐세. 그 나이에 술담배를 끊고 사랑에도 유혹되지 않는다는게 어디 쉬운가. 길을 잘못 바로 잡아 주면 한몫 할것 같기에 한번 으름장을 놓았던건데 글썽 계집애처럼 앵돌아서 가버렸네. 어찌나 가슴이 알팍지근한지 며칠 잠을 자지 못했네. 그후 수소문해 보았더니 인민군대에 입대했다더군. 한번 만나면 그가 좋아하는 산채를 실컷 대접하면서 용서를 빌자 했는데 이렇게 벼락같이 가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광섭은 가슴이 떨리고 목이 메여 이야기를 계속 할수 없었다. 때마침 강 건너 나루터쪽으로 몇개의

불뿔치가 춤추듯 너울너울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두세두세 들려 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손님-동-지들.》

시금털털한 막걸리냄새가 강건너에까지 풍겨 오는듯한 기분 좋은 고음이였다.

《그런데 거기에 제대군인동무도 있소?》

광섭은 벌떡 일어 나 맞받아 소리쳤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은 안가셨다 그거겠소. 하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는 나루가 손님들은 하나같이 껄껄 웃었다. 광섭은 귀를 기울였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새처럼 잠깐 들려 하루밤을 겨우 묵고 간 송덕마을에서 있는 그의 생활세부를 아는 사람은 많지 못했다. 또 세월도 흘렀다. 리광섭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불뿔치의 움직임으로 보아 나루배를 기슭 계선장에서 떼는 모양이다. 그러나 광섭은 그가 누구인지 대뜸 알아맞추었다. 어둠을 뚫고 서정적인 노래가락이 길게 울려왔던것이다.

...

떠나갈 땐 빈 배로 가지만
돌아 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

(아, 마영기동무!)

광섭은 앞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나루가의 손님들에게 웨쳤다.

《새 관리위원장인 마영기동무요!》

사위여가는 화톳불주위에 빙 둘러 앉았던 길손들이 우뚝우뚝 일어 나 점점 가까와 오는 불뿔치-나루배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커다란 불뿔치밑에 두사람이 보였다. 노 젓는 사람과 멧없이 삐죽 솟아 흡사 발머리 말뚝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자주 채채기를 하는것으로 보아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한 관리위원장의 마지막지적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용약 찬물에 뛰어드는 결단을 내린 안경쟁이일것이다.

배전을 치는 잔물결소리가 철썹철썹 가까와 오고 어둠을 헤가르며 크지 않은 배가 기척없이 다가왔다. 광섭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노를 젓는 사나이의 형체가 똑똑히 보이자 서서 기다리기가 죄송스러워 두팔을 벌리고 물속으로 침범 뛰어들었다.

차장도에서